국통조 87－12－92

第 8次 韓獨學術會議

고르바쵸프下의 東·西關係와 分斷國統一問題

East-West relations and Divided nation Problems in Gorbachev era

1987年10月 5日～10月 6日
Plaza Hotel, Seoul

PUBLIC RECORD

延世大 東西問題研究院
主催：윤헨대 동남유럽경제 및 사회연구소
윤헨대 국제관계연구소

後援：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蘇聯의 對아시아 政治·外交·軍事政策 …… 3
(정 종 욱)

2. 유럽과 아시아의 安保問題 …… 23
(안 병 준)

3. 南·北韓 經濟의 發展成果 …… 41
(정 창 영)

4. 東·西獨關係와 南·北韓關係 …… 67
(한 승 주)

5. 東·西獨關係와 南·北韓關係 …… 91
- 韓國의 視角에서 본 經濟的 展望 -
(윤 석 범)

6.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의 美·蘇競爭 …… 115
(Joachim Glaubitz)

7. 蘇聯과 바르샤바條約機構와의 關係 …… 141
(Jens Hacker)

8. 蘇聯의 對인도차이나와 아세안政策 …… 163
(Karl Kindermann)

9. 고르바쵸프하의 東·西유럽 貿易關係 …… 193
(Peter Knirch)

蘇聯의 對亞細亞 政治·外交·軍事政策

정 종 욱
(서울大 敎授)

Ⅰ. 새로운 接近

미하일 고르바쵸프는 1985년 3월 蘇聯 共産黨 總書記長에 就任한 이래로 과거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아시아에서의 政治的·軍事的·經濟的 그리고 外交的 主導權을 行使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多角的인 側面에서의 主導權 行使가 提唱된 것과 동시에 추구되었다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만 볼 때에도 異例的인 것이다. 또한 더욱 더 특이한 것은 대담하고 實用的이며 심지어 기만적인 平和政策을 내세우는 고르바쵸프 外交政策의 스타일인 것이다.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접근은 1986年 7月 28日에 있었던 블라디보스톡 演說을 包含하여 여러 경우에 있어서 全아시아會議의 理想이 상징적으로 提示되었다. 極東의 都市들에 대한 레닌의 秩序賦與라는 잇점을 안고서 蘇聯의 指導者는 "헬싱키會議"의 모습을 본뜬, 태평양지역에 位置한 모든 國家들이 參與하는 會議를 提案하였다.[1] 그는 만일 會議召集提案에 대한 同議가 얻어지게 될 때에는 히로시마가 그러한 會議의 會議場所로 될 수도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核武器의 첫번째 被害地가 된 그 都市가 아시아와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헬싱키'가 될 수 없겠는가?"하고 反問하였다.[2]

全아시아會議의 槪念은 고르바쵸프가 모스크바의 最高權力者의 位置에 올라선 두달도 채 못된 1985年 5月에 처음으로 提唱되었다. 그를 訪問한 최초의 外國首相인 印度 首相 라지브 간디를 歡迎하는 晩餐席上에서 새로운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은 全아시아會議는 아시아의 安保問題에 대하여

註① Mikhail.S.Gorbachev, Toward a better world, New York: Richardson & Steinman, 1987, p.354.

註② Ibid.

意見을 交換하고 건설적인 解決方案을 共同으로 摸索하기 위하여 開催될 수 있다고 言及하였다. 유럽에서의 平和와 安保를 위한 헬싱키 協定이 締結되어 存續하면서 강한 信賴의 기반을 심어주었고 유럽사람들에게 명백한 利益을 提供하였다는 것을 强調하면서, 그는 아시아의 國家들은 유럽의 經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力說하였던 것이다. 헬싱키協定으로 가는 과정이 단지 부드럽고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認定하면서, 그는 아시아인들은 아시아地域에 있어서의 共通的이며 合理的인 接近을 위하여 共同의 努力을 경주하는데 결코 어리석어서는 안된다고 强調하였다. 보다 더 상세하게 그는 "兩者會談과 多者會談으로부터 미래의 全아시아會議에 도달하게 되는 어떤 확실한 手段"들을 提示하였다.[4]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蘇聯의 리더쉽은 고르바쵸프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和攻勢를 支持하기 위한 劃期的인 外交的 行態들을 동반하였던 것이다. 가장 注目할만한 事件은 1986年 1月 새로이 外相에 任命된 세바드로나제의 日本, 北韓 및 蒙古 訪問이었다. 日本에게는 그것이 10年만에 처음있는 蘇聯外相의 訪問이었으며, 北韓에게는 18年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이다. 14개월 이후인 1987年 3月에 세바드로나제는 또 다시 아시아 巡訪길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타이,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공산 캄푸치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沿岸國家들을 巡訪하였다. 보다 일찌기 1985年 10月과 11月에 蘇聯 副首相 리가보프(Ryabov)

註③ 이 경우 고르바쵸프 演說의 前文은 다음에 提示되어 있다. Robert G.Sutter, Security in Asia, Ce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May 1985. pp. 3-6.

註④ Strategic Survey, 1986-1987,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7, p.89.

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를 訪問하였으며, 1986年 4月에 외무차관인 카피챠(M. Kapitsa)는 타이와 필리핀을 訪問하였다.

그러나, 모든 아시아 國家들 중에서 中共은 모스크바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85年 한 해 동안 60名이 넘는 蘇聯의 代表團이 中共을 訪問하였으며 1960年 이래 처음으로 議會代表團의 交換이 있었다. 1986年에는 蘇聯과 中共關係는 두나라의 副首相, 즉 中共의 姚依林과 蘇聯의 아키포프(Arkhipov)와 탈리닌(Talyzin)의 交換訪問과 貿易·經濟 協力, 領事派遣에 관한 몇개의 協定書를 締結한 이래로 현저하게 발전되었다. 貿易協定에 따르면 北京과 모스크바는 1990年度까지 그들의 貿易을 2배로 增大시켜 35억불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1985年에는 中·蘇 貿易額은 18억불이었다. 또한 經濟協力에 대한 協定에 따라 中共의 새로운 工場 7개소의 建設에 대한 蘇聯의 支援과 1950年代 중반 蘇聯의 支援으로 建設되었던 17개소의 공장의 現代化를 蘇聯이 支援하기로 要請되었다.[5]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고르바쵸프는 아시아 國家들이 兩者, 多者間이나 혹은 全아시아會議에서 討論될 수 있다고 하는 몇몇 特定主題들을 提示하였다. 그는 그의 見解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提起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提示한 이슈들과 그들이 體系化시킨 構想들을 진지한 檢討를 거친 후에 提起된 것이라고 强調하고 있다.[6] 다음에서는 그가 提示한 이슈들을 하나씩 檢討하는 것 대신에 오직 그들이 중요한 樣相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註⑤ Ibid.

註⑥ Toward A Better World, p.354.

Ⅱ. 全아시아會議內容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地域的인 安定의 問題"에 대하여 言及하였다. 그는 "地域的인 安定의 問題"라는 用語가 내포하고 있는 意味를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중에 그러한 意圖가 內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많은 아시아國家들은 蘇聯을 包含한 各國家간의 關係에서 政治的·領域的 그리고 다른 뚜렷한 問題들을 갖고 있다. 고르바쵸프는 지역적인 安定이 必要하다고 아프가니스탄, 동남아시아, 캄푸치아, 베트남 그리고 中共과 日本등 북쪽 國境線의 論爭으로 인해 關係가 正常化되지 못했던 國家들과 蘇聯과의 關係는 言及하지 않고 便宜에 따라서 選擇的으로 지적하였던 것이다. 대신에 그는 베트남에서의 蘇聯軍 駐屯과 캄푸치아에서의 베트남軍의 駐屯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특별한 고충을 안고 있다. 그는 크메르 難民들과 베트남인들이 美國에 의하여 막대한 損失을 입고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친구와 同盟을 선택할 수 있는 權利를 갖고 있다고 主張했다.[7] 中國에 대하여 그는 友好的인 對話를 통하여 베트남과의 關係를 正常化시켜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그 主張이 두 政府와 그들의 指導力이 主權問題라는 것을 認定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 社會主義 國家사이의 國境이 다시금 平和와 善隣關係의 國境線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表現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연하여 "지금이 가장 적절한 時點이며 모든 아시아 國家들은 이러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라고 言及하고 있다.[8] 더욱 더 호기심이 가는 것은 그는 蘇聯-越南關係의 正常化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障碍物은 캄푸치아의 월남군의 駐屯과 蘇聯의 支持라는 사실을 명확히

註⑦ Ibid., pp.354-355.

註⑧ Ibid., p.355.

알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캄푸치아와 베트남이, 그가 主張했던 것처럼, 그들의 友邦과 同盟을 選擇할 權利를 獲得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蘇聯의 役割이 이 地域에서 正當化되고 있다면, 그는 北京과 하노이가 어떻게 그들의 關係를 正常化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中共과 접하고 있는 4,500킬로미터의 긴 兩國 國境線에 대해 言及하면서 北京과 "地上軍의 規模를 같은 水準으로 減少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는 공고한 基盤"에 대하여 論議할 準備가 되어 있을 때 中共이 現代化에 대한 措置를 취하였다. 그는 또한 아무르江과 우수리강의 主要 港路가 양국간의 國境線을 構成하고, 따라서 실다만스키 섬을 통하여 中共과 國境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認知함으로서 中共에 대하여 무엇을 讓渡할 수 있을 것인가를 認定했던 것이다.[9]

中共에 대하여 主張된 고르바쵸프의 柔軟性은 韓國問題에 대한 그의 言及속에서도 槪略的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는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할 뿐만 아니라 全 韓國民의 民族的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실마리의 可能性"이 있다고 言及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言及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言及한 것은 "北韓에 의해 提案되었던 진지한 對話"를 主張하는 것이었다.[10] 그러나 蘇聯이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의 言及은 이전보다는 덜 강경한 것이었다. 그의 强調點은 두 韓國사이의 진지한 對話의 必要性에 놓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南北對話가 北韓의 提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부연은 同盟國에 대한 友好的인 제스처를 떠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主張은 韓半島에서의 美軍이라는 外國軍隊의 存在가 韓國問題의 安定에 沮害要因이 된

註⑨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5, 1987, p.17.
註⑩ Toward A Better World, p.355.

다고 하는 것으로서 새롭지는 않다고 해도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의 强調點은 美國勢力의 撤收를 實現하는 것보다는 非核地帶에 관한 것으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地域 뿐만 아니라 韓半島地域에 設置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쵸프는 동남아시아의 脈絡속에서 韓半島에서의 美軍撤收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國家들과 인도차이나 半島의 國家들 사이의 聯合을 통한 平和와 安定地帶의 構築可能性을 提起하며 그는 "外國 干涉의 存在" 때문에 韓半島에서 보다는 狀況이 더욱 더 유리하다고 言及하였다. 반복하자면, 인도지나에서의 蘇聯의 存在는 편의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확실히 그의 演說은 전반적으로 위협적인 要素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으며 그의 발언에는 다분히 선전적인 고려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程度 意圖的이라고 主張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의 外國軍隊의 駐屯問題가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協商過程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과 밀접하게 聯關된 고르바쵸프의 信念을 反映한다. 이러한 연관선상에서 고르바쵸프가 外國軍隊의 撤收問題에 대한 美國의 決定을 相互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宣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信賴體系의 構築에 대하여 고르바쵸프는, "만일 美國이 예를들면 필리핀에서 軍隊 駐屯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보답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

軍事力 減縮과 核武器의 擴散防止 問題는 고르바쵸프의 아시아平和攻勢에 있어서 기본적인 모습이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國際關係는 國家利益의 多樣性과 衝突이 보여지므로 '弱肉强食"이라고 하는 수천년의 傳

註⑪ Ibid., p.356.

統을 따라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大量破壞라는 非道德的인 무기에 대하여 人間은 너무도 無力하고 脆弱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核武器와 다른 大量殺喪武器와 核實驗을 廢止하고 宇宙開發을 위한 平和的인 사용에만 국한시킬 것"[12]을 力說하였다. 美國과의 協力의 必要性을 提示하면서 그는 美國이 "太平洋 沿岸에 상당히 많은 人口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重要하며" 또한 "이 地域에서의 經濟的·政治的 利益을 主導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르바쵸프는 아시아에서의 核武器의 擴散과 核基地의 構築을 規制할 것을 提案하고 있다. 또한 그는 軍事力과 軍備構築을 과감히 減縮하여 "최소한의 必要로 제한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13] 더우기, 그는 美國과 太平洋에서 해군의 活動, 특히 核 적재함정과 태평양의 特定地域에서의 대 잠수함 活動의 禁止에 대한 協定締決에 대하여 會談을 開催할 것을 提案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비롯된 고르바쵸프의 平和攻勢는 아시아와 太平洋 地域의 국민들이 反核感情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全아시아會議의 會談場으로 히로시마가 될 수도 있다는 提案등을 통해서 그의 意圖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그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核武器를 사용한 國家는 蘇聯이 아닌 美國이라는 것이다. 명백하게도, 고르바쵸프의 主導權을 부분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을 意圖하고 있다. 고르바쵸프가 軍備減縮, 武力使用의 禁止와 다른 信賴할만한 手段의 樹立을 蘇聯의 海軍都市의 하나인, 그리고 아마도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蘇聯의 軍事要衝地의 核心地域인 블라디보스톡에서 開催하자고 한 것은 또한 고르바쵸프의 거대한 제스츄어의 하나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時期의 새로

註⑫ Ibid., p.344.
註⑬ Ibid., p.355.

운 平和時代를 豫告하였던 것처럼 블라디보스톡도 또한 核武器의 위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아시아 平和의 새시대를 펼치게 하려는 것이다. "만국의 선박과 국민들이 우리 나라를 환영한 것이다."라는 푸쉬킨의 시를 引用하면서, 그는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해 蘇聯의 문호를 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제시하면서 그의 演說을 맺고 있는 것이다.[14] 만일 헬싱키가 유럽의 平和를 이끌었던 것과 같은 전례를 따르려 한다면, 모든 아시아 國家들은 2단계의 協商過程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첫번째로 그들은 그들이 갖고있는 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일련의 兩者 혹은 多者會談을 해야할 것이다. 비록 全아시아會議가 開催되기 이전에는 뚜렷한 兩者間 혹은 多者間의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못할지라도, 兩者會談 혹은 多者間會談의 實質的인 발전이 全아시아會議의 成功의 前提條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타당치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고르바쵸프가 아시아는 헬싱키의 經驗으로부터 教訓을 얻어야 한다고 主張한 것이 진지하다면, 全아시아會議의 成功與否는 영토적인 現狀維持를 認定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아시아國家들은 協商을 해야한다고 提案했던 바 平和의 合意는 國境問題에 대한 理解가 없이는 承認할 수 없는 것이다. 헬싱키에서는 유럽國家들과 美國이 제2차 世界大戰의 終結以後 確定된 國境線에 대한 合意가 있었던 것이나, 아시아 國家들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가 蘇聯과 關係된 몇몇 뚜렷한 領土紛爭이 存在하고 있다. 또한 領土的인 問題는 韓國과 어느 程度 적은 규모이지만 中共에서도 聯關되어 있는데, 두 지역은 정반대인 政治體制가 主導權 競爭을 하고 있으며, 全國土를 統制할 權利를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註⑭ Ibid.

全아시아會議가 영토적인 現狀維持를 고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의 提案에서 명확하게 言及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블라디보스톡이 아시아의 平和를 이끌 수 있는가의 여부를 規定짓는 要因이 될 것이다.

Ⅲ. 새로운 政治的 構想

全아시아會議와 그에 따른 雙務的이며 多角的인 外交的 主導權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提案의 核心에는 그가 몇번에 걸쳐서 主張해온 새로운 政治的인 構想이 內包되어 있다. 아시아에 관한 한, 새로운 政治的 構想은 몇가지 重要한 側面을 內包하고 있다. 먼저 그것은 결국 蘇聯의 指導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重要性을 認定하게 되었으며, 蘇聯이 自國을 아시아와 태평양 勢力으로 確立시킬 것을 決定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 國家 領土의 대부분이 우랄산맥의 동부-즉 시베리아의 極東地域-에 자리잡고 있다"고 想起시키며, 그는 "소비에트 聯邦은 역시 아시아·태평양 國家의 하나이다"라고 闡明하고 있다.[15] 또한 유사한 發言이 1986年 2月에 열렸던 제27차 全黨大會에서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그는 아시아와 태평양 地域의 急增하는 重要性을 强調하고 있다.[16] 뒤를 이어 蘇聯政府는 두달이 지난 4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協力을 增大시킬 것을 包含한 公式聲明을 發表하였다. 그 聲明에서 "蘇聯聯邦은 아시아와 태평양 地域의 일부분인 시베리아와 極東의 重要性을 충분히 認識하고 있다."[17]는 것을 다시 명확하게 言及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側面에서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政治的 構想을 가장 잘 反映하고 있는 것은 유럽담당으로 惡名높게 알려진 안드레이 그로미코를 外務長官에 解任시킨 것이라고 하겠다. 外務長官인

註⑮ Ibid., p.348.

註⑯ Ibid., p.166.

註⑰ 이러한 蘇聯政府의 聲明은 Important Decument on Gorbacher's Asian Policy, National Unification Board, March 1987.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로미코의 後任者로서 세바르드나제가 內閣에서 급속하게 새로운 아시아·태평양 事務局을 設置하였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못된다.

아마도 고르바쵸프는 蘇聯이 아시아의 經濟圈으로부터 완전히 밖에 놓여져 있으며 최근 십년동안에 進行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하여 가장 제한된 形態로서만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을 받은 것 같다. 그의 새로운 政治的 構想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시베리아와 蘇聯의 極東地域이 아시아·태평양 經濟協力의 領域에 統合되어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石油, 天然가스와 목재를 포함한 그들의 무한한 天然資源을 더욱 有用하게 利用할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한 것이다.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고르바쵸프가 태평양 經濟協力의 見解에 지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은 아마도 이와 關聯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協力의 가능한 基盤에 관하여 協議하는데 參與할 準備가 되어있다."[18] 라고 그는 宣言하고 있다. 사실상 4개월이 지난 1986年 11月에 모스크바는 카나다의 벤쿠우버에서 開催된 제5차 태평양經濟協力會議(PEEC)에 북경과 대만이 그 機構에 同參하게 되었던 것처럼 顧問을 파견하였다.

새로운 政治的 構想의 또 하나의 側面은 고르바쵸프가 아시아에 適用하기 이전의 蘇聯指導力의 전통적인 接近方法이 더 이상 적절하지도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立證해 보이는 것이었다. 고르바쵸프가 蘇聯共産黨의 書記長에 就任했을 때, 그는 아시아에서의 强力한 蘇聯軍事力을 물려받았다. 그의 前任者들, 특히 브레즈네프은 부분적으로는 1960年代末 이후의 中共의 威脅에 對處하고 또 한편 부분적으로는 美國의 軍事的 優位에 도전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地域에 强力한 軍事聯合體를 만들어 왔다.

註⑱ Toward A Better World, p.354.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 地域에서의 蘇聯의 軍事力의 地位는 매우 强力해졌다. 그것은 14,000여대의 탱크, 10,000여문의 대포, 88척의 전투함, 크루즈 미사일을 장치한 잠수함과 85대의 중요한 地上基地 뿐만 아니라 약 2,000여대의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保有한 53개 師團을 우랄地域의 東部에 집중 배치시킨 것이다. 매우 相異하게 이 地域의 地上軍事力은 지난 20年동안에 4배 增加하였고 전투기는 1965年의 200대 이하의 水準에서 지금 1,300대로 6배이상 增加하였으며 헬리콥터의 攻擊力은 약 60대에서 500대로 같은 기간에 급속도로 成長하였다. 해상에 떠있는 주요한 함정의 數는 1965年의 50척에서 현격하게 增大되었고 蘇聯의 가장 현대적인 해군부대의 일부는 최근 몇년사이에 태평양 함대로 合流하였는데, 여기에는 두척의 키에프급 항공모함과 키에프급 전투 순양함이 포함되어 있다.[19]

더구나 베트남의 캄란만은 남지나해에 固定配置된 25대에서 30척의 蘇聯艦隊를 보급하는 蘇聯地域以外의 가장 긴 해군전초기지로 남아있다. 베트남의 蘇聯軍事施設은 海軍基地, 空軍統合部隊, 그리고 通信網의 增大, 情報蒐集과 下部基地들에 補給을 해 주는 兵站基地들을 包含하고 있다. 美國防省의 評價에 의하면, 이전의 美國施設을 維持하기 위한 모스크바의 努力은 도크의 공간을 20% 증가시킨 일곱번째 부두의 완성과 캄란만의 活用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蘇聯은 極東地域에 약 90여대의 백 파이어 중형폭격기와 全體의 2/5에 해당하는 171대의 SS-20 IRBM을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軍事裝備들이 결코 蘇聯의 安保를 增大시키지는 못하였다. 즉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軍事力을 增進시키려는 蘇聯의 努力은 그와 똑

註⑲ Strategic Survey.

같은 美國의 努力에 부딪히게 되었고, 軍事力 增强에 있어서 注目할만한 成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蘇聯이 美國과 軍事的으로 동등한지 혹은 아직 劣勢에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蘇聯의 安保에 가장 위협적인 것은 <美-日-中共>간의 3角軍事同盟이다. 이미 美國·日本·南韓의 3角同盟에 直面하고 있는 蘇聯에게 北京이 만일 그 軍事同盟에 加擔한다면, 그것은 악몽이 될 것이다. 또한 蘇聯은 東南아시아에서 政治的 負擔이 점점 增加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즉 東南亞國家들은 베트남내에 蘇聯軍이 駐屯하는 사실과 캄푸챠를 統制하려는 베트남의 努力을 통하여 차츰 蘇聯의 意圖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27차 全黨大會에서의 고르바쵸프의 演說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미 고르바쵸프는 蘇聯의 安全을 保障하는 일이 단지 軍事的인 問題만은 아님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蘇聯은 安保를 軍事力에 依存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는 "安全을 保障하는 일은 점차 政治的인 問題임이 확실해지고 있고, 오직 그것은 政治的 方法에 의해서만 解決될 수 있다."고 말했다. 安保는 더 이상 보복과 軍事競爭의 두려움에 의해 이룩될 수는 없다고 主張한 그는 蘇聯의 軍事力을 政治的 軍縮協商에 연결시키고자 努力하였다. 적어도 말로는, 軍事力을 통한 동등한 安全에서 벗어나서 和解와 武器縮小를 통한 相互安全쪽으로 移行하고 있다. 말할 必要도 없이 相互安全은 政治的이고 外交的인 技術을 要求한다.

결국 이러한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政治思想은 蘇聯의 國內狀況, 특히 經濟的 側面에 關聯되어 있다. 黨書記長인 그는 蘇聯經濟가 더 이상 持續될 수 없는 참담한 狀況에 처했음을 알고 있다. 美國 政府의 評價에 의하면, 蘇聯經濟의 年 平均成長率은 1970 후반이후는 뚜렷이 減少하였다. 1971 ~ 81

사이의 經濟成長率은 2%이하였고, 1982年에는 1.5%로 떨어졌다. 1984~85年에는 많은 주요지수들이 계속 떨어졌는데, 이에는 純物資生産, 産業生産, 産業勞動生産등이 포함된다. 또한 農業生産이 年2年동안 부진하였고, 비록 1985年에 農業分野의 勞動生産性이 약간 向上되었지만, 그해 겨울은 蘇聯에서 50年동안 최악의 겨울이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가뭄이 일어나 사탕무우, 감자, 야채의 生産性이 下落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穀物生産이 目標에 훨씬 未達되어 5,500만톤이라는 기록적인 穀物量을 輸入해야 했다.

더구나 油價의 下落과, 蘇聯이 기름을 파는데 쓰는 통화인 달러화의 下落으로 인하여 蘇聯의 狀況은 점점 더 惡化되었다. 이리하여 1984年에 21億7,400萬弗의 利得을 보았던 蘇聯은 1985年에 西歐와의 貿易에서 6億1,100萬弗의 赤字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저조한 收穫量과 貿易赤字보다 더 根本的인 問題는 고도로 中央執權化된 計劃經濟에 蘇聯人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鄧小平의 중국경험이 立證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自治權이 地方行政單位로 移轉되고, 個人企業이 擴張되고, 물질적 유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許諾되는 방향의 구조적 改革을 통하여 可能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理解하고 그에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점이 고르바쵸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이다. 그가 提示한 解決策은 再建과 開放政策으로 要約될 수 있다. 병든 經濟의 再建을 위해서는 특히 言論統制를 緩和하고 아래로부터의 情報흐름을 保障해주기 위한 관료에 대한 多量의 肅淸과 더 開放된 政策이 必要했다. 고르바쵸프는 中央統制와 計劃經濟라는 基本原則을 固守하면서도 여러가지 手段을 새롭게 導入하려고 했다. 고르바쵸프는 中央統制와 計劃經濟라는 基本原則을 固守하면서도 여러가지 手段을 새롭게 導入하려고 했다. 예를들면 農業協同組合이 그들의 生産品을 市

場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制約을 어느 정도 自由化함으로써 農業生産을 促進하였다. 또한, 1986年 11月에는 서비스와 手工業分野에서 만연되던 副業의 일부를 合法化하는 個人의 勞動活動에 대한 法律이 公布되었다. 마침내, 1987年 6月 30日에 蘇聯은 個人企業에 대해 더 큰 自治權을 許諾하고 價格統制를 상당히 緩和하는 經濟改革에 대한 法律을 採擇하였다.

한편으로 고르바쵸프는 開放政策分野에서 나보코브와 파스테르나크등과 같은 금지된 작가들의 作品을 解禁시키고, 外國의 라디오 聽取規制를 解除하고 스탈린時代의 惡幣에 관한 영화의 上映과 브레즈네프 時代에 대한 批判을 許諾하였으며, 서구로 亡命한 蘇聯藝術家들을 蘇聯에서 公演하도록 招請하는 등 놀랄만한 措置를 취하였다.

Ⅳ. 評　　價

要約하면,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政治思想은 改革을 통해 蘇聯의 經濟成長을 加速化하고 國民의 生活水準을 增加시키려는 試圖이다. 2000年代를 겨냥한 그의 計劃이 實現된다면, 蘇聯의 GNP는 1985年의 두배가 되고, 勞動生産性은 1.5배까지 增加할 것이다. 이같은 그의 計劃이 成功하기 위해서는 '外部壓力으로부터의 休息'이 必須的이다. 武器競爭이 우주로 擴散됨에 따라 蘇聯은 美國과의 武器競爭에 드는 엄청난 費用이 어쩌면 武器競爭을 더 촉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쵸프는 "武器競爭이 蘇聯을 經濟的으로 고갈시켰으며, 國民生活水準을 向上시키려는 黨의 努力을 헛되게 만들었다"고 솔직히 고백하였다. 고르바쵸프는 군사적인 强大함만으로는 目標를 達成할 수 없으며, 어떤 限界를 넘으면 負의 生産性이 나타난다고 믿는다. 世界의 다른 地域보다 특히 아시아에 있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이 蘇聯의 새로운 指導者에 의해 理解되고 있는 것이다. 全 아시아會議에 대한 고르바쵸프의 提案에서 나타나듯이 모스크바는 지금까지 軍事力만으로는 成就할 수 없었던 것을 達成코자 한다. 아시아에서 蘇聯이 추구하는 그런 目的이 다른 國家들이 행하는 것 즉, 自國의 軍事的, 經濟的 安定을 强化하고 그 地域에서 더 큰 政治的 役割을 獲得하려는 것등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고르바쵸프와 같이 재능있는 指導者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目的을 위해서는 특출한 外交的 기교와 강력한 政治的 決定이 요구될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指導力으로부터의 강력한 支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징후를 보면, 그의 改革努力은 상당한 저항에 直面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1986年末에

黨中央委員會를 召集하려던 그의 試圖는 크레믈린내의 指導級 엘리트들간의 意見不一致때문에 연기되어져야만 했다. 그의 改革에 대한 抵抗의 또 다른 징후는 1987年 2月 10～11月 사이에 일어난 KGB團員의 示威를 强力히 진압하는데서도 나타났다. Gorbochev에 대한 暗殺試圖의 소문이 모스크바에 퍼져있는 것처럼 아마도 고르바쵸프는 改革을 追求하는 과정에서 그 自信의 政治的 經驗에 危險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전혀 根據없는 것일지는 몰라도 그가 블라디보스톡 평화제안을 실현하기 전에 길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國內問題는 차치하고, 蘇聯이 아시아에 提案하고자 하는 것이 상당히 制限되어 있기 때문에 고르바쵸프의 平和主導權의 成功이 그리 樂觀的이지는 않다. 日本과의 正常化에는 북쪽의 領土問題가 만족할만한 解決策이지만, 적어도 이를 위해서는 東京에서 납득할 수 있는 모스크바의 自發性이 要求된다. 세바르드나제는 1986年 1月에 日本을 訪問하는 동안 이 問題에 대해 樂觀的인 見解를 가질 수 있을만한 融通性을 보이지 못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中共과의 關係도 그리 樂觀的이지 않다. 蘇聯과 中共은 모두 그들의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여러조치를 취하였지만, 中共이 要求하는 3가지 장애물을 蘇聯이 쉽게 同意하지 않는 한 兩國關係의 빠른 進展을 기대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蘇聯은 아프가니스탄과 몽고에 駐屯中인 蘇聯軍隊가 곧 撤收할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1개연대와 몽고에서 1개사단이 철수하였을 뿐이다. 이같은 사실은 中共의 민감한 지역에서 蘇聯의 軍事駐屯을 減少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役割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中共에 가장 민감한 地域은 베트남과 캄푸챠인데, 이곳에서 蘇聯은 그와 유사한 措置를 취할 意圖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고르바쵸프의 아시아政策에는 본질보다는 流動

性이 더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이같은 고르바쵸프政策과 그것이 아시아·태평양에 미칠 潛在的 影響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해도, 그로부터 확실한 結論을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유럽과 亞細亞의 安保問題

안 병 준
(延世大 敎授)

Ⅰ. 世界的·地域的觀點에서의 유럽과 아시아

世界的·地域的觀點에서 美國과 蘇聯이 如他 强國들과 함께 安保問題上 그들의 利害關係를 追求하고 있다는 點에서 볼때 유럽과 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地域이다. 유럽과 아시아의 安保狀況이 각기 相異하기 때문에 이들 地域間에 安保問題上의 連繫性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아시아地域의 安保問題가 世界的·地域的觀點에서 볼 때 連繫性이 있다는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論文에서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의 安保問題에 어떤 連繫性이 存在한다면 이에 대해 論議하려 한다. 이런 論議에 있어 要請되는 것은 두 地域의 安保問題를 統合的으로 살펴보는 同時에 각각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유럽과 大西洋에 대조하여 아시아와 太平洋의 戰略的·經濟的 重要性에 대한 論議를 展開할 必要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간에 安保上의 連繫性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戰略的 樣相과 관련하여 아시아에서 惹起되고 있는 戰略的 樣相을 分析함으로 結論을 맺으려 한다.

이에 우선 밝혀두고자 하는 바는 본 論議가 巨視的 次元에서 유럽과 아시아 問題를 論議하려는 서설적 硏究라는 점이다.

世界的으로 核武器와 在來式武器의 統制가 점차 증대하고 있는 趨勢에 있다. 이런 面에 보면 安保問題는 分離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미 國際安保問題에 관한 理解를 높이려는 이와같은 맥락에서의 硏究가 몇몇 있었다. 많은 障碍要因이 存在하지만, 國際安保上 유럽과 아시아는 認識水準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連繫性이 높다는 것이 全般的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相對的으로 蘇聯과 美國이 아시아의 戰略的·經濟的 重要性을 認識하고 있고, 또한 아시아地域이 戰略的으로나 經濟的으로 가장 활동

적인 地域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本 論議는 단순화를 통해 아래에서 論議될 事項에 보다 더 巨視的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우선 安保問題에 관련하여 아시아와 유럽을 統合的으로 접근해야 할 分野와 각각 個別的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分野가 있다.

유럽은 蘇聯의 冒險主義를 防禦하고 또한 유럽國家들간의 相互 依存的 經濟秩序를 管理·維持해야 하는 반면, 아시아는 蘇聯의 威脅에 대한 일반의 認識이 부족하고 아울러 緩衝地域이 存在하고 있지 않다.

둘째 이러한 明白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戰略的·經濟的 中心이 아시아와 太平洋地域으로 옮겨가고 있음이 全般的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地域安保問題는 이제부터 큰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세째, 유럽에서 INF軍縮協定이 締結된 후, 아시아地域에 SS-20 미사일 配置, 戰略的 意味에서 蘇聯軍事力의 强化, 國際政治, 經濟上에 日本과 其他 아시아國家들의 影響力 擴大등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간의 連繫性이 높아갈 것이다.

네째, 아시아에서 中共, 蘇聯, 美國으로 構成된 戰略的 3角體制가 政治·經濟的側面에서 제4의 强國으로 日本이 개입하면서 4角體制의 均衡狀態로 變化될 것이다.

아시아가 世界의 中心地域으로 대두함으로써 西유럽國家들은 더욱 블럭을 强化하고 블럭으로 行動하게끔 되었다. 다시말해 아시아의 4列强 西유럽블럭을 합하여 世界勢力均衡을 5角體制로 變한 것이다.

Ⅱ. 유럽과 아시아의 安保問題에 있어서의 統合性과 個別性

유럽과 아시아가 처해 있는 狀況이 類似性과 相異性을 공히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地域의 安保問題에도 連繫性이 있는 部分과 각각 個別的인 部分이 있다. 蘇聯勢力의 世界的·地域的 防禦는 連繫性 있는 部分이나 그 防禦手段과 方法은 個別的인 部分이다.

그 理由는 아시아 各國이 蘇聯과 蘇聯의 衛星國에 대처할만한 힘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상반된 特徵은 유럽과 아시아國家들이 서로 相異한 歷史, 地政, 經濟, 政治構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蘇聯을 安保威脅의 主要 源泉으로 볼 때, 이에 대한 威脅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國에 依存한다든지, 關聯國家들간에 經濟協力을 한다든지, 水準은 다르지만 多元主義的 政治體制를 維持하려고 努力한다든지 하는 것을 統合的인 部分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分野는 유럽國家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 國家間에 서로 聯合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아시아國家들로 그나름대로의 方式으로 聯合을 이루려 하는 分野를 말한다.

巨視的 次元에서 볼 때 유럽과 아시아간 統合的인 分野보다 個別的 分野가 더 많을 것 같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東·西陣營이 나토와 바르샤바條約機構와 같이 뚜렷이 區別할 수 있는 同盟關係가 存在하지 않는다. 또한 두 블럭간에 廣範圍한 緩衝地도 存在하지 않는다. 여러 면에서 西유럽은 아시아보다 安定的이고 同質的이다. 아시아共産國家들은 東유럽보다 더 마찰이 심하다. 아직도 아시아에는 解決되지 않고 있는 國境問題가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國家 특히 東北아시아國家들은 威脅에 대한 認識이 稀薄하며, 아울러 蘇聯에 대처하는데 있어 나토가 戰略上으로나 外交路線面에

서 協力하는 것과 같이 다각적인 協力體制가 存在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防禦策은 在來式武器와 地定學的 均衡에 依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럽의 防禦策은 核武器에 依存하고 있다. 蘇聯의 威脅에 대한 認識程度에 있어, 日本은 다소 認識上의 차이를 두고 있으며 특히 中共은 1980年代初 美國과의 關係가 다소 惡化되기 시작하면서도 蘇聯에 대한 경계는 늦추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東南아시아國家들은 열강들의 競爭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많은 努力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平和·自由·中立地域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蘇聯보다 오히려 中共을 더 危險한 存在로 看做하고 있다. 이들 國家의 指導者들은 그들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軍의 撤收를 支援하겠다고 公式的인 路線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을 中共의 팽창주의에 대한 緩衝地로 認識하고 있다.

둘째, 아시아安保體制의 또다른 特徵은 緩衝地의 缺如이다. 長期間에 걸친 中·蘇間의 國境問題는 그 좋은 例이다. 日本과 美國의 경우 蘇聯과 대치하는데 있어서 緩衝地區가 없어, 다만 蘇聯의 팽창주의를 防禦하는데 海軍과 空軍力에 전적으로 依存하고 있다.

세째, 유럽共産國家들은 蘇聯의 主導下에 바르샤바條約機構에 의해 統合되어 있는 반면, 아시아地域 共産國家들은 서로 紛爭狀態에 있다. 中共-蘇聯 中共-베트남, 베트남-캄보디아紛爭은 그 좋은 例이다. 中·蘇紛爭이 점차 데탕트의 雰圍氣로 진전되고는 있다 할지라도, 兩國이 同盟을 맺을 정도까지 發展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兩國間의 關係가 改善되고 있다 할지라도 베트남과 北韓에 대한 兩國의 個別的 理解는 짧은 將來에 쉽게 좁혀질 것 같지는 않다.

네째 아시아地域에는 아직 第2次世界大戰에 의해 成立된 國境에 대한 紛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는 韓半島의 分斷狀況, 中共과 臺灣간의 紛

爭, 인도차이나반도의 軍事的 衝突, 흑카이도를 除外한 蘇聯管轄下의 4個섬 問題等이 屬한다. 强大國들이 介入될 많은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는 이런 問題로 인해 아시아地域 現狀況의 變化를 摸索하기 위해 軍事的行動의 어떠한 形態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유럽에서는 第2次大戰後 고수되고 있는 現 유럽地域의 國境問題를 正當化하는 헬싱키協定에 蘇聯이 조인한 것과는 달리 아시아地域에서는 고르바쵸프가 1986年 7月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 "아세안安保會議"를 提案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類似한 일치된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點이 아시아安保上에서 갖는 意味는 이 地域이 유럽方式과 달리 直接的인 東·西陣營의 世界的 대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點이다. 그 主要理由는 아시아 國家들이 갖는 文化, 宗教, 人種, 軍事力, 經濟, 政治上의 多樣性과 相異性때문이다.

아시아地域의 同盟關係는 美國-日本, 美國-韓國, 蘇聯-北韓, 中共-北韓, 蘇聯-베트남과 같이 兩面的이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韓半島와 베트남에서 例를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蘇聯의 도발이 있고 이로써 安保問題가 提起되고 나서야 軍事的措置가 强行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서는 蘇聯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 軍事的 基盤을 擴大하려는 시도에 따라 安保問題가 提起되기 전, 事前에 軍事的 措置가 要請되고 있다. 특히 蘇聯이 캄란灣에 軍事力을 점점 增加시키고 있다던가, 필리핀 國內政治의 不確實性으로 인해 수빅灣과 클라크基地에 駐屯하고 있는 美國의 軍事基地가 앞으로 불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點이다.

이제부터는 아시아에서 發生하는 諸般 움직임이 과거 어느때보다 더욱 유럽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아시아간의 安保

上의 連繫性에 관해 論議할 것이다.

아시아가 점차 戰略的·經濟的으로 重要해질수록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連繫性은 점점 擴大되어질 것이다.

Ⅲ. 經濟的·戰略的 中心地로서의 아시아

아시아는 世界經濟와 戰略上에 있어 새로운 中心地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이 地域의 經濟的 활동성에 대해서는 많은 關心을 쏟고 있으나 아시아地域의 戰略的 重要性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 않고 있다.

現在 유럽의 INF 協商이 우선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戰略的 關心은 아시아와 太平洋으로 옮겨질 것이다. 즉 美·蘇에 의해 아시아地域에 SS-20 미사일 配置問題가 提起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國家들이 保有하고 있는 在來式 武器統制에 관한 問題가 提起될 것이다. 아시아가 世界關心의 中心地로서 부상하는데 여러 發展的 要因이 加勢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地域國家인 日本, NIC國家, 아세안國家들의 經濟的 활동성이 그것이다. 즉 蘇聯의 軍事力强化, 中共의 現代化, 美國·蘇聯·中共의 戰略上의 3角體制에서 中共이 獨者路線을 걷고 있는 點, 그리고 問題는 있지만 美·日間의 經濟的 結束等이다. 이런 重要한 움직임에 맞추어 고르바쵸프가 새로운 外交政策을 構想하고 있는 것은 지금부터 아시아가 世界列强의 戰略的 中心地가 될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0年代初 以後 아시아國家들의 經濟成長은 유럽國家를 능가하고 있다. 1978年부터 美國의 對아시아貿易量은 對유럽貿易量을 능가하였다. 애당초 日本은 아시아地域 經濟成長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擔當하였고 아시아 NIC 國家 즉 韓國, 大灣, 홍콩, 싱가포르의 總生産量과 맞먹는 發展을 보였다. 現在 아세안國家들도 先進國隊列에 근접하고 있다. 中共은 經濟改革과 現代化計劃 아래 이를 아시아國家들과 相互協力網을 構築하고 있다. 아시아國家들의 經濟活性化는 統計的으로 證明될 수 있다. 예를들면 1965年부터 1984

年까지 아시아 NIC國家들은 年平均 8.9%의 成長을 보였고 말레이지아, 아일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아세안國家들은 6.5%, 美國, 日本, 캐나다, 호주와 같은 先進國은 4.4%의 成長率을 보였다. 中共은 1978年부터 年平均 10%이상의 成長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國家들은 開放的이며 貿易指向的이다. 예를들어 1984年 아시아地域 自體內의 이를 國家들간 貿易量은 65%에 달했고 全世界貿易量의 41.2%를 차지했다. 이와같은 높은 成長率과 함께 아시아國家들간의 활발한 交流가 增加되어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유럽을 포함해 世界 어느 地域보다도 經濟的活動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美國, 日本과 같은 技術先進國의 支援, NIC國家들의 發展, 아세안과 海洋國家들의 豊富한 資源등이 이 地域에 結合되어 經濟的 相互協力을 維持하는데 主要源泉을 提供하고 있다. 만약 領土上의 大國과 貿易大國의 본보기를 찾으려 한다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地域에 影響力을 擴大하기 위해 일차적인 手段으로 軍事力을 使用하는 軍事大國의 본보기는 蘇聯이라 할 수 있다. 고르바쵸프가 蘇聯이 태평양지역의 强國임을 단언하고서 태평양지역에 특히 관심을 集中시킨 후 蘇蘇은 蘇聯의 태평양경계지역에 軍事力을 集中시켜 왔다.

1960年代 中·蘇紛爭이 惹起된 後, 蘇聯은 中共과의 國境地帶에 軍隊를 强化·配置시켰다. 1973年 美國이 베트남에서 撤收한 후 蘇聯은 캄란灣과 다낭을 蘇聯海軍基地化하여 世界戰略上 인도양과 태평양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地帶를 確保하기 위하여 잠시의 공백기에 재빨리 蘇聯軍을 거기에 駐屯시켰다.

蘇聯軍의 配置는 각각 相異한 目的에 따라 段階的으로 進行되고 있다. 그 進行速度는 1978年末 시베리아에서 蘇聯極東地域 軍事訓練이 實施된 후

더욱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日本側 소식통에 따르면 蘇聯은 아시아地域에 장거리폭격기 85臺, SS－20 미사일 170個, 840隻의 太平洋艦隊, 39萬兵力에 해당하는 53개연대, 전투기 2,390臺를 配置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軍事力이 中共, 美國, 日本과 직접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 日本으로 하여금 蘇聯의 어떠한 軍事行動에 대한 防禦策을 마련케 하는데 더욱 자극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美國도 이 地域에 軍事力을 强化하고 있으며, 아울러 日本과 安保上의 相互協力을 더욱 强化하였고 中共과는 더욱 緊密한 協力關係를 維持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배경과는 달리, 우리는 蘇聯이 유럽에서와는 달리, 고르바쵸프가 레이캬비크에서 "Zero-sum選擇"의 合意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다.

우랄동쪽地域에 100個의 SS－20 미사일을 配置하는 問題는 고르바쵸프가 그것을 撤收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配置狀態에 있다. 이런 點과 더불어 "아세안安保會議"를 통한 平和的攻勢 그리고 태평양지역에서 相互協力을 摸索하고자 하는 蘇聯의 利害關係에 따라 非核地帶를 주장하고 있는 點등을 考慮해 볼 때, 고르바쵸프의 의도는 이 地域에서 蘇聯의 軍事力을 政治的 影響力에 利用, 變質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世界戰略上의 競爭의 中心地가 아시아－태평양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中共의 經濟發展과 獨者的 外交路線은 東北아시아의 戰略上의 競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美·中·蘇의 3角體制의 출현은 第2次世界大戰後 國際政治上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發展으로 보인다. 1980年代에 들어 美·蘇가 보다 더욱 더 獨者的이고 均衡을 維持하려함에 따라 마치 美國이 '70年代 中·蘇間의 關係에 勢力均衡의 重要役割을 한 것처럼, 中共도 이러한 役割을 遂行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中共은 美國으로부터는 資

本, 技術通商關係를 維持하면서, 한편으로 蘇聯과의 關係를 改善할 수 있다. 이와같은 3角體系의 外交가 계속된다면, 유럽과 其他 地域의 利害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世界的·地域的安保問題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日本이 世界最大의 債權國과 黑字國家로 대두됨에 따라 經濟·政治上으로 3角體制는 아시아地域의 4角均衡體制로 突入하고 있다. 여기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아직까지는 美國은 世界最强의 軍事大國이지만, 한편으로는 世界最大의 적자국이며 아울러 美國의 經濟能力이 後退하고 있다는 點이다. 日本은 1986年 1,804億달러의 外國債權과 89億7千7百萬달러의 貿易投資를 記錄하면서 經濟와 심지어 安保에 있어서 실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遂行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政治的 障碍要因에도 불구하고, 나카소네首相은 '83年 日本이 西方國家임을 천명한 후, 日本은 더욱 世界的·地域的 安保體制에 있어 中心的 역할을 遂行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日本은 1987年度 防衛費를 250億달러로 策定함으로써 支出面에서 世界 5～6位 國家가 되었다. 貿易摩擦의 改善에 대해 美國과 EEC國家들의 壓力에 직면하여 日本은 다른 방법을 講究하지 않고 그 대신에 軍事費支出을 增加시켰고, 또한 戰略的으로 重要한 國家에게 經濟 및 技術援助를 擴大시킴으로써 보다 安保上 重要한 역할을 遂行하고 있다.

日本의 經濟力이 全世界的으로 擴大되는 것과 같이 그 政治 및 安保上의 역할도 世界的으로 擴大될 것이다. 그런데 美國이 '70年代의 軍事的 헤게모니에 대한 目的없이 '50年代와 '60年代에 國際的 影響力과 援助를 遂行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 日本이 그러한 역할을 遂行하는데 적극적일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아 있다. 日本이 앞으로 어떻게 行動하든지간에 日本의 行動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經濟的·戰略的 重要性을 增加시킬 것이다.

Ⅳ. 地域間 連繫와 아시아 安保

安保問題가 점차 凡世界化되어감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간의 安保體系上 連繫性은 점차 增加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重要性이 增加됨에 따라 美國, 蘇聯 및 유럽 各國들이 보이는 反應들을 통해 그 連繫性을 찾아 볼 수 있다.

1987年 유럽 INF協定의 展望은 좋다. 이점으로 인하여 美·蘇는 그들의 關心을 아시아地域으로 옮길 것이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措置들도 아시아에 影響을 미칠 것이며,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措置들도 역시 유럽에 影響을 미칠 것이다. 傳統的으로 美·蘇는 유럽을 安保와 經濟上 가장 重要한 地域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最近에 들어 이러한 유럽에 대한 일차적 重要性은 서서히 變化되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地域에서 蘇聯이 經濟的 相互協力을 摸索하려 하고 있고, 또 蘇聯軍事力을 强化하고 있고, 軍費를 統制하고 있는등 그 本質的 變化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그러한 추세를 促進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軍費統制協定이 締結됨에 따라 아시아에서 그와 類似한 協定의 必要性이 加重되고 있다.

蘇聯軍事力의 世界的 擴大는 美國으로 하여금 "스윙戰略" 또는 "horizonal exaltation"을 採擇하게끔 하였다.

美國經濟의 惡化와 日本經濟의 成長으로 美·日은 서로 "役割分擔"을 摸索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蘇聯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과 아시아地域安保라는 安保上의 두 面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地域間의 連繫性을 蘇聯이 摸索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한다.

양면에서 敵國과 대치하고 있는 蘇聯으로서는 戰略的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 人口와 技術面에서 막강한 潛在力을 가지고 있는 東아시아의 中·日

美軍事協力體制는 심각한 安保上의 問題를 소지하고 있다. 두 地域間의 連繫性이 명백히 存在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시아地域에 이를 適用하는 것은 아시아의 複雜한 狀況을 考慮해 볼 때 그리 쉬운 問題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4열강의 均衡이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데 主要 核心이라는 點을 확실히 指摘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 蘇聯이 도전해옴에 따라 美國은 유럽·中共·日本과 보다 더 緊密히 相互協力을 强化할 必要가 있게 되었다.

만약 유럽 各國들이 행동노선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고 假定한다면 유럽—아시아地域에는 5角體制가 形成될지도 모른다. 유럽地域에 配置한 SS-20을 아시아에 配置하여 아시아地域의 美國·中共·日本의 軍事基地를 유기적이고도 정확히 目標로 삼는 것은 地域間의 連繫에 좋은 例가 된다. 고르바쵸프가 SS-20을 撤收시키겠다고 밝히면서 同時에 美國도 日本, 韓國海上에서 核미사일을 撤收시키라는 條件을 提示한 점은 매우 重要한 點이다. 이 點이 示唆하는 바는 유럽지역의 軍費統制와는 달리 아시아地域에서의 軍費統制問題가 불가능하지는 않다하더라도 그 解決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點이다. 이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고르바쵸프가 아시아地域에서의 SS-20問題를 政治問題로 삼고 있다는 것을 意識하는 것이다. 그는 中共과 日本이 SS-20에 대해 크게 경계하지 않기를 바라는 同時에 中共-美國, 日本-美國關係에 쇄기를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더우기 蘇聯은 SS-20으로 서울과 마닐라를 威脅함으로써 필리핀으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美國의 軍事基地와 核武器를 撤收시킬 것을 美國에 要求하게 만들려 한다. 例를들면, 필리핀이 美國에게 Subic과 클라크의 美軍基地를 撤收하게끔 要請한다면 蘇聯은 캄란灣과 다낭駐屯 蘇聯海軍基地를 閉止할 것을 考慮하겠다고 밝혔다.

蘇聯이 모든 SS-20을 撤收시킨다면 核武器로 武裝한 中共의 地上軍과 美國의 空軍의 對備에 대해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蘇聯은 SS-20을 撤收시킴으로써 日本과 韓國에 대한 中共과 美國의 防禦策이 弱化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그와같은 행동을 할 可能性은 거의 없다. 특히 現在 中共의 在來式 軍隊와 美國·日本의 海軍이 蘇聯에 比해 우세한 狀態이기 때문에 蘇聯이 어떤 태도의 變化를 일으켜 그들의 입장을 變化시킬만한 동기가 없다.

蘇聯은 政治的으로 유럽 INF問題에서 사용했던 方式과 같은 方法으로 아시아에 임할 것이다. 本 論議의 目的에 중요한 것은 蘇聯이 유럽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그와같은 方式을 아시아에도 適用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이다. 外形上으로 보면 나토와 美·日同盟, 韓·美同盟간에는 어떠한 連繫性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安保上 西유럽諸國과 아시아諸國이 美國에 依存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유럽과 아시아의 美國 友邦國들이 蘇聯의 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相互協力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질 수 있다.

美·蘇의 介入을 자극할 수 있는 아시아地域의 地域的 紛爭이 存在하고 있다고 볼 때 나토가 그들의 많은 利害關係를 두고 있는 아시아地域의 安保에서 除外될 수는 없다.

한편 美國軍事力이 큰 影響을 미치고 있지 않는 유럽과 中央아시아에서 危機가 造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戰爭이 勃發하는 경우 蘇聯에 대한 美國의 反應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카터行政府가 소위 "스윙戰略" 採擇을 拒否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西유럽에 危機狀態가 발생하면 美國은 아시아地域의 軍隊와 武器를 유럽地域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1982年 와인버거가 闡明한 "horirontal exaltation"戰略은 역시 世界戰爭의 양상에 맞춰서 計劃되었다. 世界戰이 勃發하는 경우 蘇聯艦隊가 태평양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Soya, Tsugaru, Tshushima海峽을 美國이 封鎖하는데 日本은 美國에 協助해야 한다.

1980年以後 日本은 美國·캐나다·호주와 함께 범태평양기동훈련에 參加하고 있으며 1986年에는 英國이 이에 參加하였다는 點에서 유럽-아시아安保體制의 連繫性의 例를 찾을 수 있다.

合同防衛計劃, 情報交換, 軍事訓練, 技術交流등과 같은 美·日間의 相互協力關係는 美國에 의해 간접적으로 나토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美國과 日本, 그리고 美·日과 其他 西유럽國家間의 經濟的 相互協力體制로 인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戰略上의 連繫性은 그 廣範圍한 基礎를 마련할 수 있다. 日本과 美國의 經濟는 소위 "共同經濟"로 대두되고 있을 정도로 結束·强化되고 있다. 兩國의 經濟는 世界GNP의 1/3을 生産하고 있으며, 世界資本과 貿易量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막강한 資本과 技術을 保有함으로써 태평양國家로서 美·日의 安保, 그리고 巨視經濟政策 및 貿易政策은 유럽의 安保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技術導入側面에서 兩地域의 連繫性은 토시바事件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COCOM原則을 위반한 事件으로써, 토시바會社가 蘇聯에게 超精密 금속절삭기계를 販賣함으로써 蘇聯潛水艦의 항재능력이 NATO와 美海軍에 의해 저지되지 않고 비밀리에 航海할 수 있게 된 點에 美國과 美國의 유럽同盟國들은 큰 경계를 하였다. 이런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그동안 日本과의 貿易摩擦로 인해 日本에 대해 좋지못한 의견을 가지고 있던 議員들을 자극함으로써 日本에 한층 일격을 가하게 되었다.

地域間 連繫體系上에서 볼 때 아시아의 安保는 世界的, 地域的, 지엽적 防禦策으로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安保에 있어 지엽적 防禦策이 중요한 바, 만약 이것이 崩壞되는 경우 美·蘇뿐만 아니라 其他 列强들이 軍事的 對立狀態로 쉽게 突入할 수 있다. 이런 點에서 모든 아시아列强들의 利害가 얽혀있는 韓半島에서의 지엽적 防禦策의 維持가 必要한 것이다.

韓國과 獨逸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1987年 9月 호네커가 西獨을 訪問함으로써 東·西獨이 유럽에서의 현상유지를 인정하였다는 點이다. 호네커가 西獨을 訪問한 것이 意味하는 것은 東·西獨과 美·蘇가 유럽에서 現狀態의 東·西獨關係를 認定하게 됐다는 點이다. 韓半島와 아시아地域의 現狀態에 대해서는 아직 國際的인 承認이 있지 않다. 반대로 蘇聯은 美國, 日本, 韓國 심지어 中共까지 參加하는 나토방식의 同盟을 考慮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한 努力의 一還으로 北韓에 대해 廣範圍한 軍事的·經濟的 支援을 擴大하고 있다. 더우기 蘇聯이 韓半島에 介入하면 할수록 점점 더 韓半島內의 지엽적 安保問題는 地域的·世界的 安保問題로 심각히 擴大될 수 있다. 만약 蘇聯이 유럽에서의 外交成果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點이 사실이라면, 앞에서 指摘했듯이 앞으로 蘇聯은 그러한 努力을 아시아-태평양地域에 옮길 것이다.

모든 可能性을 考慮해 볼 때, 아시아 安保問題는 美·蘇兩國協商의 議提가 될 것이며 아울러 기타 이에 利害關係를 가진 國家들과 다각적 協商에 있어서 그 論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를 豫測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한가지 分明한 것은 아시아地域의 安保問題는 유럽보다 더 複雜하고 解決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바라건데, 軍費統制協定과 美·蘇間의 실질적인 關係改善이 아시아와 韓半島의 安定에 寄與하기를 바란다. 이 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維持함으로써 國際的 緊張을 減少시킬 수 있고, 또한 유럽의 安保에도 寄與할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 經濟의 發展 成果

정 창 영
(延世大 敎授)

Ⅰ. 序　　文

本 論文의 主要目的은 지난 40년간의 南·北韓 經濟의 發展成果를 比較하고 評價하는 것이다.

2次大戰 이후, 韓半島는 南·北韓으로 分離되고 이후로 兩側은 産業化에로의 각기 다른 方向을 추구해 왔다. 南韓은 주로 資本主義的인 市場指向的 經濟體系를 통해 發展을 追求해 왔으며, 반면 北韓은 經濟發展을 이루기 위해 社會主義的인 中央計劃 經濟體系를 추구해 왔다.

지난 40여년 동안 南·北韓 兩側의 經濟는 전통적인 農業經濟로부터 근대적인 産業國家로 成功的으로 移轉해온 듯하며 또한 基本的인 人間慾求의 만족에도 成功을 거둔 듯하다. 그러나 兩側의 發展戰略은 현저히 달랐고 成長結果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社會主義 體制나 資本主義 體制의 優越性에 관한 問題는 基本的으로 價値判斷에 依存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兩側의 優越性을 確認하는 作業은 試圖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目標는 客觀的인 見地에서 發展成果를 단순히 評價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 論文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Ⅱ章에서는 南·北韓 經濟體系 및 經濟政策을 比較·評價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있어서의 北韓의 成長率 屯化는 北韓의 經濟體系 및 經濟政策의 基本的인 성격에서 주로 起因됨을 보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1945年 이래로 北韓에서 實施되어온 여러가지 經濟發展計劃의 중요한 內容을 설명할 것이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주로 國民所得, 農業, 에너지, 重化學産業, 輕工業産業, 運送 및 커뮤니케이션, 國際貿易 및 財政 등과 關聯하여 兩側의 發展成果를 說明·比較할 것이다. Ⅴ章은 結論部分이

된다.

이를 進行하기 전에, 우리가 北韓經濟를 硏究할 때 부딪히게 되는 몇가지 問題에 관해 言及하고자 한다.

첫번째 問題는 역시 統計的 資料의 부족이다. 北韓은 1965年 이후로 어떠한 公式的 統計도 發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年頭敎書, 豫算報告, 經濟發展計劃, 그리고 高位官吏의 간헐적인 단평등으로부터 약간의 情報를 얻을 수가 있다. 그 결과 資料는 매우 단편적으로 된다. 더우기 대부분의 資料는 複合數値로 表示되어 있어 일관된 시계열을 構成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經濟資料가 宣傳의 目的으로 公表되는 바, 그에 따라 統計資料의 信賴性은 매우 의심스럽게 된다. 동일한 槪念이 다른 意味를 가지며, 測定單位도 매우 다르다. 이상에 言及한 것과 같은 理由때문에 原資料를 매우 신중하게 評價하고 우리의 硏究目的에 適合하도록 再構成하는 것이 必要하다.

두번째로는 이데올로기적인 問題들이 存在한다. 南·北韓間의 이데올로기적 대결로 인해 北韓經濟에 대한 客觀的 硏究는 매우 어려워진다. 어떤 경우에는 兩側間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北韓經濟의 硏究에 있어 단지 資本主義的 近代經濟의 分析 道具만을 適用하여 결국 南韓經濟가 우월하다함을 보이고 있는 硏究들을 發見할 수 있다. 두개의 상이한 經濟體系에 대한 比較硏究에 있어서는 價値判斷, 제도적 틀, 經濟政策 및 發展戰略 등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충분히 留意해야 할 것이다.

Ⅱ. 南北韓 經濟體系 및 經濟政策의 主要 特徵

1. 經濟體系

Ⅲ章에서는 Ⅳ章에서 다루게 될 發展成果의 評價를 위한 基盤을 마련하기 위해 南·北韓 經濟體系 및 政策의 主要特徵을 說明·比較하고자 한다.

우리는 南·北韓 經濟體系에 있어서 세가지의 주된 差異點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南·北韓에 있어 生産手段의 所有類型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北韓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基盤確立을 위해 1946年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轉換"을 시작하였고, 1958年에 그것이 完結되었다고 發表하였다. 1946年 3月에 無償沒收 및 無償分配의 原則下에 土地改革이 실시되었다. 이어서 8月에는 工場, 鑛山, 鐵道, 커뮤니케이션 및 銀行등의 國有化가 進行되었다. 1947年 이후로 다른 産業들의 國有化는 계속 되었고, 農業部門에 있어서 社會主義的 轉換은 國家農場의 확립에 의해 점진적으로 遂行되었다.

1953年의 休戰以後 "社會主義 建設"이 왕성하게 追求되었고, 農業에 있어서는 協同集團農場이 集團農場化를 통해 確立되었다. 家庭所有工場 및 小製造會社의 社會化 또한 追求되었고, 그리하여 1958年에 社會主義的 轉換이 完成되었다고 公表되었다.

現在 北韓에 있어 生産手段의 所有形態는 주로 資源, 大規模 製造設備 및 企業, 항만시설, 은행, 運送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國家的" 所有 그리고 土地, 家畜, 農場設備, 漁船, 小規模 및 중간규모 크기의 製造設備와 企業들에 있어서는 "協同的" 혹은 "集團的" 所有의 形態로 구성되어 있다. 私的 所有는 극도로 制限되어 있으며, 단지 農夫가 갖는 小規模 土地

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北韓 經濟體制의 두번째 주요 특징은 經濟體系가 中央集中的 經濟計劃에 의해 管理된다는 것이다. 이미 1960년대 초반이래로 蘇聯 및 東歐國家들이 經濟改革의 導入을 試圖하였고, 中共 또한 이미 1970年代 後半以來 實用主義 路線을 따르고 있는데도, 北韓은 여전히 매우 엄격한 스탈린主義的 共産主義 經濟類型을 따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 資源配分에 있어서 가격기능의 역할은 거의 무기력하다.

엄격한 經濟管理形態는 다양한 종류의 非效率性을 초래하였는 바, 北韓當局은 利潤動機의 부재를 주로 이데올로기적 鬪爭에 의해 補充하고자 努力하였다. 勞動生産性의 增大를 利潤動機 및 시장기능에 依存하기보다는 대개 이데올로기적 鬪爭에 의지해 왔던 것이다.

經濟體系에 있어 세번째 차이점은 南韓經濟는 世界經濟에 대해 고도로 開放的인데 비해 北韓經濟는 閉鎖的 獨裁體系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986年 南韓의 國內總生産에 대한 製品 및 써비스의 輸出·入 比率은 76%였으며,[1] 또한 거대한 量의 外國資本을 導入하였는 바, 따라서 1987年 말의 未解決 外債는 3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展望된다. 南韓은 또한 先進技術 및 外國人 直接投資의 導入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다른 한편 國土統一院(National Unification Board)은 1985年의 北韓의 國民總生産을 150억 달러로서 그리고 輸出入量은 30억 달러로서 算定한 바, 그에 따라 國民總生産에 대한 輸出入의 比率은 약 20%가 된다.[2] 北韓은 또한 外國의 資本技術 및 直接投資의 導入에 있어 매우 積

註① 韓國銀行, "經濟統計年譜 1987', 1987.
註② 國土統一院, '南北韓經濟現況 比較', 1987.

極的이지도 않았다.

開放性의 程度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는 양쪽 經濟에 있어 두가지의 相反되는 문제를 提起한다. 南韓經濟의 경우는 世界經濟에 대한 高度의 依存性으로부터 基因되는 不安定性이 주된 問題가 되는 반면, 北韓의 경우는 지나친 自己依存의 결과 貿易 및 國際的 財政으로부터 여러가지의 다양한 利益을 얻지 못한다는데 問題가 있다. 예컨대, 北韓經濟는 先進經濟의 技術進步라는 惠澤을 얻을 수 없고, 貿易을 成長의 推進力으로 利用하지 못하며, 또한 投資水準의 增大에 의해 國內 貯蓄不足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克服하기 위해 北韓은 1970年代에 日本 및 다른 西歐國家들과의 貿易擴大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1976年 이래로 負債利子라는 問題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이러한 國家들로부터 資本材의 輸入을 급속히 늘린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1984年 北韓은 外國直接投資의 導入을 促進시키기 위해 合作會社法을 通過시켰다.

이제까지 北韓經濟의 세가지 주요 특징에 관해 說明하였다. 이러한 特徵들로 인해 北韓經濟의 成長率이 減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土地의 集團所有權은 利潤動機의 결여때문에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에서와 같이 農業의 停滯現象을 가져왔다. 지나친 中央執權的 意思決定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非效率性을 초래케 왔다.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이데올로기적 鬪爭에만 依存하는 것은 利潤動機가 없기 때문에 명확한 限界를 갖는다. 技術的 停滯 또한 거의 獨裁的 經濟下에서는 거의 必然的인 것이다. 要約하면 北韓經濟의 세가지 주요특징이 최근 經濟成長率에 있어서의 減退를 야기해 왔다고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2. 經濟政策

北韓은 分斷以來로 세가지의 分離된 經濟政策을 지속적으로 追求해 왔다. 經濟的 自給自足의 原則, 重工業 최우선시 그리고 國家防衛와 經濟建設의 同時的 追求가 그것들이다.

첫째로, 自立 및 經濟自給自足의 原則은 1940年代에 社會主義的 轉換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追求되어 왔다. 주요 목표는 國內生産에 의해 生産手段에 대한 要求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비록 自立政策이 世界經濟에 대한 依存性을 減小시키는 長點을 가져오긴 했어도 短點 또한 가져왔던 것이다. 技術進步가 매우 느리게 이루어지고, 貿易이 成長의 推進力으로 利用될 수 없었고, 財政投資에 있어서는 國內貯蓄에만 依存해야 했다. 國內市場의 規模가 매우 限定되어 있어서 成長潛在力은 完全히 發揮될 수 없었다.

두번째로, 投資資金의 分配에 있어 最優先順位가 지난 40년동안 일관되게 重工業 分野에 주어져 왔다. 北韓에 있어 産業部門은 製造業, 農業, 基礎的 建設, 運送, 커뮤니케이션 및 商業 등으로 分類된다. 이러한 産業가운데 製造業, 農業 및 基礎建設業은 原資材 生産의 基盤으로서 간주된다. 특히 製造業 分野는 生産力 向上에 있어 核心的 役割을 담당한다. 製造業은 다시 輕工業과 重工業으로 나뉘며, 重工業分野는 國家經濟發展에 있어 가장 중요한 役割을 담당한다.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投資資金의 平均配當比率은 지난 40년 동안 줄곧 8:2로 되어 왔다. 南韓에서는 1971～74年 期間中 全體製造業 投資가운데 重化學工業 分野가 차지하는 比率은 56.5%였으며, 重化學 工業에 대한 投資 붐 期間인 1975～79年에는 63.9%였

다.[3]

지속적으로 重工業分野를 최우선시한 것은 生産手段에 대한 要求를 國內的으로 實現하고자 하는 目的 즉, 自立 및 防衛能力의 構築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重工業에 대한 投資資金의 과도한 配當은 輕工業의 상대적 停滯現狀을 초래했고 또한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더디게 하였다. 가능한한 消費水準을 줄이고 貯蓄을 늘림으로써 投資資金의 많은 부분을 重工業 分野로 돌릴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生活水準은 불가피하게 낮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自立의 原則下에서 重工業部門은 先進經濟의 技術進步를 吸收할 수 없었고, 따라서 技術發展率은 낮은 水準에 머물러 있다.

南韓經濟에 있어서는 다른 種類의 問題들이 存在한다. 産業化는 加工 및 組立産業에 置重되어 왔고, 部品 및 資材製造産業은 未開發인 채 남아 있어왔다. 이러한 不均衡 成長類型으로 인해 다른 國家들, 특히 日本으로부터 輸入되는 部品, 資材 및 機械에 크게 依存하게 되었다. 北韓의 경우 지나친 自己依存이 문제가 되는 반면, 南韓의 경우는 部品, 資材 및 機械類에 있어서의 自給自足이 당면된 가장 중요한 政策 目標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세째로 國家 經濟 및 防威의 同時的 發展이 追求되어 왔다. 1967～71年 期間동안 北韓當局은 全體 國家豫豫 가운데 防衛費 支出負擔은 平均 30%였다고 發表하였다. 1972年 南北對話가 시작되었을 때 급작스럽게도 그 比率은 17%로 떨어졌으며 1980年에는 14.7%로 더욱 떨어졌다. 防

註③ 그러나 1979年 投資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의 比率은 80%였는데, 이는 예외적이라 하겠다.
韓國開發研究院, '産業政策의 基本課題와 支援施策의 改編方案", 1982.12.

衛費 支出을 政府豫算의 다른 項目속에 감추었을 可能性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만약 희소자원의 戰爭物資의 生産을 위해 分配한다면 平和物資가 보다 적게 생산되리라는 것은 必然的이며, 또한 이에 따라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은 매우 더디게 되는 것이다.

Ⅱ章에서 우리는 北韓의 經濟體系 및 政策의 主要 特徵들을 開括하고 그것을 南韓과 比較해 보았다. 이러한 調査에서 추출할 수 있는 結論은 이러한 基本的인 特徵들로 인해 최근의 經濟成長率이 減少되고 있다는 것이다. 體系 및 政策에 있어서의 根本的인 變化없이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 成長率이 促進되리라고 希望할 수 없을 것이다.

Ⅲ. 北韓의 經濟發展計劃

1945～46年 기간에 土地改革과 産業의 國有化가 遂行되었다. 日本이 남기고 간 産業施設의 復元에도 勞力이 주어졌다.

1947年 첫번째 1個年 發展計劃이 施行되었는 바 主要 目標는 製造業 生産高를 1946年 水準의 두 배로 增加시키는 것이었다. 1948年에는 두번째의 1個年 發展計劃이 準備되었는 바, 製造業 生産高를 1948年 水準에 비교해 41%까지 늘리고자 노력하였다. 1949～50年의 기간에는 또한 復元目的을 위해 2개년 計劃이 마련되었었다.

그리하여 1945～46년동안 社會主義 經濟體系의 基礎를 마련한 이후, 1947～50年 사이의 經濟發展計劃의 主要目標는 植民地 時代의 生産水準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韓國戰爭 後에는, 復舊를 위해 3個年計劃(1954～56)이 마련되었으며, 戰爭以前의 生産水準을 回復하고자 努力하였다. 計劃期間 동안에 農業, 製造業 및 商業의 社會主義的 轉換이 활발하게 追求되었다.

第1次 5個年 經濟發展計劃이 試行되었고, 中央計劃經濟의 基礎가 마련되었다. 1958年 社會主義的 轉換이 完結되었다고 公表되었다. 計劃의 主要 目標들은 産業化의 基盤을 마련하고 衣·食·住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勞動生産性의 增大를 위해서 利潤動機보다 이데올로기적 鬪爭이 選好되었으며, 이러한 原則은 現在까지 아무런 수정없이 追求되어 왔다. 주로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支援되는 經濟援助가 이전의 3개년 計劃期間에서와 마찬가지로 計劃의 主要 目標를 達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第1次 7個年 經濟發展計劃(1961～70)은 技術轉換, 文化革命 및 國民生活水準의 현저한 향상이라는 目標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計劃期間 동안

에 國家防衛 및 經濟發展의 同時的 追求라는 目標가 採擇되었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로부터의 經濟的 支援量의 縮小로 인해 計劃의 순탄한 執行이 방해를 받았다. 1970年에는 北韓經濟는 "强力한 社會主義 産業國家"가 되었다고 宣言하였다.

6個年 經濟發展計劃(1971～77)은 보다 상위의 技術革命 段階獲得, 社會主義 物質的·技術的 基盤 强化 그리고 重勞動으로부터의 勞動者 解放이라는 主要政策目標들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目標들을 達成하기 위해 北韓은 西歐國家들로부터의 生産設備 輸入을 크게 增加하였으나 곧바로 1976年 以後부터 負債利子 問題에 부딪히게 되었다.

第2次 7個年 經濟發展計劃은 自立, 近代化 및 技術發展의 達成을 目標로 삼았다. 에너지와 輸送이 보다 强調되었다. 1980年에는 電氣, 石炭, 鋼鐵, 化學肥料, 시멘트, 織物製品, 穀物, 기타 등등의 生産目標를 위해 "1980年代의 10代 目標數値"가 發表되었다.

現在 北韓經濟는 第3次 7個年 經濟開發計劃(1987～1993)하에 있다. 이 計劃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現存 工場 및 企業에 있어서의 技術改革, 대규모적인 現代式 工場과 企業의 設立, 그리고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이 主要 政策目標들이다. (2) 計劃期間 말기에 北韓은 先進國이 될 것이다. (3) 電氣, 輸送 및 石炭鑛山에 중점이 놓여진다. (4) 기본적인 衣·食·住 慾求의 해결을 통해 生活水準의 改善이 摸索된다. (5) 科學 및 技術發展을 위해 國民所得의 3～4%가 投資된다. (6) 現存 工場設備의 技術轉換을 통한 投資效率性 增大 (7) 期間中 3.2배의 貿易量 增大, 그리고 外國人 直接投資의 奬勵 (8)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통한 80%이상의 製造業 生産高 增大.

우리는 韓國의 分斷以來로 北韓이 遂行해온 여러가지 經濟發展計劃의 主

要內容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北韓經濟는 第1次 7個年 計劃期間인 1960年代 초반이후로(1961～1970) 成長率에 있어 減少趨勢를 보이기 시작했다. 北韓當局에 의해 發表된 製造業의 成長率을 살펴보면, 年平均 成長率이 1947～50年에는 49.9%, 1954～56年에는 41.7%, 1957～60年에는 36.6%, 1961～70年에는 12.8%, 1971～76年에는 16.3%, 1977～84年에는 12.2%, 그리고 1987～93年에는(目標數値) 10%로 나타나고 있다.

때때로 北韓의 經濟成長은 上限線에 도달해 있으며, 停滯狀態를 나타내리라고 主張되기도 한다. 이는 옳지 않은 듯 한데, 왜냐하면 다른 社會主義國家들과 비교해 볼 때 北韓은 지난 20年間 보다 훌륭한 發展成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4] 그러나 北韓은 成長에 있어 장기적인 衰退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傾向은 이미 Ⅱ章에서 指摘하였듯이 北韓經濟體系 및 政策들의 基本的 性格에서 주로 基因되는 것이다. 經濟成長率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體系 및 政策自體에 대한 基本的인 經濟改革을 단행하는 것이 必要한 것 같다.

두번째로, 상대적인 經濟力과 關聯해 볼 때, 南韓은 重化學工業을 育成하기 시작한 1970年代 초반이후 北韓을 능가하기 시작한 듯 하다. 여기서 우리는 北韓이 1993年에는 先進國이 될 것이라는 表明에 注目해야 할 것인 바, 왜냐하면 南韓 또한 1991年에 先進國의 서열에 合流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 現在의 經濟計劃에 있어 北韓當局은 費用減少 및 技術轉換에 특별

註④ 연하청,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p.24.

한 重要性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國民所得의 3%내지 4%가 科學 및 技術을 投資하고, 勞動生産性의 增大를 통해 80%의 生産高를 增大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北韓經濟가, 전통적인 投入의 增加가 成長의 주된 源泉이었던 擴散的 經濟成長으로부터 技術進步와 生産性 增大가 GNP 成長의 主要동인이 되는 보다 높은 集約的 成長의 段階로 옮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째로, 北韓當局은 衣·食·住 問題의 解決을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에 指續的으로 높은 優先順位를 부여해 왔다. 비록 北韓經濟가 기본적인 人間慾求를 만족시키는데는 成功하였다 해도 이 점과 관련하여 生活의 質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이는 農業生産性의 느린 向上, 重工業 分野에 比較할 때 輕工業 分野의 상대적 경시, 높은 防衛費 支出 등에서 緣由된다.

다섯째, 北韓經濟는 社會間接資本 部門에 있어, 특히 輸送 및 電氣部門에 있어 애로에 부딪힌 듯 하다. 이는 모든 發展計劃에서 이 分野가 反復的으로 강조된다는 데서 분명히 나타난다. 重工業 및 國防에 대한 不足資本의 지나친 配分이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을 초래해 왔던 것이다.

여섯째, 現在의 計劃은 다른 國家들과의 貿易增大 및 外國直接投資의 導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目標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自己依存의 原則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렇지 않으면 問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Ⅳ. 發 展 成 果

1. 國民所得

우리는 Ⅱ章에서 北韓의 經濟體系 및 政策의 主要特徵을, 그리고 Ⅲ章에서는 分斷以後 北韓에서 實施되어 온 여러 經濟發展計劃의 주요 윤곽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考察을 토대로 國民所得, 農業, 에너지, 重化學工業, 輕工業, 輸送 및 커뮤니케이션, 國際貿易 및 財政 등과 주로 관련하여 兩側의 發展成果를 比較·評價하고자 한다.

北韓經濟의 GNP를 算出하고 南韓의 數値와 比較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問題들이 存在하는데 즉, 經濟體系에 있어서의 根本的 差異 및 적절한 外國換率의 適用이 그것이다. 현재 여러 機關들에 의한 5,6개의 상이한 評價들이 存在하고 있다. 國土統一院은 1985年度 北韓의 國民總生産 및 1人當 國民總生産을 각각 151억 달러 및 765달러로 測定하였다. 같은 해 韓國에서의 數値는 837억 달러와 2,047달러로서 이는 각각 北韓의 5.5배 및 2.7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이다. 1984年에 미국 CIA의 測定은 230억달러 및 1,174달러였고, 1979年度에 대한 IBRD의 數値는 각각 197억 달러 및 1,130달러였다. 나아가 北韓當局은 때때로 國民總生産의 수치를 발표하는데 즉, 1974年度에는 1,000달러, 1979年度는 1,920달러, 1982年度는 2,200달러로 發表하였다. 이는 宣傳目的으로 發表된 것이므로 그 숫자상의 信賴性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要約하면, 아직까지 北韓의 國民總生産 및 1人當 國民總生産에 대한 확실한 測定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分野에 대한 硏究가 계속될 것이

要求된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國民總生産의 比較에는 다양한 根本的 問題들이 存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순히 南·北韓의 國民總生産 數値만을 比較하는 것은 現實을 잘 나타내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하겠다. 生活指標의 物質的 質을 比較하거나 기본적 人間慾求의 充足程度를 살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상대적인 經濟力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요 工産品, 穀物 및 에너지 등의 物質的 生産量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效果的인 것 같다.

2. 農　業

1964年에 "社會主義 農業問題에 관한 命題"가 農村地域의 技術的, 文化的 및 社會的 革新 達成이라는 主要目標를 가지고 發表되었다. 命題의 實行過程에서 電力化, 機械化, 灌漑施設 및 化學肥料의 利用이 試圖되었으며, 1974年度에 農村地域에서의 灌漑事業 및 電力化가 完結되었다고 公表되었다.

農業의 集團化는 生産에 있어 더딘 成長을 가져왔다. 이러한 惡效果를 防止하기 위해 "協同農場 體系"가 1966年 고안되었다. 1976年과 1981年度에는 耕作可能地의 크기를 擴張하기 위해 대규모 計劃이 實行되었다.

1985年度의 主要 農業指標들을 비교해 보기로 하자 : 214만 정보 (2,144만 정보)

(1) 北韓 (南韓)의 耕作可能地 : 214만정보 (2,144만정보), (2) 農業人口 : 749만명 (852만명), (3) 全體人口중 農業人口의 比率 : 38% (20.8%), (4) 1단보당 쌀 生産 : 314㎏ (455㎏), (5) 1정보당 利用되는 肥料 : 378㎏ (376㎏), (6) 1農家當 耕作可能地 : 1.43정보 (1.11정보), (7) 全體耕作可能地에 있어 논의 比率 : 30% (61.8%) 밭의 比率 : 70% (38.2%), (8) 穀物生産 : 503萬M/T (699萬M/T).

1960年代 後半까지만 해도 北韓은 農業發展에 있어 南韓을 능가하였었다. 그러나 1970年代 이래 南韓의 農業部門은 여러가지의 새로운 多收穫品種들을 導入해 왔고, 이제 土地生産性은 南韓이 훨씬 높은 상태이다.

다른 社會主義 國家에서와 같이, 農業의 集團化는 농부의 利潤動機를 억누름으로써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成長을 더디게 하는 結果를 초래해 왔다. 비록 北韓이 食糧에 대한 需要充足의 重要性을 계속적으로 强調해 왔기는 하나 食糧消費의 質은 南韓에 비해 매우 낮음이 틀림없다.

3. 에 너 지

1985年 石油의 見地에서 總 에너지 供給은 2,680만톤(南韓은 5,670만톤)이었다. 이러한 全體가운데 石炭의 比率은 72.3%(南韓은 38.3%)였고 水力은 12.2%(南韓은 1.6%), 그리고 석유의 比率은 9%(南韓은 49.1%)였다.[5]

이는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石炭이 가장 큰 比率을 차지하고 있고, 外國의 에너지 供給에 대한 依存이 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의 石炭埋藏量은 南韓의 15억톤에 비해 120억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85年度의 石炭生産은 南韓의 2,360만톤에 비해 3,750만톤이었다. 한편 1985年 石油輸入은 南韓의 1억9천8백만 배럴에 비해 천5백만 배럴이었다.

北韓에서는 보통 "石炭은 금이요, 또는 石油는 핏방울과 같다"라고 말해진다. 이 말은 北韓이 계속적으로 에너지 供給의 不足에 직면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에너지 不足은 지속되어온 經濟成長에 있어 중요한 장

註5) 南韓에 있어, 1985年에 原子力의 比率은 7.4%였다.

애를 이루고 있다.

電氣에 있어 1945年에는 全體電氣生産의 92%가 풍부한 水力資源에 基因하여 北으로부터 發生하였다. 1985年度의 電氣生産能力은 南韓이 1,614만㎾인데 비해 北韓은 596萬㎾에 달하였다. 같은 해 실제 電氣生産은 南韓이 580억㎾h였던데 비해 北韓은 253억㎾h였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 電氣生産의 약 반 정도는 水力發電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상의 論議로 보아 北韓은 外部의 에너지供給에 대한 依存이 南韓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北韓은 지속적으로 石炭 및 電氣의 供給不足에 직면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에너지 및 電氣量의 供給은 經濟發電의 主要指標들중의 하나인 바, 이와 관련해서는 南韓이 北韓에 거의 두 배 정도로 앞서 있다.

4. 重化學 工業

鐵 및 鋼鐵 製造産業의 發展은 분명하게 한 國家의 經濟力을 보여준다. 北韓은 이미 1957年에 새로운 형의 용광로를 導入하였는 바, 포철이 同種의 施設을 導入한 것은 1973年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1976年 원강의 生産能力은 南韓이 350만톤이었던데 비해 北韓은 380만톤에 이르렀었다. 그러나 포철이 生産能力을 크게 增大함에 따라, 1985年度에는 원강의 生産能力이 北韓이 430만톤이었던데 비해 南韓은 1,450만톤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포철이 새로운 技術類型을 導入해 왔던 반면 北韓은 時代에 떨어진 生産技術을 계속 利用해 왔다. 그러나 鐵鑛石의 供給에 있어 北韓은 거의 支給할 수 있는데 반해 南韓은 原材料의 國外出處에 매우 依存하고 있어 그에 따라 依存度는 75%에 달하고

있다.

둘째, 기계류 製造産業은 北韓當局이 여러 製造業 部門中에서 가장 最高의 우선순위를 賦與해 온 부문이다. 이미 1970年에 北韓은 數値制御를 수반하는 선반 및 고속 정밀 선반을 생산할 수 있었다. 南韓은 1977年에서야 數値制御를 수반하는 선반을 生産할 수 있었다. 1985年에는 機械道具의 生産量이 北韓은 3만 단위였고 南韓은 5만 단위였다.

北韓은 發展된 機械道具 産業을 保有하였으나 電子工學産業은 先進國의 技術進保에 따라가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南韓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自動車 및 船舶과 같은 輸送設備들 또한 南韓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다. 1985年 南韓의 自動車 生産은 49만대에 달했으나 北韓은 단지 2만대에 불과했다. 선박에 있어서 1985年에 南韓은 北韓의 21만톤에 비해 300만톤을 生産하였다. 격차는 耐久消費材에 있어 더욱 심하다. TV의 경우 南韓은 1,100만대를 생산해온 반면 北韓은 24만대를 生産해 왔다. 南韓은 240만대의 냉장고를 생산해온 반면 北韓은 3만대를 生産하였다.

세째로, 化學製造産業가운데 肥料製造 生産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南韓을 능가해 온 듯 하다. 1985年에는 北韓의 77만톤에 비해 南韓의 肥料生産量은 127만톤에 달하였다.

대체로 北韓의 化學製造業의 主要特徵은 그것이 石炭에 근저하고 있다는 것이며, 겨우 1970年代 초반이래로부터 石油化學製造業으로의 전이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發展의 初期段階에 남아 있다. 그 결과 生産品은 질이 낮고 다양하지 못하다. 예컨대 플라스틱 수지의 生産能力은 1985年에 있어 南韓이 115만톤인데 비해 北韓은 9만톤에 이르고 있다. 生産品의 多樣性 및 質에 있어서의 격차는 더욱 크다.

시멘트의 生産能力은 1985年에 있어 南韓이 2,600만톤인데 비해 北韓

은 900 만톤이다.

5. 輕 工 業

현재 進行中인 第3次 7個年 經濟開發計劃에서 北韓當局은 衣·食·住 問題의 해결을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經濟開發計劃은 農業, 漁業, 輕工業, 住宅建設의 重要性을 强調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우선순위는 重工業에 賦與되고 있으며 따라서 輕工業은 가장 지체된 분야가 되어왔다.

南·北韓의 生産隔差는 輕工業製品에서 매우 현저하다. 섬유의 生産高는 南韓이 138 만톤인데 비하여 北韓은 13 만톤에 달하고 있다. 織物生産高는 南韓의 52 억미터에 비해 北韓은 6 억미터에 이른다. 北韓의 신발생산고는 南韓의 4 억켤레에 비해 6,000 만켤레에 이르고 있다. 製品의 質과 多樣性에 있어서는 比較隔差가 훨씬 더 크다.

北韓經濟가 기본적인 人間慾求의 충족에는 成功한 듯 보이나 國民의 生活水準은 輕工業 分野의 느린 成長速度 때문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問題는 北韓 經濟體系 및 政策의 기본적 속성에 기인하므로 解決이 쉽지 않다.

6. 交通 및 通信

北韓에서는 鐵道가 가장 중요한 交通手段이다. 현재 화물의 90 %와 승객의 60 %가 철도에 의해 輸送된다.

고속도로, 해상 및 항공교통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1985 年에 北韓의 철도 總延長은 南韓의 6,300 ㎞에 비해 4,500 ㎞였고, 全體의 68%

가 전철화 되었다. 北韓當局은 交通問題의 해결이 갖는 重要性을 거듭 强調하여 왔으며 1986年에는 이 問題가 최우선적 과제였다.

고속도로의 總延長은 1985年에 南韓의 1,420 ㎞에 비해 240 ㎞에 달하였다. 全體自動車數는 南韓의 111 만대에 비해 22 만대였다. 海外貿易이 小規模였기 때문에 船積 및 荷役用量이 1985年에 南韓의 118억 8,000 만톤에 비해 32억 9,000 만톤이었고 원양선박의 총 톤수는 南韓의 750 만톤에 비해 49만 톤이었다. 민간항공기수는 南韓의 108 대에 비해 16 대였다.

通信에서는 전화의 全體加入者數가 1985年에 南韓의 652萬 회선에 비해 北韓은 30만 회선이었다.

北韓은 交通 및 通信등 社會間接資本의 축적도에 있어 南韓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7. 貿易 및 財政

北韓에서는 貿易이 國家에 의해 統制되고 있다. 北韓의 貿易은 長期貿易協定에 기초하여 크게 양면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北韓은 經濟自給原則에 따라 全體貿易量이 南韓에 비해 미약하다. 1985年에 輸出은 13억 5,000 만달러, 輸入은 17억 2,000 만달러로서 全體貿易量은 30억 7,000만달러에 달하였다. 같은 해에 南韓은 輸出과 輸入이 각각 302억 8,000만달러와 311억 4,000 만달러로서 全體貿易量이 北韓의 20배 이상인 614억 달러였다.

1960年代 後半까지 主要貿易對象國은 여타 社會主義國家로서 이들 國家와의 貿易量이 全體貿易量의 9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年代 초반

이래 西歐諸國으로부터의 資本輸入이 急增하였고, 1974年에는 이들 國家로부터의 全體資本輸入量이 53.6%에 이르렀다. 資本輸入의 急增으로 北韓은 1970年代 後半에 外債利子 問題에 직면하게 되었다. 1931年末에 未決裁된 外債는 30억달러였다.

全體輸出가운데 工産品 輸出은 61.3%, 農産物 輸出은 13.2%, 鑛物은 25.5%이다. 이는 北韓의 1次産業 製品에 대한 輸出依存度가 南韓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輸入部門에서도 北韓의 完製品의 輸入量이 南韓보다 크다. 따라서 貿易商品의 類型에서도 北韓은 南韓보다 低發展의 段階에 있다.

1980～85年의 期間中 北韓과 蘇聯, 中共 및 日本間의 貿易量은 각각 35.3%, 19.2%, 18.4%로서 合計 72.9%에 이르렀다. 이는 北韓의 貿易相對國이 아직 多樣化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第3次 7個年 經濟開發計劃 期間中 北韓은 貿易量을 3.2배로 增加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北韓이 貿易量의 增加를 크게 중시하고 있음을 意味하나 그 目標는 종전의 經濟自立 原則과 직접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北韓은 1972年 이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加入國으로부터 大規模의 外資를 導入하기 시작하여 1974年에는 4억달러에 이르렀다. 1984年에 北韓은 外債償還의 負擔이 없는 外國의 直接投資를 增加시키기 위해 合作投資法을 制定하였다.

北韓은 經濟體系의 基本的 性格때문에 貿易量과 外資의 總量이 낮은 水準에 머무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때문에 北韓은 世界經濟에 대한 依存度가 낮으며 世界貿易에 參與하고 海外資本과 技術을 導入함으로 오는 利益을 포기하였다. 최근 北韓은 貿易과 資本 및 技術上의 國際交流를 增加시키기 활발하게 努力하여 왔다. 그러나 北韓의 經濟自立 基本原則을 고려

한다면 그 展望은 확실치가 않다. 經濟自立原則과 世界經濟에 대한 開發性의 提高 사이에서 妥協點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Ⅴ. 結　　論

과거 40여년동안의 南·北韓의 發展成果를 比較·評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바, 그 主要原因은 北韓에 관한 統計資料의 不足과 南·北韓의 이데올로기적 對立에 있다.

南·北韓은 전혀 相異한 經路를 통해 經濟發展을 追求해 왔으나 經濟發展을 추구해 왔으나 兩 經濟體制는 비교적 短期間에 전통적인 農耕社會로부터 近代的 産業社會로 移行하는데 成功하고 또한 基本的인 人間慾求의 충족에도 成功한 것 같다.

北韓은 南韓에 비해 보다 早期에 産業化를 시작하였고 北韓의 經濟成長率은 經濟發展의 초기, 다시 말하면 최소한 1960年代 초반까지는 南韓보다 높게 나타났다. 1960年代 초반 이후 北韓經濟는 成長率에서 장기적인 下向趨勢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經濟成長의 下落은 이미 Ⅱ章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經濟體系 및 政策의 몇가지 基本的 特性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平均的으로 보아 南·北韓의 兩 經濟體系는 다른 社會主義 및 資本主義 國家에 비해 급속한 成長을 보여왔다.

現在 南韓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主要發展問題는 다음과 같다.

(1) 市場, 資本, 技術의 높은 海外 依存度

(2) 農業과 工業間의 相互依存性 缺如

(3) 낮은 穀物 自給率

(4) 部品, 原資材, 機械등의 낮은 自給率

(5) 國民總生産에 있어 써비스部門의 높은 比率

(6) 所得配分의 惡化 趨勢

한편 北韓經濟는 다음과 같은 發展問題를 안고 있다.

(1) 스탈린主義 方式의 中央管理經濟體系에서 비롯되는 非效率性

(2) 生産手段의 거의 完全한 社會的 所有에서 비롯되는 生産의 유인동기 缺如

(3) 開放經濟에서 오는 利益의 犧牲, 즉 經濟自給原則에서 비롯되는 技術水準의 停滯, 市場의 制限, 投資資金의 制約.

(4) 防衛力 增强에 편중하여 重化學工業에 높은 優先順位를 둠으로써 國民의 生活水準向上을 犧牲시키고 不均衡 成長類型을 惹起시킨다는 것.

(5) 심각한 人權侵害

南·北韓의 發展經驗을 비교해 보면 몇가지 問題點들을 "相互補完的"임을 發見하게 된다. 즉 중도적인 立場을 취한다면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特定問題들을 解決할 수가 있다.[6]

南韓이 重化學工業에 대규모의 投資를 시작하고 經濟力에서 北韓을 壓倒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중반경이다.

장차 北韓이 經濟體系 및 政策의 基本的 特性가운데 몇가지를 修正하지 못한다면 南·北韓間의 比較隔差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벌어지리라 豫想된다.[7]

註⑥ 루마니아와 그리이스의 比較를 위해서는 아래의 論文을 參考할 것.
Nicholas Burakow, "Romania and Greece-Socialism vs Capitalism", World Development, vol.9, No.9/10, 1981, pp.907-28.

註⑦ 정창영, "北韓經濟 研究結果의 總括 및 北韓經濟 전모 파악", 國土統一院, 未出版, 1987.5.

東·西獨關係와 南·北韓關係

한 승 주
(高麗大 敎授)

Ⅰ. 韓國에 대한 獨逸의 敎訓

獨逸과 韓國間에는 많은 類似點이 있다. 兩國의 分斷은 聯合軍이 各各 兩國의 서로 다른 部分을 占領한 후, 統一計劃에 同意를 할 수 없었거나, 하지 않은 데에서 始作하고 있다. 兩 分斷國은 戰後 同盟體制의 一部가 되었으며, 東西對決에 휘말리게 되었다. 分斷된지 40餘年이 지난 지금에도 獨逸이나 韓國民들은 統一에 대한 念願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두 境遇에 있어, 다른 强大國들은 이들 國家가 統一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獨逸과 인접한 유럽國家들은 統一된 强한 獨逸의 出現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主要 强大國들은 統一된 韓國이 다른 나라의 主導的 影響圈內로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여,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障礙에도 불구하고, 東·西 兩獨逸은 雙務的 關係의 改善에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 왔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點은 서로 相對便의 存在를 認定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民族, 두개의 國家"의 原則은 1972年의 獨逸間의 화해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UN에의 同時加入과 美國과 蘇聯을 포함한 다른 國家들로부터의 교차승인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상당한 量의 財貨와 用役 그리고 國民들이 國境을 넘나들고 있다. 최근에는 東獨의 指導者인 호네커가 5日間의 日程으로 西獨을 訪問하였으며, 두 獨逸間의 冷戰의 終決이라는 希望에 부풀게 하였다. 西獨政府는 東獨에 次官을 提供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두 獨逸間의 여행에 대한 制限을 緩和시키는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두 韓國間의 關係는 非妥協的인 對決속에 동결되어 있다. 단지 韓國戰 終結로 調印된 불안한 休戰條約과 各各 强大國과 維持하고 있는 同盟關係로 韓半島의 불안정한 平和를 維持하고 있을 뿐이다. 두

韓國은 서로에 對抗하여 莫大한 軍事力을 길러 왔으며, 南北韓間의 關係는 不信과 敵對感으로 가득 차 있다. 兩側의 간헐적인 對話에도 불구하고 意味있는 對話는 거의 없었다. 그 대신 서울과 平壤의 兩政府는 상호비방과 國際的인 支持를 獲得하는데 그들의 정력을 消費하고 있다.

심각한 經濟的 難關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보다 繁榮하고 있는 南韓에 援助나 借款을 要求한 적이 없다. 또한 北韓이 그러한 要求를 하였다 하더라도, 서울側은 南韓을 威脅하게 될 武器를 위한 財源으로 使用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兩側의 드문 援助提議도 相對側을 곤궁에 빠뜨리고 자신에 유리한 輿論을 造成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다. 特히 南北韓은 相對側의 對內政治的 어려움을 이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두 韓國間의 關係가 分斷에 대한 外部의 壓力이 東西獨의 경우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後者의 關係보다 나쁜 狀態에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獨逸의 領土的 分斷은 第2次世界大戰에 대한 그들의 責任의 結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는 戰後 美國과 蘇聯 사이에 서둘러 合意된 분할점령의 犧牲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韓國에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國家들이 두 韓國의 화해에 반대할 理由는 獨逸의 경우에서보다 적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中·蘇의 불화는 北韓으로 하여금 크레믈린으로부터의 壓力으로 인해 東獨이 할 수 없었던, 南韓에 대한 政策에 있어서의 自律性을 행사할 수도 있게 하였다. 이는 北韓이 南韓과의 화해를 願하였다면, 東獨보다는 훨씬 自由롭게 그러한 政策을 遂行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平壤은 南韓에 대해 이와는 상반되는 政策을 遂行하였으며, 蘇聯과 中共등 平壤의 同盟國들과의 關係를 改善하려는 南韓의 시도를 방해해 왔다.

따라서 分斷의 시작에 대해서는 外國에 그 責任이 있지만, 그후 兩國이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것은 南北韓 兩國에 그 責任이 있다고 하겠다. 사실 南北韓은 分斷의 現實을 直面하는 데에서부터 失敗하고 있다. 1950年 韓國戰의 勃發과 뒤이은 兩政府의 軍備增强은 南韓의 "解放"과 단숨에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北韓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北韓은 "獨逸方式"으로 民族分斷을 영속화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統一을 진전시키기보다는 相對便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음으로써 南北韓間의 갈등을 擴大시키고 兩極化시킬 따름이다.

蘇聯은 무의식적으로 "두개의 獨逸"槪念을 認定하고 나아가 조장함으로써 兩獨逸間의 화해를 고무시켰다. 모든 關聯者들이 分斷의 現實을 認定함으로써 獨逸民族의 分斷을 훨씬 다루기 쉽게 만들었다. 獨逸間의 緊張緩和를 통해 그들의 相對的으로 중요한 同盟國으로부터의 軍事的·經濟的 依存을 減少시킴으로써 두 獨逸은 그들의 運身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面에서 獨逸은 韓國에 重要한 敎訓을 주고 있으며, 다시 말하면 成功的인 分斷의 管理가 統一努力에 先行되고 또 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Ⅱ. 獨逸과 韓國間의 차이점

두 獨逸間의 분단에 대한 성공적 管理經驗이 韓國에 有用한 "教訓"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各各의 분단이 되어진 環境의 차이에서 오는 몇가지의 對照되는 要因으로 인해 獨逸의 經驗이 韓國에 適用되어지는데에는 限界가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對照되는 要因으로는 獨逸과 韓國의 外部環境 東·西獨間과 南北韓間의 各各에서 보여지는 社會와 政體의 性格 그리고 분단이 理解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方式을 指摘할 수 있다.

분단된 獨逸과 韓國間의 外的 側面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蘇聯이 遂行한 역할의 차이이다. 獨逸의 경우에 있어서 蘇聯은 자신의 최선의 利益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따라 東獨의 西獨과의 關係를 統制할 수 있을 정도로 東獨의 政策과 그 指向方向에 대해 影響力을 行使하였다. 따라서 蘇聯은 西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하였을 뿐만아니라 東獨政府가 西歐國家들과 이와 相應하는 關係를 樹立하는 것을 "許諾"하였다. 나아가 아직도 獨逸의 일부를 占領하고 있는 占領國으로서 蘇聯은 분단된 獨逸을 西歐와 격리시키는 등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影響을 줄 수도 있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韓國의 분단에 있어서는 中共과 그 影響力을 공유하고 있으며, 종종 競爭的 關係를 維持해 왔다. 한때 蘇聯이 南韓에 대한 開放과 關係를 樹立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었을 때에도 中蘇紛爭에서 얻어진 北韓에 對한 制限된 影響力으로 인해 최소한 公式的으로는 北韓의 南韓과의 非和解政策을 支持하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다른 對外關係에 있어서 對照되는 點은 東西獨이 바르샤바條約機構와 나토라는 多者的 安保條約에 參加하고 있는데 對하여, 南北韓은 각각 단지 美國, 그리고 蘇聯·中共과의 雙務的 同盟關係만을 維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南韓의 安保的 威脅은 西獨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다. 西獨이 直面하고 있는 安保威脅은 東獨의 軍事的 能力이나 政策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蘇聯에 의한 西유럽 전체에 대한 威脅의 일부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南韓의 경우에 있어서 1차적인 安保威脅은 南韓에 대한 侵略을 감행한 바 있으며, 거대한 軍事力과 가공할 侵略能力을 보유하고, 호전적인 발언과 함께 전복행위도 관계해온 北韓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南韓으로 하여금 그의 安保를 美國과의 雙務條約이 依存토록 하며, 北韓에 대한 不信과 不安感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다시 北韓으로 하여금 南韓의 政治的·軍事的 위치가 攻擊받기 쉽다는 判斷을 하게 하므로써 南韓과의 對話에 應하는 것을 꺼리게 하고 있다.

南北韓은 또한 各各의 獨逸 相對와는 상당히 다른 社會的·政治的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은 1948年 共産政府 樹立以來로 金日成이라는 1人의 獨裁的統治를 받아 왔다. 北韓에서의 統制의 嚴格함·이데올로기적 硬直性 그리고 個人崇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지금은 後繼者로 된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에 대한 왕조적인 승계가 시도되어지고 있다. 이는 經濟的 目的上의 必要에도 불구하고 南韓과의 和解와 交流는 勿論, 外部世界에 대한 北韓社會의 開放을 어렵게 하고 있다. 同時에 南韓의 政治는 비록 北韓보다는 多元化되어 있고 開放되어 있기는 하지만, 1948年 獨立政府가 樹立된 以來로 40餘年동안 완전히 民主的이지는 않았다. 南韓의 民主主義 不足은 政府의 統一政策의 유연성을 減少시켰을 뿐아니라 論爭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對內的인 폭넓은 支持를 獲得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北韓이 단지 南韓에서의 政治的, 그리고 政策上의 不和를 政治的으로 利用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韓國은 南·北韓關係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였다.

끝으로 兩獨逸과 韓國은 그들의 民族分斷에 대한 태도와 各各의 주어진

狀況에서 遂行되어져야만 하는 것에 對한 認識上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韓國民은 아마도 獨逸國民보다는 더 분단을 非正常的이며 따라서 참을 수 없는 狀況으로 여기고 있다. 많은 韓國民에게 있어 서로의 訪問과 通信의 斷切, 經濟的 그리고 如他 交流의 斷切 等의 分斷의 부정적 效果에 대한 단순한 改善은 短期的 혹은 中期的 側面에서 보더라도 現在의 狀況에 대한 解決策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단지 完全한 統一만이 만족할만한 結果로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獨逸國民도 그들의 國家가 分斷되어졌다는 사실에 對해서는 애통해 하지만 自由로운 交流와 訪問이 許容되는 한 韓國民보다는 더 分斷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獨逸의 "統一"이 단지 19세기에 이루어졌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東西獨의 分斷이 없었더라도 "獨逸民族"은 오스트리아를 포함하여 최소한 둘 以上의 政治體制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韓國의 경우에서는 좀 더 平和的이고, 좀 더 生産的인 分斷의 管理에 必要한 中期的 段階에 대한 强調가 없이 統一이라는 "窮極的인 解決"이 强調되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다.

Ⅲ. 南北韓 關係

韓國戰을 終決하는 休戰協定을 調印한 1953年 以後 南北韓은 그들의 敵對的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對話를 두차례 가졌다. 첫번째 對話는 1972-1973年의 期間동안에 南北赤十字社가 兩 地域 離散家族結合의 可能性을 檢討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兩側은 화해와 統一의 可能性을 論議하기 위한 南北調節委員會를 設置하는데 合意하였으나, 1973年 北韓의 南韓政府와의 接觸拒否로 對話가 중단되었다. 두번째 南北對話는 1984年과 1985年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期間동안 南北對話는 赤十字社의 離散家族結合問題, 經濟協力, 兩側 議員間의 政治的 論議 그리고 스포츠 交流等 4分野에 걸쳐 시작하였다.

1984年 11月 두 韓國間의 經濟的 交流를 위한 方法을 檢討하기 위해 分斷以來 처음으로 평양과 서울의 高位代表者가 회동하였다. 北韓側이 같은 해 9月 水災에 대한 援助를 提案하고 南韓側이 이를 받아들이자 南北對話에 대한 希望이 高潮되었다. 이것으로 離散家族結合과 88올림픽의 北韓參加 可能性에 關한 問題는 물론 經濟問題에 대한 對話가 始作되었다. 1985年의 赤十字會談은 서울과 평양을 相互訪問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兩側에서 50名의 離散家族이 "相對側"을 訪問하였고, 그중 많은 數가 그들의 친척들과 상봉하였다.

1984年 평양의 유화제스추어는 1983年 17名의 사상자를 낸 랭군爆彈事件으로 인한 國際的인 이미지 실추를 만회하려는 시도로 보여졌다. 北韓은 서울側과의 對話를 西歐國家들, 특히 美國·日本과의 關係를 맺는데 必要한 段階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또한 평양은 美國이 韓國問題에 대한 어떠한 多者間의 協商도 韓國間의 직접대화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만

큼, 그들이 提案한 "3者會談"의 實現에 必要한 手段으로 보았다.

北韓은 또한 南韓과의 다양한 경로의 對話를 가져야 할 經濟的인 動機를 가지고 있다. 南韓에 절망적으로 뒤쳐져 있는 것을 認識하고 있는 北韓은 政治的·外交的 孤立을 탈피하고, 以前의 債務 不履行으로 심각하게 損傷당한 海外借款의 유입과 貿易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南韓과의 對話를 始作함으로써 平壤은 美國·日本 그리고 西歐유럽 등의 非共産圈 國家들과의 經濟的 交流의 始作 혹은 增進의 可能性이 열리기를 希望하고 있다.

南北對話를 再開하는데 있어 北韓에 또다른 重要한 點은 政治的 動機에서 찾을 수 있다. 北韓은 한편으로 南韓國民에게 그들이 假裝된 統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平和的 의도를 과시하고 다른 편으로는 北韓國民에게 統一問題를 통해 金 日成에 의해 繼承者로 지목되고 있는 金 正日의 政治的인 이미지를 造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平壤과 南韓의 關係改善에는 많은 障碍가 가로 놓여 있다. 北韓은 계속해서 그들의 엄격한 이데올로기와 金 日成이 그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個人崇拜를 維持해 왔다. 平壤側은 또한 40餘年間의 孤立끝에 制限된 정도로라도 外部世界에 北韓社會를 開放하는데 따른 불리한 政治的 結果를 잘 알고 있다. 게다가 平壤은 南韓에 對한 軍事的 壓力을 減少시키려 하지 않았다. 軍事力은 維持되었을 뿐아니라, 特히 지난 수년동안 北韓의 軍備增强努力의 支援에 더 큰 의지를 표명한 蘇聯과의 關係가 진전됨에 따라 이미 가공할만한 軍事力을 계속 增强시켰다. 北韓은 또한 그들의 軍事力을 南韓에 더욱 威脅이 되도록 再配置하고 있는 듯하다. 北韓은 軍事的 優位를 유지하고 싶어 하였다.

平壤에게 있어서 南韓의 "當國者"와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接觸은 줄

곧 拒否되었던 "두개의 韓國"方式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다. 동시에 北韓國民들에게 强要되었던 犧牲에 대한 正當化의 일차적인 源泉의 하나인 "南朝鮮 解放"이라는 오랜동안 維持되어 온 最優先 目標를 抛棄할 수는 없었다. 더우기 平壤側은 그들의 同盟國이 參加하여 南韓의 위신을 向上시켜 줄지도 모를 1988年 올림픽 경기를 서울이 쉽게, 成功的으로 開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러한 環境속에서 南韓의 國內政治狀況이 점차 豫測하기 어렵게됨에 따라 平壤은 1985年末에 올림픽 경기에 대한 對話를 제외한 다른 모든 領域에서의 南韓과의 對話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平壤으로서는 서울이 1986年 아시안 경기와 1988年 올림픽 開催地로 選定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분명히 맘에 들지 않겠지만, 體育會談은 두 韓國間의 唯一한 接觸經路로 남아 있다. 平壤은 1988年 올림픽을 共同主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면 서울은 단지 몇 種目이 北韓에서 開催되는 것을 許容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體育協力은 平壤側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北韓에게 있어 모든 問題에 있어서의 意思疏通 通路의 閉鎖는 사실상 올림픽을 치루는데 있어서 어떠한 主張도 못하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非協調的인 태도는 中共이나 蘇聯으로 하여금 장래에 있을지 모를 北韓의 보이코트를 간단히 무시하고 서울올림픽에 參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다.

南韓政府는 비록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도 여러가지 理由에서 南韓과 對話하고자 하는 北韓의 의도를 歡迎하고 있다. 우선 많은 重要한 國際的 行事를 主管하는 國家로서 南韓은 北韓의 協調는 어렵다 할지라도 묵인이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同時에 南北韓關係의 진전은 主要 强大國에

의한 두개의 韓國에 대한 窮極的이고 全般的인 認識과 교차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蘇聯과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必要한 段階로 보고 있다. 南韓은 또한 北韓과의 對話와 交流가 外部에 對한 北韓의 開放에 기여하고, 나아가 南韓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硬直性을 弱化시키는데 窮極的으로 寄與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의 南北對話는 北韓이 南韓과 美國間의 軍事訓練인 팀스프리트訓練에 반대하면서 1985年 끝나게 되었다. 이 訓練은 해마다 進行되어 온 年例的인 訓練이었다는 것을 考慮할 때 北韓은 南北對話가 더이상 그들의 理解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北韓의 政治狀況은 물론 南韓의 政治狀況이 整理될때까지는 對話를 중단하기로 判斷한 것이 분명하다. 北韓에서는 金 日成의 承繼問題가 進行中에 있으며, 指導層 內部에서의 一連의 政策論爭의 可能性은 아무도 排除할 수 없는 狀況이다.

Ⅳ. 蘇聯과 韓半島

지난 數年동안 특히 고르바쵸프의 登場以後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積極的인 개입의 가장 明確한 結果中의 하나는 平壤과 모스크바간의 關係의 變化라고 할 수 있다. 蘇聯은 北韓의 영공과 港口의 접근의 대가로 단거리 미사일과 미그-23을 北韓에 提供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理由에서 충분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첫째로 蘇聯은 과거에는 北韓이 美國과의 紛爭을 일으키는 것을 우려하여 北韓이 願하는 航空機의 提供을 拒否해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로 北韓이 그들의 영공비행권을 蘇聯에 提供함으로써 베이징에 安保的 威脅을 가할 수 있는 지역에의 용이한 접근로를 提供하였다는데 있다. 平壤과 모스크바와의 密接한 關係는 1986年 10月 金日成이 모스크바를 訪問함으로써 더욱 高潮되었다. 訪問의 目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르바쵸프의 對內改革과 새로운 아시아政策의 성격과 정도를 確認해 보고자 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金日成은 또한 장래에 있을지 모를 中·蘇間의 화해가 北韓에 끼칠 影響에 대한 보다 나은 理解를 기대하였는지도 모른다. 또한 同月에 兩國은 대규모 聯合海上合同訓練을 실시하였다.

蘇聯이 金日成의 訪問을 許諾하는데 상당한 時間을 지체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說明도 되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點은 北韓이 獨立性을 代價로 치루면서까지 蘇聯의 원조를 받으려는 그들의 의지였다고 할 것이다. 베이징에 대한 失望에서 혹은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平壤은 1980年代 중반에서 말까지 최소한 당분간 均衡된 태도와 모스크바로 기우는 政策을 採擇하였다. 蘇聯에 좀더 기대기로 한 平壤의 결정은 고르바쵸프의 新아시아政策의 展開와 일치하고 있다. 蘇聯의 시각에서 본다면 北韓과의 새

로운 紐帶關係를 이룩함으로써 提起된 北韓의 軍備增强에 대한 支援과 軍事的인 主導權을 갖는 것이 화해적이고 우호적인 國家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浮刻시키려는 努力과는 명백히 일치하지 않고 있다. 北韓과 蘇聯의 새로운 安保的 紐帶는 中共으로 하여금 경계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美國과 日本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그 결과 中共은 北韓을 그들에게 접근시키기 위한 努力을 행하게 되었으며, 日本을 包含한 다른 아시아國家들에서는 蘇聯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비록 北韓이 軍備의 支援을 받기 위해 蘇聯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北韓과 蘇聯의 關係發展에는 여러 限界가 있다. 平壤은 蘇聯의 "覇權主義"에 의심을 품어왔으며, 現在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동시에 北韓은 아직도 非友好的인 태도나 友好的 태도에 대해 處罰能力과 補償能力을 가진 中共을 자극하거나 둘의 關係가 소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平壤은 中共으로 하여금 南韓과의 關係改善의 摸索이라는 選擇을 하도록 하면서까지 전적으로 蘇聯에 종속되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蘇聯의 입장에서 보면, 蘇聯은 그의 모든 계란을 北韓의 바구니에 넣는 것을 바랄 理由가 없다. 蘇聯은 北韓이 아주 豫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北韓이 美國과의 마찰을 야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北韓에 대한 蘇聯의 支援과 北韓의 蘇聯에 대한 依存의 심화는 蘇聯에게 北韓의 主要 競爭者인 南韓에 대한 政策上의 自由를 確保해 주고 있다. 平壤이 모스크바의 支援을 必要로 하고 있는 限, 모스크바는 平壤의 반작용을 심하게 염려하지 않고도 南韓에 대해 좀더 유연한 政策을 遂行할 수 있다. 蘇聯이 1988年 서울에서 開催되는 夏季 올림픽에 參加할 意思를 밝힌 것은 이러한 側面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平

壤으로서는 中共과 蘇聯사이에 "등거리政策"으로 復歸하고 싶은 듯 하며, 1987年 3月 末에 金 日成이 中共을 訪問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南韓은 蘇聯과 北韓關係가 진전되는 樣相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동시에 南韓은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보여진 "모든 아시아國家들과의 雙務的 關係에 좀더 역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蘇聯의 의지가 南韓과 蘇聯과의 관계의 定立 擴大, 그리고 發展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南韓에게 있어 蘇聯은 極東에서의 軍事力이나 北韓과의 密接한 관계 그리고 經濟的, 政治的 기회를 考慮할 때, 蘇聯은 關係를 改善해야만 하는 國家라 할 수 있다. 그러는 限에 있어서 南韓은 蘇聯과의 화해에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스포츠나 文化的 交流, 그리고 間接貿易등의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만이 행해지고 있다.

Ⅴ. 南北韓關係의 5가지 시나리오

南北韓關係의 미래과정을 豫測하는 것은 不可能하며, 肯定的인 結果와 여러다른 可能性의 정도를 考慮하여 몇가지의 시나리오를 假定할 수 있다. 미래의 南北韓關係를 다음의 시나리오(혹은 이들 시나리오의 어떤 결합)가 생각되어질 수 있다. 즉 (1) 全面戰이나 制限戰이 수반되는 軍事的 衝突, (2) 南北韓關係의 완만하고 制限된 發展이 이루어지는 相對的으로 長期의 現狀維持, (3) 統一을 위한 南北韓 協商과 重要한 진전의 돌파구 마련, (4) 南韓의 弱化와 社會的·政治的 不安에서 야기되는 北韓의 政治, 外交的 공세의 에스컬레이션 (5) 南韓의 經濟的 優位를 기반으로 하는 교차접촉과 교차승인에 따른 "獨逸方式"을 意味하는 南北韓 交流의 擴大를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가장 重要한 要素는 北韓의 軍事的 能力과 의도 그리고 評價의 問題이다. 北韓이 南韓에 대해 大規模 침공을 감행함으로써 軍事的 衝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條件이 만족되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條件들중의 하나는 南北韓間의 均衡이 명백하게 北韓側에 유지해야만 하며, 이는 엄밀히 말하면 南北韓間의 軍事的 不均衡을 말한다. 1950年代 이내 北韓은 GNP의 15%~20%라는 莫大한 比率을 軍備增强에 投與해 왔으며, 그 결과 최소한 量的인 側面에서는 陸·海·空軍에서 南韓에 대한 優位를 지켜왔다. 이러한 不均衡은 최소한 1990年代 初期까지는 持續되어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南韓은 우월한 經濟力과 技術能力으로 軍事的인 차이를 급속하게 메우고 있다. 南韓으로서는 장래 몇年內에 南韓이 軍事的 優位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北韓으로 하여금 그들의 軍事的 優位를 잃기 전에 軍事的 침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다.

北韓은 그들의 軍事的 優位에도 불구하고 南韓에 대한 침공을 加하지 못한데에는 韓·美間의 相互防衛條約과 韓國內의 美軍駐屯으로 상징되는 美國의 安保公約이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北韓이 韓美同盟關係를 弱化시키고 韓半島에서의 美軍의 撤收를 바라왔었던 것은 이러한 側面에서 理解되어질 수 있다. 北韓에 의한 軍事的 行動의 可能性과 聯關한 또다른 要因은 北韓과 蘇聯과의 關係이다. 1953年 韓國戰爭의 終決로부터 그들의 軍事力의 增强과 政治·外交的 地位에 대한 최대한의 支援을 얻기 위하여 두 同盟國중의 하나에 치우쳐 왔다. 北韓이 蘇聯을 그들에 대한 軍事的 援助의 主된 源泉으로 간주해 왔다는 사실을 考慮할 때, 최근의 北韓과 蘇聯의 밀착성향은 北韓이 軍事的 現代化와 이에 相應하는 南韓에 대한 軍事的 의도에 두고 있는 重要性을 보여주는 指標가 되고 있다. 現在의 軍事的 그리고 國際的 狀況下에서는 北韓이 軍事的 行動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南韓의 對內政治의 狀況의 不安定이나 美國의 軍事的 地位의 급격한 弱化에서 비롯될지도 모를 機會를 利用하기 위해 軍事的으로 準備를 하려 하고 있다.

두번째 시나리오로는 아마도 5年이나 10年 정도의 장래에는 現在의 基本立場을 지속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北韓이나 南韓中 어느 한편이 兩者間의 會談이 더이상 그들의 利害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結論내린다면 兩者間의 協商은 1973年과 1985年의 경우처럼 중단될 可能性이 있다. 北韓에게 있어 南韓과의 交流擴大에서 오는 外部世界와의 斷絶의 持續에서 오는 對內政治上의 바람직하지 못한 반동현상에 대한 우려는 두 韓國間의 關係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또다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대부분의 外部世界와의 斷絶의 지속이 經濟·外交關係面에서 南韓과의 격차를 크게 하기 때문에 北韓政權에 중대한 딜레마가 되고 있

다. 南韓에게 있어서는 南北對話가 平和的이고 生産的으로 분단을 다뤄나가는 方案을 摸索하는데 必要한 것이므로 持續해 나갈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狀況은 南韓에 유리한 듯 하며, 平壤이 對話에 늦게 參加하면 할수록 장래의 協商에서의 平壤의 위치는 점점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 시나리오는 相互承認과 平和的 統一方案의 實現에 이르는 南北韓關係의 極的인 돌파구가 마련되는 것으로, 相互 敵對感과 兩側의 利害를 考慮할 때, 實現可能性이 매우 적다. 統一에 대한 同意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實現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障碍가 있을 것이다. 사실, 人類의 歷史를 볼 때, 분열된 政治體가 비록 同一한 民族으로 構成되었다 할지라도 自發的으로 그리고 協商을 통해 더 큰 政治的 統合體로 등장하게 되는 例는 거의 없다.

다른 單位間의 自發的인 政治的 統合體의 出現이 어려운 理由는 政治權力의 本質에 있다. 대부분의 社會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集團이 政府를 統制하고 있든지, 權力을 弱化시키거나 빼앗아갈 어떤 政治的 變化나 措置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北韓의 指導層의 경우 權力을 다른 어떤 個人이나 集團에 移讓하거나 公有하는 것은 상상할수조차 없으며, 特히 南韓의 어떤 個人이나 集團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러하다. 平和的 政治的 統一은 둘 또는 그 이상의 政治體가 相異한 이데올로기 政治體制를 公有하고 있을 때에도 어려운 問題이다. 그런데 두개의 韓國은 매우 對照的인 이데올로기 定立과 價値, 社會類型, 行動類型, 그리고 經濟的 體制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南北韓은 한 世代 前에 서로를 황폐화시킨 戰爭에 대한 記憶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兩側의 指導者가 서로 만나 條約에 서명하는 것으로 平和的 統一이 達成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樂觀的인 態度가 될 것이다.

統一에 대한 合意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前提條件들이 충족되어져야만 할 것 같다. 비록 이 條件들이 必要條件이나 充分條件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條件들이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면 平和的 統一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집권을 永續化하려는 權威主義的 政權이 善意에서 平和的 統一方案에 同意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統一에 대한 한 段階로 그대로 점차적이고 制度的인 方案에 合意하기 위해서는 서로 權力을 移讓하거나 公有한 可能性을 假定해야 한다.

두번째 前提條件은 南北韓間의 信賴의 回復이다. 韓國戰이 끝난지 35年餘가 지난 後에도 相互敵對感과 不信 그리고 不安感이 두 韓國間에 만연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한 政府가 協力과 統一에 대해 言及하기 前에 먼저 다른 政府를 弱化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信賴感의 造成은 現在의 敵對感과 競爭意識에서 비롯된 政策을 抛棄한다고 하더라도 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이다.

또 다른 前提條件은 南北韓間의 社會·經濟·價値體系의 相互收斂이다. 現在 南韓은 社會槪念, 市場經濟 그리고 自由民主主義를 追求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社會的 孤立과 統制, 社會主義的計劃經濟 그리고 人民獨裁라는 이름하의 全體主義的 獨裁를 追求하는 등 여러 分野에서 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社會形成에 있어서 遂行되는 政策이 同一할 必要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類似性은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2次大戰以後 社會的·經濟的 그리고 政治的인 발전방식이 매우 相異한 두 社會가 그들간의 거리감과 차이를 줄이는데는 상당한 時間과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네번째 시나리오는 南韓이 對內的인 社會的·政治的 動搖로 인해 北韓의 强化된 對南 政治的·外交的 그리고 軍事的 공세에 취약하게 된 狀況을 假定하고 있다. 이는 말할 必要도 없이 北韓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이다.

南韓이 아마도 經濟的 危機와 수반되는 政治的인 危機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北韓은 南韓에 대한 壓力을 增加시키려 할 것이며, 나아가 軍事力에 호소하고자 할 것이다. 南韓에게 있어 이 시나리오가 實際化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서는 만족할만한 經濟成長과 함께 對內政治問題를 解決해야 할 것이다. 현재 南北韓의 均衡이 南韓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考慮할 때,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發生할 可能性은 稀薄하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韓國이 獨逸方式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즉 北韓에 대한 南韓의 經濟的·外交的 地位가 더욱 향상되고, 南韓이 더 이상 北韓의 軍事的 優位나 이의 침공을 念慮할 必要가 없는 狀況이다. 이러한 경우 北韓은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해야 할 必要가 있게 되며, 어느 정도의 화해에 同意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두 韓國과 主要 强大國間의 교차교류를 擴大시키게 될 것이며, 나아가 교차승인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는 "獨逸方式"과 가장 類似한 시나리오이며, 南韓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실제화하기 위해서는 獨逸의 경우에서처럼 어떤 前提條件들이 先行되어져야만 한다.

첫째로 南北韓間의 國力에 있어서의 명백하고 認識할 수 있는 격차가 存在하여야 한다. 이는 北韓에 대한 南韓의 經濟的 優位뿐만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政治的 發展을 통해 北韓으로 하여금 對內的 不安定으로 인해 南韓의 政體가 崩壞할 것이라는 希望을 버리도록 하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이 南韓社會가 공격당할 수 있고 약하다고 느끼는 限, 어느 정도 진정에서 南韓과 協商을 하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두번째 條件은 北韓社會 자체 內部의 社會—政治的 變化이다. 北韓이 철저하게 동원되고 統制되는 社會를 維持하는 限, 그들의 國民을 外部世界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할 것이다. 北韓은 特히 그들의 國民이 南韓에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環境에서 北韓은 그들의 地位와 체면을 維持하기 위한 必要以外에는 南韓과의 對話와 交流를 확대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外部世界에 대한 北韓社會의 開放이 北韓政府에 危險性을 예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條件은 南韓의 安保態勢가 北韓에 의해 공격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北韓이 經濟·外交分野에서 南韓과 競爭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短期的으로는 軍事力에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 北韓은 南韓의 압도적 優位를 防止하기 위한 유일한 方法은 南韓에 대한 선제공격 밖에 없다고 믿기에 충분할 정도로 威脅을 느낄 수 있다. 南韓은 그의 同盟國들과의 關係에서 防禦와 억지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北韓이 이러한 選擇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南北韓이 그들의 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美國·蘇聯·中國, 그리고 日本을 包含한 主要 强大國들이 協力과 支援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南北韓關係의 改善과 交流의 擴大를 묵인해야 한다.

두 韓國間의 協力과 화해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韓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方法으로서는 위에 言及한 5가지의 시나리오중 가장 現實的인 것이라 하겠다. 韓國에서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은 戰爭의 再發의 防止와 平和를 구조화시키는 것이다. 1950年代初의 韓國戰爭은 충분히 破壞的이었으며, 오늘날 科學技術의 진보와 破壞力의 增大로 韓半島에서의 더 이상의 相殺하는 戰爭은 韓國을 完全히 황폐화시킬 것이다. 兩 韓國은 選擇이 단지 永久分斷이냐, 단숨의 統一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識해야만 한다. 問題는 6,000萬 國民에 苦痛을 주는 敵對感이 持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現狀이 잘 管理되며, 葛藤의 減少, 戰爭의 防止, 競爭을 위한 資源과 정력낭비의 相互防止, 生産的 協力의 達成, 平和統一의 根據마련 등

의 中間目標가 達成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만약 一方에서 자신의 方式대로의 조급한 統一만을 주장한다면 兩側의 本質的이고 지속적인 關係의 發展을 저해하며, 이는 단지 相互不信과 敵對感만을 强化시키게될 것이다.

Ⅵ. 結　　論

"獨逸方式"의 本質은 妥協된 分野에서 可能한 方法에 의한 協力이 이루어지는 段階的인 過程으로 이루어져 있다. 南北韓의 對話와 交流는 UN 등의 國際機構의 相互加入은 물론 兩側의 政治的·制度的 統合을 討議하는데 必要한 基盤과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段階的인 接近은 多樣한 形態와 水準의 同時的인 交流를 排除하지 않고 있다. 南北對話와 交流는 兩側과 主要 强大國間의 對話와 交流를 同時에 行할 必要가 있다. 이는 分斷의 만족할만한 管理를 可能하게 해줄 것이며, 궁극적인 平和的 統一의 達成에 寄與하게 될 것이다.

平和共存과 궁극적인 統一이 점진적인 接近과 段階的 過程을 통해서 追求되어지는 동안 두 韓國은 政治的 統合을 위한 短期·長期의 制度的인 기본틀을 包含한 청사진을 이끌어내야만 할 것이다. 이는 制度가 段階的인 形成過程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두 韓國이 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外部環境도 獨逸의 境遇보다는 덜 韓國統一에 반대하기 때문에 兩側의 努力에 支持를 表할 것이다.

東·西獨關係와 南·北韓關係

-韓國의 視覺에서 본 經濟的 展望-

윤 석 범
(延世大 敎授)

1. 序　　論

本 論文은 西獨과 東獨이 이룩한 과거 및 현재의 協力關係를 분석, 파악함으로써, 南·北韓間의 동결된 經濟關係를 완화시키기 위한 실현가능한 接近方法을 도출하는데 본래의 目的이 있다. 비록 오늘날의 세계에는 中國, 獨逸, 韓國, 베트남 및 예멘 등 5개의 分斷國家가 존재하고 있지만 분단된 兩地域의 面積, 人口, 經濟成長의 水準 그리고 기타요소들을 比較해 볼 때 가장 유사한 경우는 韓國과 獨逸에서 발견된다. 물론 獨逸의 經濟成長의 水準은 韓半島보다 훨씬 앞서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南·北韓은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력은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 中華民國(Republic of China) 즉 臺灣은 經濟成長의 面에서 장족의 발전을 달성한 반면, 中華人民民主主義共和國은 여전히 臺灣보다 뒤쳐져 있다. 또한 領土의 규모와 人口水準의 面에서, 중국의 분단은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兩國 經濟의 比較는 實質的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베트남의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문화의 유복국가인 예멘은 關心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

兩獨間에 이룩된 經濟 協力은 다른 모든 分斷國家를 뒤한 모범적 準據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兩國은 상호간의 적대감을 가장 적게 표시하여 왔으며, 그리고 현재의 경제협력 상황이 分斷國家中 가장 활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國家의 分斷은 주로 第2次 世界大戰의 直接的 혹은 間接的인 결과로서 발생되었다. 그러나 南·北韓의 狀況은 第2次 世界大戰後에 强大國의 代理戰爭으로 발생된 內戰으로 인해 다른 分斷國보다도 더욱 상호관계가 악화되어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었다. 따라서

南韓과 北韓間의 經濟 關係는 中國과의 比較에서도 극히 미미한 水準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南·北韓은 비록 진실성이 결여된 표면적인 시도였다고 할 지라도 兩國間의 經濟關係 설립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그러한 접근이 단연코 거부되어 온 중국의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本 論文에서의 硏究가 기본적으로 文獻調査의 性格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은 兩 獨逸間에 형성된 先例의 考擦에 많은 比重을 두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 本 論文은 지리하고 반복되지만 兩國의 歷史的 發展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긴 페이지의 章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간의 經濟的 이익은 결국에는 오랜 분쟁을 종결시키고 分斷된 經濟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도한다는 것은 경제학도들의 强한 믿음이다. 이런 유형의 硏究가 韓國이 아닌 다른 分斷國家에게도 도움이 될 지는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韓國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硏究의 必要性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Ⅱ. 分斷國間 經濟協力의 必要性

經濟關係의 樹立은 그것이 國際貿易의 형태이건 혹은 經濟的 統合形態이건 간에 植民地的 형태만 아니라면 상호에게 經濟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貿易과 統合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설명하는 간결한 이론적 틀은 어떠한 초급 교과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本論文에서 筆者는 分斷國間의 經濟關係回復의 重要性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그러므로 本 硏究에서 分斷國家는 獨逸, 韓國, 中國 등과 같이 一國이 分斷으로 인해 2개의 領土를 가진 國家를 의미한다.

분명히 한 民族의 政治的 분열에 의해 두 국가가 생겼으며 이러한 두 分斷된 國家가 동일한 문화적 유산을 이어 받았고, 일반적으로 同一 言語를 사용하는 同一한 人種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만약 分斷되기 전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同一한 經濟的 基礎로부터 發展하였거나 퇴보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부한 것이다. 分斷된 國家가 과거의 經濟的 유대를 회복할 경우에는 두 國家의 經濟協力으로부터 얻어지는 쌍방의 이익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몇가지 특별한 이익도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첫째 무역을 시작함으로써 유용한 消費財의 種類는 증대된다.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수많은 농산물과 수산물이 있다. 이들 재화중 일부는 두 分斷된 領土사이에 교역되지 않으며 그럼으로써 수요는 존재할 지라도 消費에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재화의 輸入價格은 직접수입이 불가능할 때 運送費와 중개상인의 이윤 등에 의해 당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둘째, 分斷國間의 經濟的 유대를 수집함으로써 市場이 확대된다. 넓은 市場은 광범위한 分業과 專門化를 가능하게 한다. 市場의 확대는 당연히 재

화의 生産과 처리의 효용성이라는 結果를 가져다 준다. 게다가 市場의 확대에 의해 많은 이익이 가능하게 된다.

세째로, 生産面에서의 이익도 發生한다. 大量生産이 가능하게 될때,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이 기대된다. 두 分斷된 經濟의 규모가 협소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현저해 지며 규모에 의한 수확체증도 더욱 커진다. 이것은 國內 市場이 한정된 南·北韓 經濟에도 적용된다.

네째로 여타 경우보다 技術의 이전이 더욱 쉽게 이루어 진다. 왜냐하면 두 分斷된 國家는 同一文化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兩國에서 使用되는 言語가 같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分斷된 兩國은 教育과 經營樹立過定 (Management Building Process) 에서 同一한 經驗을 공유하고 있다.

經濟的 統合은 일반적으로 그 統合에 參與하는 두 經濟에 모두 더욱 높은 水準의 經濟的 福祉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두 國家가 그 기원과 성격의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면 그 效果는 더욱 증대할 것이다. 經濟關係의 樹立에 의해 파생되는 이상의 여러 이익중에서 몇가지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전형적인 需要와 공급함수를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X_d = d(P) \qquad dx_d / dP_0 < 0$$

$$X_s = S(P) \qquad dx_s / dP_0 > 0$$

X_d, X_s, 그리고 P_0는 각각 X에 대한 需要, X에 대한 供給 그리고 價格을 나타낸다. 우리는 다음의 두 방정식을 동일되게 함으로써 균형가격을 구할 수 있다.

$$d(P_e) = S(P_e)$$

이 균형점에서 總 消費者와 生産者 잉여 A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 = \int_0^P d(P)\,dP - \int_0^P S(P)\,dP = \int_0^P [\,d(P) - S(P)\,]\,dP$$

이제 한 經濟가 다른 分斷된 經濟와 統合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統合後의 새로운 需要와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X_d = f(P) \qquad dx/dP < 0$$

$$X_s = g(P) \qquad dx_s/dP < 0$$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條件이 유지된다.

$$f(P_0) > d(P_0)\ ,\quad g(P_0) > S(P_0)$$

우리는 새로 얻어진 總 消費者와 生産者 잉여 B가 A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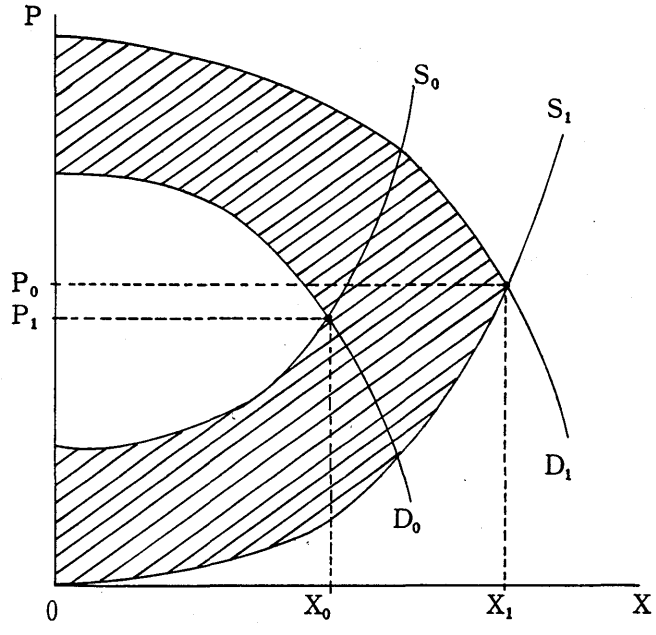
$$B-A = \int_0^P [\,f(P)-g(P)\,]\,dP - \int_0^P [\,d(P)-S(P)\,]\,dP > 0$$

사실은 다음의 도표에 예시되어 있다. 도표에서 P_0, D_1, S_0 및 S_1은 위의 消費 및 공급함수와 같다. 아래 숫자 0과 1은 經濟的 統合 이전과 이후를 나타낸다. 圖表에서 빗금친 部分은 經濟的 統合後 市場擴大와 生産增加로 얻어진 限界利益을 나타낸다.

論理는 매우 명료하다. 貿易에 가담하는 두 國家가 서로 利益을 얻는다

면, 同一한 文化的 遺産, 言語, 貫習을 가진 두 分斷國家는 經濟的 紐帶를 確立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利益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論理의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分斷國家들이 經濟關係를 樹立하지 않는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政治的 對立에 있다.

<圖表>



Ⅲ. 獨逸과 南·北韓의 經濟關係에 대한 歷史的 考察

나치獨逸이 완전항복한 이후 1945年 5月에 獨逸은 소위 "聯合軍 宣言" (Declaration of Allied Powers)[1]에 의하여 分斷되었다. 同 宣言에서 오데르-나이제線의 東部地域은 폴란드로 되돌려 주었다. 聯合軍宣言은 또한 細部事項의 실행와 조정의 역할을 지닌 소위 "聯合軍管理委員會" (Control Council of Allied Powers)도 設置하였다. 同 宣言속에 담겨있는 構想은 1945年 4月의 합동참모본부(以下 JCS)에서 처음으로 提起되었으며 後에 1945年 5月 聯合國間의 포츠담協定에서 具體的으로 公式化되었다.

포츠담協定은 戰後의 獨逸經濟에 適用되고 遵守되어야 할 基本原則을 提示하였다. 그 原則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넓은 범주로 要約되었다.[2]

첫째, 獨逸經濟는 獨逸이 4地域으로 分割되어 聯合軍에 占領된 後에도 單一經濟單位로 취급될 것이며, 따라서 다음의 事項을 考慮하여 統合된 政策이 제정·이행될 것이다. (a) 鑛物과 工業製品의 生産과 分配, (b) 農業·林業 및 水産業 (c) 賃金 및 物價와 配當 (c) 全體 獨逸의 輸出과 輸入 (e) 貨幣, 財政, 租稅 및 關稅 (f) 經濟再建과 군수산업 부활 可能性의 除去 (g) 輸送과 通信.

둘째로 獨逸에 의한 戰爭再發 可能性을 除去하기 위해 군수물자의 生産

註① "Declaration of Allied Powers", Office of Military Goverment for Germany (U.S.), Summation of Multipartite Agreements and Disagreements on Germany, 1948.

註② 포츠담협정 11조에서 15조까지를 참조

을 금지하고, 戰爭과 관련된 製品의 生産을 制限하였다. 총, 탄약, 戰爭物資, 항공기, 그리고 함정과 같은 것은 完全히 生産이 禁止되었으며, 반면 金屬, 化學 등과 같은 戰爭關聯 製品은 獨逸經濟의 平和的인 부흥에 도움이 되는 範圍內에서 生産이 可能하였다.

세째로 이미 소수 독과점 企業에 집중된 經濟力을 輕減시키기 위해 嚴格한 分權化政策이 採擇되었다. 카르텔, 트러스트, 신디케이트 등과 같은 經濟的 집중은 그 政策目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可能한 限 빠른 時日內에 해체되어야 했다. 1945年이전까지의 獨逸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기업합병을 支援한 몇 안되는 國家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폐단은 이 分權政策에 의해 完全히 調節되었다.

그러나 聯合軍 宣言과 포츠담協定은 獨逸利益의 保護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西獨은 자연히 紛爭可能性과 베를린 封鎖의 結果로서 發生한 베를린 고립의 根據를 確認하길 願하였다. 西獨은 또한 최소한 東獨에 居住하는 離散家族과의 서신교환과 兩獨間의 貿易을 希望하였다. 이러한 西獨의 관심중 一部는 東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東獨도 兩獨에 흩어져 살고 있는 離散家族의 再結合뿐만 아니라 西獨과의 貿易關係를 維持하길 願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東獨의 關心은 아마도 漸進的인 交易關係의 擴大를 통해 西獨과 聯合國들로부터 東獨政府의 正統性의 承認에 있을 수도 있었다.[3)]

經濟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한 兩獨間의 최초의 具體的이고도 細部的인 協定은 1945年 11月의 이른 바 4國協定(Quadripartite Agreement) 즉 地域間 貿易이 可能한 制限된 수의 生必品에 한정하여 이룰 수 있었다.

註③ 이러한 견해는 Chana, Hwa, Soo, 「分斷國의 經濟交流論」 東京: せんおんど, 1981.

1945年 12月 이 協定에 의거하여 바바리아(美國管轄地域)와 색소니아(蘇聯管轄地域)間의 최초의 交換貿易이 이루어졌다. 당시 兩 地域은 1,000톤의 소고기와 200톤의 소금 및 5,000톤의 설탕을 交換하였다.[5] 분할된 네 地域의 經濟的 條件은 매우 對照的이었던 것 같다. 특히 蘇聯이 占領한 西部地域과 나머지 세 地域이 그러하였다. 蘇聯이 占領한 地域에서는 蘇聯軍政에 의해 基本的 産業施設과 재고물자가 分解되어 蘇聯으로 옮겨졌다. 이 時期는 1945年부터 1947年까지의 北韓에서의 狀況과 매우 類似하다는 사실은 注目할만 하다. 당시 蘇聯은 韓半島의 北半部를 占領하고 중요한 産業施設과 水力電氣發電施設을 분해하여 蘇聯으로 가져갔다. 地域間 貿易의 必要性은 당시 獨逸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다.

1946年 以後 상당수의 協定들이 이 地域의 軍政當國間에 締結되었다. 최초의 協定은 1946年 4月 美國과 蘇聯占領地域間에 이른바 地方議會協定 №1 (Landerratsgeschaft Nr.1)의 形式으로 締結되었으며 다시 1946年 11月에 地方議會協定 №2 (Landerratsgeschaft Nr.2)가 締結되었다.

두번째의 協定은 1946年 9月과 1947年 3月에 프랑스와 蘇聯의 占領地域間의 소위 Sofra協定(Sofra Geschaft Nr.1, Nr.2)로 締結되었다. Sofra協定(Sofra Geschaft)로써 프랑스 占領地域과 蘇聯 占領地域間 貿易이 可能해졌다.

1946年 9月 英國과 蘇聯의 占領地域에서 이루어진 세번째의 協定은 Briten協定이었다. 이 協定으로써 서방측의 占領地域과 蘇聯 占領地域間의 貿易關係가 完決되었다.

그러나 西方聯合國 占領地域과 蘇聯側地域間에 個別的으로는 協定이 締結

註④ Ibid., pp.114-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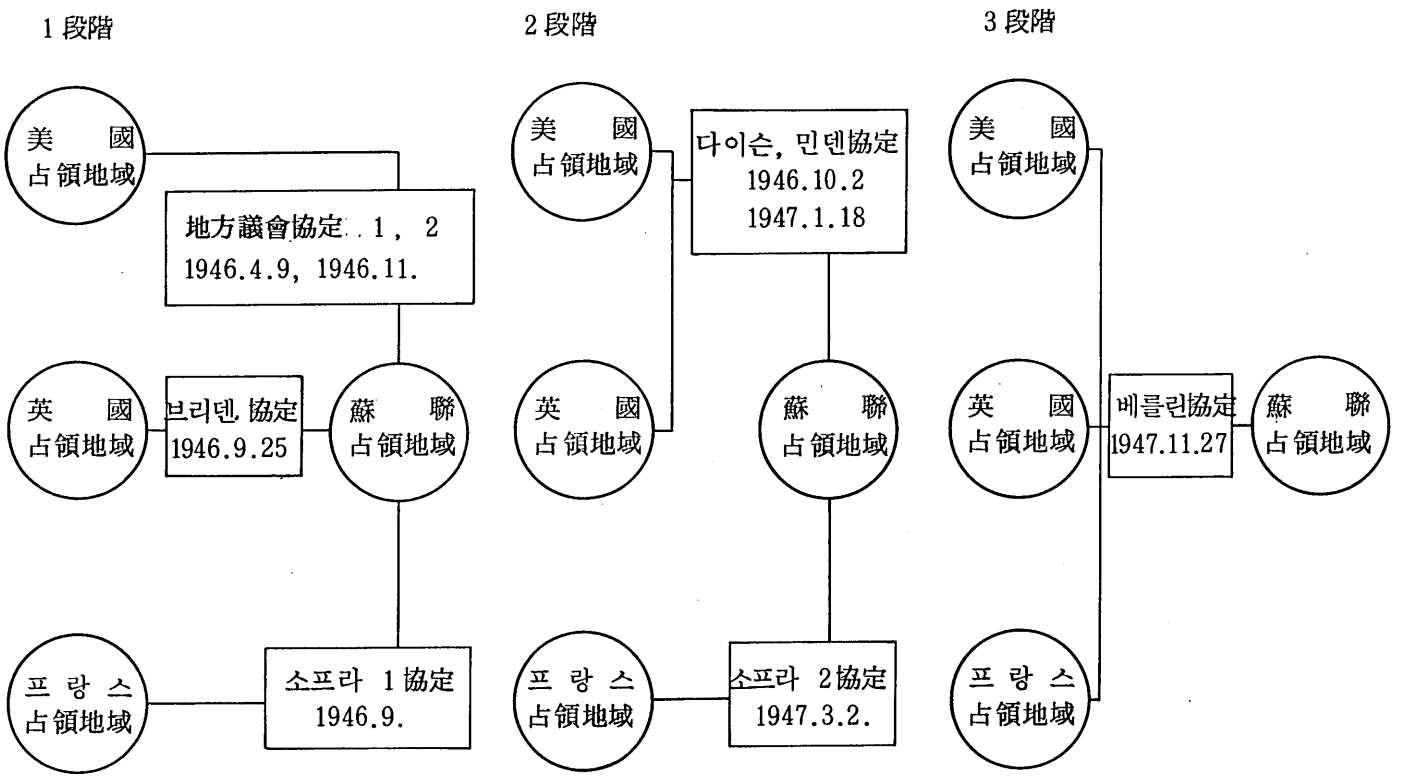
되었기 때문에 서방 聯合國地域의 協商地位는 相對的으로 弱化되었고 가끔 西方聯合國間에 貿易政策上의 非一致性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蘇聯占領地域과의 交易에 있어서 西方側의 統一된 관계설정을 必要하게 하였다. 이런 類型의 최초의 協定은 1946年 10月에 美國과 英國의 占領地域 전체와 蘇聯側地域間에 締結되었으며 이를 Dyson協定이라고 한다. Dyson協定과 같은 協定은 1947年 1月에 兩側間에 다시 締結되었으며 이를 Minden協定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蘇聯 占領地域과 英國과 美國 占領地域間의 최초의 經濟的 統合으로 볼 수 있다.

더욱 發展된 形態의 協定은 1947年 11月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英·美佛의 統合된 地域과 蘇聯側 地域과의 協定이 完結되었다. 베를린協定으로 불리는 이 協定은 蘇聯側 地域과 西方聯合軍地域의 交易에 대해 完全統合을 의미하며 西分된 獨逸을 실질적으로 兩分된 것으로 만들었다. 이제까지의 이룩된 發展은 다음의 圖表로서 再構成할 수 있다.

비록 프랑스軍政이 公式的으로 베를린協定의 調印에 參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蘇聯地域과의 交易에 있어서 3地域 統合의 일원으로서 實質的으로 參與한 것은 베를린協定이 이른바 東西獨間의 統合된 經濟關係 樹立의 基礎로 되게 한 것이었다.

占領地域間 經濟關係의 초기의 두 段階에서는 라이흐 마르크化가 貿易通關節次에 使用되었던 몇가지의 예외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交換貿易의 原則들이 遵守되었다. 그 후의 段階에서는 새로 制定한 소위 점령마르크화가 공식화폐로써 통용될 計劃이었다. 그러나 점령마르크화의 발행이 實質的으로 蘇聯軍政下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점령마르크화의 價値는 과도한 發行으로 만성적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공식화폐로 採擇되지 못했다. 1948年 7월의 西方地域의 貨幣改革과 이른바 베를린封鎖로 인해 蘇聯地域의 經濟

締結된 地域間 協定의 發展段階



狀況은 더욱 惡化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狀況들은 1949年 5月 東·西部 地域間의 Jesup-Malik協定으로 다소 緩和되었다.

1949年 西獨은 각각 독자적으로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으로 出帆하였다. 그 結果 地域間 貿易은 國家間 貿易이라는 性格으로 그 형식이 바뀌게 되었다. 兩獨間의 貿易을 規定하는 法律은 基本的으로 1949年 10月 8日 프랑크푸르트協定에 의해 制定되었다. 비록 프랑크푸르트協定은 1949年과 1950年 사이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貿易에만 適用된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Verrechnungseinheit (VE)라는 貨幣單位를 창출하였다는 點에서 獨逸貿易에서의 一劃을 긋는 重要한 協定이었다. 東獨마르크화의 불안정한 性格에도 불구하고 VE라는 貨幣單位는 西獨마르크貨와 동등한 것으로 策定되었다.

發展된 통관관행은 第2次 베를린協定에 의해 명확히 規定되었다. 이 協定은 兩獨間의 貿易通關節次를 兩側에 各各 通關銀行을 指定함으로써 細部的으로 規定하였다. 西獨은 獨逸聯邦銀行을 그리고 東獨은 獨逸 兌換銀行을 각각 貿易通關銀行으로 指定하였다.

兩獨間의 國家間 貿易은 최소한 表面的으로는 순수 國際貿易으로 規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內部的 性格은 통상 國內에서 행해지는 地域間 交易으로서 얼마간 維持되어졌다. 一方的인 무역적자의 만성적인 축적을 일시적으로나마 防止하기 위하여 考案된 "Swing Credit"이란 信用體系를 創設한 것은 매우 獨創的이며 獨逸人들에게만 오로지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특수한 제도가 獨逸의 內部貿易을 特徵지웠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Swing Credit은 西獨에 대한 東獨의 무역적자를 減少시켜 주었으며, 西獨側이 提供한 Swing Credit의 額數는 每年 增大되어 왔다.

內獨貿易에 參加하는 關聯部署에서 東獨은 "獨逸貿易部"이며 이는 政府

組織이다. 西獨은 "獨逸貿易組合"이며 이것은 民間組織이다. 貿易은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들에 있어서 政府固有權限이기 때문에, 西獨이 貿易專擔部署를 民間組織에 맡기는 반면에 東獨이 獨逸貿易을 管掌하는 貿易部를 設置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西獨間의 地域貿易은 各各 相對方을 獨立國家로서 承認한 基本條約, 즉 72年 "東·西獨間의 基本關係條約"을 조인한 이후 形式上으로 國際貿易으로 變하였다.

韓國의 狀況은 처음부터 獨逸의 경우와는 本質的으로 달랐다. 韓國에서 지역정부의 基本的 地位는 최초로 1945年 12月27日에 조인된 소위 모스크바協定에 나타났다. 이 協定의 "第3 韓國"란 아래 4個의 簡略한 조문이 包含되어 있으며, 그것은 國家建設과 經濟回復에 관한 基本原則들을 명시하고 있다. 同 協定은 나아가서 南韓의 美國軍政의 대표와 蘇聯軍政代表들로 構成되는 共同委員會가 韓國政府의 樹立과 韓國經濟回復을 促進시키기 위해 構成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兩側의 代表들은 最終決定에 앞서 中國政府와 英國政府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決定에 반영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協定은 基本的으로 美·蘇·中·英 네 聯合國의 向後 5年間의 信託統治下에서 韓國政府의 樹立을 더욱 强調하였다.

이 協定에 根據하여 美·蘇共同委員會議가 1946年 1月부터 關聯問題들을 討議하기 위하여 開催되었다. 1946年 1月 美·蘇共同委員會에서 도달한 몇가지 重要한 決定內容은 다음과 같다.

(1) 兩 地域間 鐵道, 自動車 및 海運에 관한 問題

(2) 兩 地域間 韓國民의 旅行에 관한 問題

(3) 兩 地域間 郵便物 交換에 관한 問題

(4) 兩 地域間 라디오 및 텔레비젼 放送에 관한 問題

(5) 電氣·貨物, 그리고 金融의 配分에 관한 問題 및 차후 회의의 의제에 관한 問題

公式的 交易은 基本的으로 物物交換에 바탕을 두고 兩 地域間에서 행해졌지만 밀수행위 또한 南韓과 北韓의 경계를 가르는 38°선 地域에서 매우 번성하였다. 沿岸과 내지에서 모두 밀수가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貿易을 종종 "38밀수"라고 불렀다. 兩 地域을 오가며 밀수된 品目은 디젤 오일, 면화씨 기름, 연필, 의약품, 전구(南韓에서 北韓으로), 그리고 시멘트, 카바이트, 소금, 소다, 소다회, 황마마대, 비누, 설탕, 機械類, 해산물 등(北韓에서 南韓으로)이었다.

1947年 6月 소위 電氣協定이 締結되었을때까지, 北韓은 면화, 곡물, 목면, 합성섬유, 신발, 타이어, 공구, 機械部品, 金屬製品, 自動車 部品, 가솔린 노일 등은 수입하고 電氣, 안드라사이트 석탄, 강철, 펄프, 비료, 카아바이트, 시멘트, 소다, 소다회, 化學製品, 基礎鐵鑛石, 鐵鑛石 등을 輸出하였다. 그 사이에 相互 郵便物 交換局이 1946年 3月에 38°선상에 두 軍政當局에 설치되었으며, 貿易과 커뮤니케이션을 促進하기 위한 여러가지 종류의 協定들이 締結되었다.

1947年 5月 21日 蘇聯 共同委員會議가 開催되었을 때 위에서 言及한 源資財와 約 10,000屯에 달하는 곡류 中心의 商品으로 이루어지는 兩 地域間 物物交換 貿易을 促進시키기 위한 보다 細部的인 協定이 締結되었다.
1947年 8月에 南韓의 美軍政 當局은 "現存하는 모든 商法을 調整하고, 그리고 이 地域에 부합되지 않는 法令들을 閉棄하거나 혹은 改正하기 위하여 대외 商業行爲規制 "USAMGIK 第149號"라고 명명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의 重要性은 그것이 對外貿易을 占領地 內部貿易과 區分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前後 獨逸의 경우에서도 그러하였다. 前後

獨逸의 內部貿易은 처음에 4個의 다른 占領地間의 交易으로, 그리고 後에는 東·西獨間의 貿易으로 뚜렷이 定義되었다.

나아가서 그 포고령은 밀수 및 어떤 種類의 不法的인 財貨의 이전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과 地域間 貿易可能地域 指定, 그리고 地域間 貿易業者의 登錄制를 宣布하였다. 이 布告令의 宣布로써 美軍政 當局은 밀수를 완전히 근절하고 地域間 貿易을 자신의 엄격한 統制下에 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布告令은 애초에 기대하였던 만큼의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1948年 8月에 南韓의 美軍政政府는 陸上의 地域間 交易에 관한 布告令을 宣布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布告令 第149號를 補完하는 것이었다. 엄격하고도 威脅的인 布告令 第149號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번성하는 밀무역을 合法化하기 위해서, 美軍政當局은 밀무역업자들에게 申請만 하면 許可를 해 주었다. 地域間 貿易에서 交換되는 品目도 융통성 있게 指定되었으며, 다음의 5個地域이 地定貿易地로 選定되었다.

地 名	대략적 位置
충 단	N 37-59', E 125-50'
박 천	N 37-59', E 126-20'
여 현 진	N 37-59', E 126-25'
죽 암	N 37-59', E 126-58'
양 문 리	N 37-59', E 127-15'

이상의 5個地域은 대부분 江原道의 道廳所在地이며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않은 春川市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地域間 貿易의 管理 및 監督은 모두 韓國人들로만 構成된 경무국이 담당하였다.

大韓民國 政府가 1948年 8月에 정식으로 出帆한 이후 두개의 措置들이 1949年 12月에 公布되었다. "輸入物資의 處分에 關한 措置"와 "南北韓 貿易에 關한 規定"이 그것이다. 이들 措置에 의해 地域間 貿易은 더욱 規制되었으며, 南北韓間에 敵對的狀況 展開로 地域間 貿易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1949年 4月에 이르러서는 地域間 貿易이 終結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說明을 要約하자면 1945年 8月에서 1949年 4月까지의 期間동안에 地域間 公式貿易과 密貿易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그러나 1948年에 南韓과 北韓에 各各 분리된 政府가 樹立됨으로써 그와같은 經濟關係는 더 이상 存續할 수 없게 되었다.

韓國戰의 休戰協定이 締結된 1953年까지 어느 일방에 의한 南北韓 經濟關係樹立에 관한 어떠한 提案이나 協定, 條約도 없었으며 따라서 어떠한 經濟關係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休戰協定以後 1954年 4月 최초로 北韓은 제네바에서 개최된 外相會談에서 北韓外相 남 일을 통해 한가지 提案을 하였다. 그 提案은 韓半島의統一을 이룩하고, 貿易, 金融, 運送, 郵便交換, 文化 및 스포츠 交流 등을 포함한 經濟關係의 재개를 論議하고 韓半島 總選擧를 실시할 "全朝鮮委員會"를 設立할 것을 主張하였다. 이 提案을 시작으로 그와 유사한 수많은 提案들이 1950年代와 1960年代初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다.

이러한 提案들은 대부분 1950年에 北韓이 南侵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결코 北韓은 호전적이지 않고 항상 平和的이며 韓半島의 統一을 熱望하고 있다는 거짓된 믿음으로 世界輿論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提起된 것들이었다. 특히 1960年代 初에 이루어진 이들 提案들은 1960年의 학생시위와 1961年의 軍事 쿠데타에 의해 南韓의 불안정을 격화시키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提案들은 南韓駐屯 外國軍隊는 즉시 撤軍해야 하며 南北韓間의 經濟協調가 樹立되어야 한다는 北韓의 宣傳을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1960年代에 걸쳐서 北韓은 이와같은 유사한 提案을 계속 반복하였다. 經濟的 提案에 관한 한 北韓 當局은 細部的이고도 具體的인 計劃이 없는 모호하고도 비실제적인 計劃을 提示하였다. 南韓에서 UN의 統一 및 재건을 위한 UN委員會의 活動을 비난하고 또 다시 經濟協力을 반복하여 提議하였던 1968年까지 南韓政府는 이러한 北韓의 提議에 어떠한 反應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基本的으로 당시까지 南韓이 1人當 國民所得面에서 北韓에 비해 劣勢였다는 사실에서 기인되는 것이었다.

1971年에 박정희大統領은 판문점과 北韓의 신의주간 高速道路의 합작건설을 시작하고 中國에는 압록강 부근의 신의주와 韓半島의 남단에 있는 釜山까지 연결시키자고 하는 提案을 하였다. 이 朴大統領의 提案을 처음으로 南韓當局은 東西獨의 協力方法의 適用可能性이나 南北雙方에 의한 비무장지대(DMZ)의 平和的 利用, 物資交流등을 관장할 항구적 機構의 設置, 食糧援助計劃等과 같은 廣範圍한 協力方案들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反應은 완전히 內容과는 다른 것이었고, 그들의 구태의연한 提案을 계속 반복하였다.

1980年代 초기에 다소 獨逸과 유사한 狀況이 造成되었다. 1982年 南韓의 孫在植長官은 北韓의 금강산과 南韓의 설악산을 共同觀光開發地域으로 할 것과 나아가 진남포와 인천항을 시범적으로 개항하자는 새로운 構想을 발표하였다. 이 提議에 대해 北韓은 南北韓에서 選出된 100名으로 統一議會를 構成할 것을 提議하고 일방적으로 南韓代表 50名을 指名하였다. 南北韓間의 무의미한 提案과 反提案의 반복은 1984年까지 계속되었다. 1984年 北韓이 南韓의 수해구제물자로 50,000석의 쌀과 500,000미터의 면, 100,000톤의 시멘

트, 그리고 의약품을 提供하겠다고 提議하자. 南韓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때 전달된 水災物資를 1949年에 兩國政府樹立으로 交易이 중단된 이래 南北韓間에 전달된 최초의 物資이었다. 그 以後에 어떠한 것도 具體的 結實을 거둔 것은 없으나 수해구제물자의 傳達以後 南韓間의 經濟會談이 1984年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獨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南北韓間의 經濟關係를 樹立하려는 시도들은 완전히 失敗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圖表에 의해 보여지는 바와같이 東西獨間에 행해진 엄청난 量의 貿易이 이루어진 반면 韓半島에서는 1949年 以後 雙方間에 어떠한 交易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

Ⅳ. 兩獨關係로부터의 教訓과 韓國에 適用可能한 接近方法

獨逸과 韓國에서 造成된 두 狀況을 비교해 보면, 韓國에서는 意見과 計劃의 광범위한 交換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環境도 造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南北韓間의 이러한 교착상태가 가까운 將來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政治的 狀況으로 인해 南北韓間의 經濟關係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南韓政府는 政治的 理念에서 완전히 상치되는 北韓과의 交涉에서 우선 가장 실제적이면서 쉽게 解決될 수 있는 項目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交涉에서 適用될 原則은 첫째로 본질상 非政治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經濟的 호혜의 原則이 그것이다. 南韓政府는 北韓과 貿易可能한 品目을 선정해야 하며 우선 일단계로 北韓으로부터 輸入可能한 品目을 먼저 選擇해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 輸入可能한 品目은 南韓의 最終消費者가 北韓製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特徵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北韓에는 南韓이 必要로 하며 따라서 다른 外國에서 輸入해야 할 많은 生産物이 있다. 선적에서부터 즉각 韓國製品으로 식별될 수 있는 技術集約的인 共産品등과 같은 精密製品들은 처음부터 排除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금만 加工하거나 재포장하면 最終消費者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鑛石이나 해산물, 농산물 등과 같은 많은 一次生産品이 있다.

둘째 輸入産業에 從事하는 대부분의 貿易業者들은 民間人이므로, 北韓으로부터의 輸入商品에 관한 情報가 부족할 것이다. 大韓商工會議所, 大韓貿易組合 등과 같은 組織이 최소한 初期段階에서 適切한 情報를 蒐集하고 提供해야 될 것이다.

세째, 政府는 만약 目的上 必要한 品目이 北韓에서 輸入可能할 경우, 北韓製品의 購買에 있어서 그 供給機關을 提供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많은 民間人이 위험부담없이 輸入製品의 質에 관한 情報를 提供해 주기 위한 것이다.

네째, 北韓政府에 대한 購買提議는 北韓으로 하여금 北韓製品을 購入하려는 南韓의 의지가, 만약 製品의 品質과 價格이 消費者의 基準에만 합치된다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임을 確信시켜야 할 것이나 만약 北韓製品의 購入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근래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北韓에 도움이 될 것이다. 購買提議는 北韓政府의 反應에 개의치 말고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政府는 保險이나 基金과 같은 제도를 착안할 필요가 있다. 이 目的을 위해 소요되는 資金은 國際貿易에 관련된 部門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로 兩 地域間의 貿易이 확대됨에 따라 南韓의 일방적인 貿易赤字가 쌓일 것이므로 南韓은 獨逸의 "Swing Credit"과 類似한 信用協定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種類의 信用을 위해 소요되는 資金은 사기업부문이나 혹은 需要가 발생하면 政府豫算에서 充當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곱번째 보다 複雜한 經濟協力은 초기의 段階가 성공적으로 完遂된 後에 實現되어야 한다. 탄광사업, 어업양식, 그리고 民間建設의 합작개발은 단순하고도 非政治的 經濟協力이 이루어진 다음에 可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接近法은 南北韓間의 政治的 緊張이 다소 緩和된 후에야 실제 實現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緊張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經濟協力도 不可能

하며, 그때 經濟協力의 시도는 단지 宣傳戰을 초래할 뿐이며 이는 결국 雙國의 感情을 더욱 惡化시킬 것이다.

參 考 文 獻

(1) Chang, Hwa Soo, 「分斷國の經濟交流論」, 東京：せんおんど, 1981.

(2)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對話 提議 比較」(1945～1986) 國土統一院, 大韓民國, 1987.

(3)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lic, Bonn, 1973.

(4) 國土統一院 提出 非刊行 研究報告書, 1981.

亞細亞, 太平洋地域에서의 美蘇競爭

Joachim Glaubitz
(에벤하우젠 學問과
政治研究財団研究員)

Ⅰ. 序　　論

1986年 7月末 블라디보스톡에서의 고르바초프연설에 따르면 美國이 초태평양강국인 반면 蘇聯은 아시아국가이면서 太平洋强國이라는 것이다. 蘇聯의 政治·行政의 中心은 유럽지역에 있다. 즉 美·蘇 양강국은 어느 地域보다도 유럽지역에서 특히 대치하고 있다. 1969年에 브레즈네프는 이미 유럽에서 美·蘇가 데탕트의 진전을 보임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도 集團安保體制의 성립을 보자는 제의를 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 양지역의 연계체제를 樹立하려 노력하였다. 그후 INF問題는 양지역간에 戰略的 相互協力의 增大를 보였다. 集團安保體制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발의는 失敗하였다. 그 이유인 즉, 直接的으로 中共의 利害와 상반된 것이었고, 몽고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국가들이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 유럽과 아시아의 安保體制構造가 너무도 상이하였기 때문이다. 즉 유럽안보체제는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이라는 두동맹의 다각적 體制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이를 통해 確立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간에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一定한 경계선이 있다.

그런데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는 同盟構造가 양면적이다. 아시아지역의 3각안보체제, ANZUS는 法的으로는 효력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1986年에 폐지되었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地域에는 韓半島를 제외하고는 명확히 區分된 영향권역이 存在하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美國은 公式的으로 日本, 韓國, 필리핀, 호주와 양면적인 同盟을 맺고 있다. 1954年 마닐라협정에서 美國-대만군사협정은 제외되었다. 이와같은 모든 體制는 다양한 條件하에서 安保體制를 보장하는 제반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美國-대만관계를 통해 이 地域에서 國際狀況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알 수 있다. 美國은 1954년 체결된 美國-대만간 상

호방위조약을, 1979年에는 中共과 外交關係를 樹立하면 폐지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아직까지 대만에게 방어용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蘇聯도 이와 비슷한 狀況에 있다. 蘇聯은 北韓, 몽고, 베트남과 양면적인 防衛協定을 맺고 있다. 中·蘇紛爭으로 蘇聯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友邦으로서 中共을 잃었다. 1950年에 체결된 中·蘇 相互協力, 同盟, 友好條約은 1979年에 中共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그로부터 1年後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中共 또한 北韓과 公式的인 同盟을 맺고 있다. 中共-北韓條約은 蘇聯이 北韓과 이와 비슷한 協定을 맺고 난 후 즉시 체결되었다. 中共은 유일하게 北韓과 公式的인 防衛協定을 체결하고 있다. 相互協力과 대립양상은 이와같은 同盟體制의 構造에 의해 다소간 좌우된다. 中共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中共은 世界的 强國과 蘇聯 어느쪽과도 同盟을 맺고 있지 않으면서 지난해에 비해 蘇聯 및 蘇聯同盟國과의 關係를 더욱 擴大하고 있다. 中共은 共産黨에 의해 지도되고 있으면서도 非公式的으로 美國과 軍事協力을 맺고 있으며 반면 社會主義路線을 걷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政策을 펴고 있다.

또한 아시아地域에서 美國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日本이 있다. 1981年 5月 레건-스즈끼會談에서 "同盟(alliance)"라는 용어를 使用했다. 이후 Suzuki는 日本國內에서 여기서의 同盟이 軍事的 의미의 同盟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같은 의외의 발언때문에 외무상과 외무차관이 사임해야 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美·日同盟은 확고하고도 견고하다. 1978年 11月 美·日 相互防衛計劃전반에 걸친 합의가 있는 후, 양국간의

軍事的 關係는 더욱 긴밀해졌다.

유럽과 구별되는 또다른 아시아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지리상의 問題이다.

美國의 두함대가 관할하는 防禦地域 즉 하와이와 괌, 필리핀과 디에고 가르시아간의 거리는 북대서양 全體를 防禦하는 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이에 대해 한 專門家는 이들간의 배치를 보다 전방으로 근접시키지 않고는 美國은 現在의 防禦網을 維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地域의 판도는 海軍과 空軍에 의해 결정된다. 제 2 차대전직후 美·蘇間의 냉전체제의 성립, 美·中共과의 대립, 韓國戰爭, 美國의 월남참전등에 의해 美軍의 아시아주둔의 必要性이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共産主義와의 대결과 戰爭이라는 측면에서 美軍駐屯의 동기를 찾았으나 오늘날에는 美·蘇 兩大强國間의 競爭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蘇聯은 60年代末 蘇聯·中共間의 대립상태에 대한 對應措置로서, 또한 美國과의 軍備競爭에 의해 極東地域과 아시아-太平洋地域에 軍事力을 集中시켰고, 1970年代 초반에 들어서면서 蘇聯은 이 地域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재천명하였다.

Ⅱ. 競爭의 利害

아시아-太平洋地域은 美國과 西方世界에게 전략상으로 뿐만아니라 經濟的으로 매우 중요한 地域이다. 1980年以後 이 地域에 대한 美國의 貿易量은 유럽地域에 대한 貿易量보다 훨씬 많았다. 즉 1985年에는 40%, 1986年에는 거의 50%로서 각각 1,850億달러, 2,150億달러였으며, 이는 유럽地域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1985年度 美國의 총무역적자 1,480億중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만 800億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세계 2대 경제대국인 美國과 日本은 太平洋을 경계로 하고 있다. 1991年까지는 世界人口의 $\frac{2}{3}$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美太平洋艦隊 Sames Lyon제독은 F-16, F/A-18, M-1 tanks, 軍事用콤퓨터등 美國의 現代武器組立이 모두 동아시아공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美國은 생산성저하로 인한 競爭力 약화가 아시아 여러국가 특히 日本과의 貿易關係를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지역에서의 經濟的 利害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에 美國은 貿易問題와 軍事問題를 별개의 問題로 구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하고 있다.

아시아地域의 經濟는 商品과 原資材의 원거리수송에 의존한다. 예를들면 1985年度에 日本은 中東地域에서 68.8%, 동남아시아에서 16.8%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면, 석탄은 3대석탄수출국인 호주, 캐나다, 美國에서 수입하였으며, 철강은 호주, 브라질, 인도에서 食糧은 美國, 中共,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였다.

美國은 페르시아만보다 알라스카 Valdez항으로부터 더많은 원유를 供給받고 있다. 이것은 해상을 통한 원거리수송을 意味한다. 따라 이와같이 필

수적인 原資材의 供給을 해상수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항로(SLOC)[1]의 安全確保가 필수적이다. 즉 이는 이지역의 安保와 안전을 基本條件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SLOC의 安保問題는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美國의 전략상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1981年 5月 스즈끼 수상이 1,000해리(1,800㎞)에 걸친 SLOC의 保護措置를 선언함으로써 이지역에 대한 防衛任務를 분담하는 주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이같은 조치는 現在 美軍과 日本海上自衛隊가 共同으로 維持하고 있는 대공방위 및 其他防衛體制와 함께 日本과 美國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다른 防衛協力의 요소로 첨가되었다.

SLOC防衛에 대해 美國은 "蘇聯의 海上 및 航空라인과 接境을 이루는 危險地域과 蘇聯의 방해공작의 危險이 있는 海上 및 航空라인에 대해 平和시에는 감시기능을 遂行하고 戰爭시에는 防禦機能을 遂行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1,000해리내에서는 美國은 日本에게 一次的 責任을 전가하고 있으나 그 이외지역 즉 필리핀연해, 남중국연해, 인도양 및 東·中央·南太平洋地域에서는 一次的 責任이 美國과 其他 同盟國에게 있다. 美國은 또한 일본본토 이외의 地域에 대한 防衛에도 日本을 除外시키지 않았다. 이지역에서도 日本海上自衛隊와 空軍自衛隊는 美國을 도와야할 任務가 있는 것이다.

SLOC防衛에 있어 重要한 側面은 戰略的으로 중요한 지점에 군사기지를 設置하고 아울러 同盟國家의 항구에 美國艦艇을 정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側面에서 뉴질랜드와 美國間의 協定에는 중요한 意味가 담겨있다. 즉 同盟의 本質的 問題와 그것의 防衛機能間에 根本的 問題가 제기된다.

1984年 7月 David Lange가 뉴질랜드수상으로 취임한 후 그는 모든

註①: SLOC : Safe Sea Line of Communication

核武器와 核潛水艦이 뉴질랜드가 "非核地帶"로 선언한 항구에 出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뉴질랜드政府는 ANZUS同盟國으로써 남기를 원하며 동시에 재래식무기에 의해 防禦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뉴질랜드항구에 美國核艦艇이 出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런 태도는 美國側에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었다. 한 분석가에 따르면, "美海軍은 核艦艇과 非核艦艇으로 구별하여 維持되고 있지 않고 美艦艇이 얼마간의 核을 裝置하고 있기 때문에 非核艦艇만으로 美同盟國을 防衛할 수 있는 方法은 전혀 없다는"것이다. 만약 美國이 뉴질랜드의 요구를 수락하는 경우, 다른 同盟國들도 뉴질랜드나 日本과 같은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3가지 非核原則"을 고수하는 日本政府가 여론의 壓力에 의해 이 原則을 보다 엄격히 실천하려 할 것이며 아울러 일본영해에 美艦艇의 통과를 반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점차 太平洋地域에서 美海軍의 전술적 기동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防衛問題에 대한 國家間의 信賴性이 약화될 것이다. 同盟維持를 위해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그 機能을 遂行한다는 입장에서 뉴질랜드에 대해 美國은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

同盟維持의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美國의 이해 즉 中共과의 關係가 있다. 70年代에 들어 美國과 中共이 關係를 樹立하게 되면서 美·日·中의 20年以上에 걸친 장기간의 對立狀況은 그종식을 보게 되었으나, 中·蘇間의 紛爭은 여전하다. 이로써 蘇聯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야 했다. 우선 最近들어 이지역에서 中共·美國·日本은 非公式的으로 相互利害調整의 協力을 실천하였다. 中共은 美·蘇와 균형있는 關係를 維持하면서 반소련외교정책을 다소 완화시키고 있지만, 美·中·日의 利害關係는 여전히 維

持되고 있다. 이에 中共은 美國보다는 낮은 水準에서 蘇聯과 相互協力 및 교류를 維持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中共이 타국의 政策에 대해 중립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공부수상 錢其深은 國際政策에 계급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特定地域에서의 움직임이나 政策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데 있어 단순히 당이 지지하는 社會體制와 이데올로기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행위가 國際緊張을 해소하고 世界平和와 繁榮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은 中共이 特定國家와 關係를 樹立하는데 많은 融通性을 보이고 있는 것이었다. 美·日間의 緊密한 相互協力은 각국이 獨立的인 위치를 고수하였기 때문이다.

中共은 美·日防衛協定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全世界에 걸쳐 美·日同盟이 야기하는 여러효과를 오래전부터 의식하고 있으며 더나아가 日本의 자국방위를 위한 軍事力維持를 인식하고 있다. 1987年 5月 日本防衛廳長官 구리하다가 中共을 公式的으로 訪問한 것은 이런 政策의 가장 최근의 예이다. 蘇聯은 아직도 實用主義를 배격하고 있다. 中共은 美國과 아프가니스탄과 캄보디아紛爭解決에 政治的으로 協力하고 있다. 덧붙여 中共은 美國과 어떤 방식으로든 相互軍事協力을 모색하고 있다. 이점은 고위책임자의 相互訪問, 機能的 軍事交流 그리고 技術交流등에 의해 입증되었다. 와인버거 國防長官에 따르면 美·中共軍事關係에는 3가지 基本原則이 있다는 것이다. 1986年 11月 太平洋艦隊 해군대장 James Lyons은 美·中共間의 協力을 논의하기 위해 북경을 訪問時 "中共의 發展을 위해 中共을 지원할 수 있다고 美國이 생각하고 있는 分野는 여러분야가 있다. 우리는 中共과 LM-2500가스터빈엔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MK-46, MK-32 어뢰발사관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며 또한 병참학, 선박갑판관리, 訓

練方法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美國의 中共에 대한 壓力으로 여기거나, 中共에게 軍事力을 支援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美國이 中共側에 제공하는 것에는 그만한 能力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점은 美國과 美國의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戰略的 이해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日本과 서유럽으로 하여금 現在 中共이 펴고 있는 外交政策에 대해 中共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意味가 있다. 어쨌든 이런 자극과 격려가 그의 주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장차 中共指導部內에서 벌어질 變化에 달려 있다. 韓國, 臺灣, 필리핀의 아시아의 안정에 오랫동안 기여해왔기 때문에 이들 國家들의 民主化를 促進시킬 수 있는 제반조치가 美國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에 아시아지역에 대한 美國의 主要理解關係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이지역의 國際貿易 뿐만아니라 美國과 美國의 同盟에 대한 直接的 위협을 防禦한다.

② SLOC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防禦한다.

③ 美國과 基本的 利害關係를 나누어 가진 여러국가들과 中共이 相互協力을 維持케 한다.

④ 韓半島의 安定을 維持한다.

또한 이지역내의 發展이 現在 페르시아만의 경우처럼 SLOC를 위협할 수 있고 民主化를 방해하고 억압할 수 있는 구실로 사용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지역외부로부터의 위협은 蘇聯에 의해 야기된다. 蘇聯의 현실적 이해는 아시아-太平洋의 平和와 안정을 가져오는 발언과 제안에 의해 다소 희석되고 있다. 極東地域의 蘇聯軍事力은 60年代末부터 70年代初까지 增加하였고,

그후 몇년간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지속하더니 다시 增加되기 시작했다.

軍事力 增加의 第1段階는 분명 中共과 紛爭이 격증한 것과 관계된다. 70年代末 以後로 蘇聯軍事力의 增加는 다만 中共과의 대립에 의해 야기된 것만은 아니다. 이는 美·中·日間의 相互協力이 增大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편이 더 좋다. 이들 國家의 戰略的 利害는 이지역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을 제한하거나 防禦하기 위한 것이다. 1978年 中·蘇會談에서 양국의 外交關係再開를 발표하면서, 또 1978年 中·日平和友好條約에서 찾을 수 있는 반-헤게모니조항은 이들 국가의 이와같은 이해를 강조한 것이었다.

1970年代後半期에 들어 日本은 蘇聯을 潛在的인 威脅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日本은 아시아지역에서 美軍事力 감축에 관해 주목을 하였다.

美國側의 여러 이상한 조치중에서 1977年 5月 카터미대통령이 韓國에서 마지막 미지상군연대의 철수를 결정한 것은 美國이 아시아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더욱 강하게 하였다. 日本에서 만들어 낸 아시아를 떠난다는 뜻의 "Ajio-banare"라는 말은 이와같은 전반적인 雰圍氣를 잘 說明하는 것이었다.

1979年 日本防衛廳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海上輸送路 保護를 任務로 하는 美 第7艦隊의 能力을 감안하여 판단해 볼 때 인도양과 서태평양에서의 도발을 방어할 充分한 能力이 없다. 따라서 蘇聯이 海上航路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데 어려울 것이다."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그들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그 地域에 대한 美國의 이해가 소홀해진 것을 이용했다.

1978年 11월 中共-베트남적대관계를 利用하여 蘇聯은 베트남과 相互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蘇聯은 베트남에 그들의 影響力을 확

대하였다.

1979年以後 蘇聯의 空軍과 海軍은 캄란만과 다낭의 베트남기지사용이 增加되었다. 이후 특히 타일랜드와 싱가포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非共産主義國家들은 蘇聯의 威脅을 의식하게 되었다. 인도차이나에 蘇聯軍을 상존시키는 것을 蘇聯이 그동안 신중히 遂行해오고 있는 政策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蘇聯은 그것을 기점으로 전략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蘇聯이 베트남과 友好條約을 체결함으로써 蘇聯은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을 지원하였고, 蘇聯의 아프카니스탄침공으로 美國·中共·日本 그리고 AS-EAN國家들은 더욱 분명히 반-소련경향이 강해졌다.

만약 蘇聯이 이지역에 그들의 影響力을 增大시키려 한다면 蘇聯은 적절한 同盟을 必要로 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은 막강한 軍事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다소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의 經濟는 빈약하고 거의 전적으로 蘇聯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蘇聯이 베트남에 기대를 건다면, 70年代 蘇聯의 아시아정책상의 失敗를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지만 中共의 協力을 얻는다면 이는 실패를 만회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蘇聯이 中共과의 關係를 더욱 증진하려는 蘇聯의 의도가 설명될 수 있다.

"전아시아회담" 혹은 어떤 形態의 다각적 會談이든지간에 아시아防衛體制에 中共이 참가하거나 지원한다면 모든 이지역 國家들에 의해 協力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르바쵸프는 믿고 있다. 蘇聯은 이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中共이 積極的參與하지 않고서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의 確固한 防衛體制는 樹立되기 어렵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쵸프는 中共에 대해 단일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언급을 하였다. 고르바쵸프는 中共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였고, 양국관계의 向上을 위한 현실적 제

안을 하였다.

소련기관지 프라우다는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방문 기념호에서 아시아의 防衛體制要因으로서 中·蘇關係의 向上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國際政治의 主要問題, 즉 核武器의 일차적 사용금지, 대기권의 군사기지화 반대, 긴장완화의 필수조건으로써 平和政策등에 관해 中·蘇가 보다 緊密한 關係를 維持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共産國家중 유일한 핵보유국인 中·蘇가 Rarotonga條約에 조인한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蘇聯은 中共에 대해 양국이 모두 社會主義의 特性을 공유하고 있음을 특히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社會主義國家임을 강조한 것은 社會主義國家라고 하는점에 있어 어떤 공통적인 의무를 包含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주장배후에 깔린 의도은 분명한 것이었다. 즉 蘇聯은 社會主義國家로서 이데올로기라는 공통된 배경을 강조하여 中·蘇間의 이질화를 극소화하려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美國의 政策에 반대함으로써 中共의 利害를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 노력했다. 이로서 中共은 美·蘇間의 競爭에 있어서 그 主要目標중의 하나이다. 이런 狀況에서 美·蘇 양국에 대한 中共의 협상위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지역에 대한 蘇聯의 또 다른 관심은 이지역의 經濟的 潛在性에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쵸프는 蘇聯 極東地域의 經濟的·社會的 침체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극적전환을 열렬히 모색하였고, 沿岸國 極東地域이 고도의 綜合的 發展을 이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새로운 地域政策" (New Regional Policy)에 관해 언급하면서 "극동지역 發展을 긴급한 主要事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고르바쵸프는 蘇聯極東地域을 최단거리 燃料와 에너지 공급지로서, 그리고 최고의 수출항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특히 그는 외국과의 經濟的 協力의 發

展的 形態를 모색하고 그들 國家들과 生産 및 합작회사의 건립과 같은 相互協力을 증대시키는 것이 그 必要條件임을 강조하였다.

블라디보스톡연설 몇달후인 1986年 7月 蘇聯政府는 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經濟的 관심과 관련하여 발표를 하였다. 이발표에서 蘇聯은 아시아지역의 政治·經濟的 판도형성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것이라는 蘇聯의 성명을 정당화하려 시도하였고 아울러 相互協力이 可能한 分野를 지적하면서 世界的 분업화의 發展을 주장하였다. 그 內容은 핵에너지를 包含해 새로운 에너지 使用에 관한 相互協力, 커뮤니케이션과 운송수단의 發展, 貿易, 經濟, 재정적 協力形態의 發展的 모색, 科學, 技術, 情報의 교환, 平和的 目的을 위한 우주탐사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太平洋共同體를 형성하려는 美·日의 計劃을 비판하고 緊密한 지역그룹을 형성하여 그를 통해 軍事的 블럭을 構成할 의도였다.

蘇聯은 1986年 11月 벤쿠버에서 열린 第5次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蘇聯은 PECC會議를 장차 蘇聯에 유치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르바쵸프가 제안했던 헬싱키방식으로 PECC를 변질하려 했다.

日本과 韓國의 급격한 經濟成長에 차단된, 蘇聯極東地域의 經濟的 침체상태가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해 고르바쵸프가 주도권을 잡으려 애쓰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蘇聯極東地域의 經濟問題의 절박성은 자본과 投資의 할당액을 조사해봄으로써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바이칼호와 太平洋地域發展을 위해 蘇聯이 計劃하고 있는바에 따르면 앞으로 向後 15年間 2,320億루불(3,480億$)이 이지역에 투입될 것이다. 2000年까지 이지역은 에너지의 자급자족과 農産物의 최대생산지로 달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와같은 막대한 計劃은 외국과의 協力을 必要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이 日本의 技術, 資本, 設備에 관심을 특히 集中시키는 것을 당연하다. 오래전부터 蘇聯은 經濟協力에 관한 公式的 長期協定을 체결하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日本 경우는 地域問題에 있어 蘇聯이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協定을 거부하였다. 日本政府는 蘇聯에 한해서는 經濟와 政治의 분리를 반대한다.

또한 蘇聯은 ASEAN國家들과의 貿易을 擴大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와의 貿易擴大에는 한계가 있다.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蘇聯의 經濟 및 戰略的 관심과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남태평양에서의 蘇聯의 活動이 있다.

1985年 蘇聯과 Kiribati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된 바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蘇聯은 200마일 배타적경제무역에서 고가품의 어종을 2천톤정도 획득하기 위해 170만달러를 지불하였다. Kiribati-蘇聯漁業協定은 1986年에 만기하였다. 蘇聯은 다시 Vaunatu와 150만달러에 재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으로 Vanuatu의 排他的經濟貿易에서 8척의 蘇聯漁船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vila항과 Luganvilla항을 使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Aeroflot소련민간항공의 이·착륙권에 관해서는 계속 협상을 벌리고 있다.

1987年 3月 蘇聯外務相 세바드르나제가 호주를 訪問하여 蘇聯이 다만 商業的 관심만을 가지고 있음을 호주측에 재확인시켰음에도 不拘하고 아직 의심적은 면이 남아있다. 이는 蘇聯漁船들이 가끔씩 첩보임무를 遂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蘇聯의 움직임으로 인해 결국 美國은 남태평양지역 漁業聯盟(South Pacfic Regional Fisheries Agency)과 5年契約의 漁業協定을 체결하였다. 漁業聯盟會員局 16개군도국가들을 연2천만$을 지급하기를 요구했으나 12萬$에 타결되었다. 그런데 美國트롤선의 참치어획량은

1億$에 해당하였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위의 協定이 美國漁船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것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의심이 간다. 이지역 競爭에서 蘇聯이 만약 다소간 成功을 한다면 이는 美國의 責任이다. 몇년간 미국참치어선단의 조업행위 해적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멜버른의 "The Age"지는 논술하기를 "남태평양에 대한 美國의 소극적 태도는 美國의 전략상 해로운 것이라는 점을 美國은 오래전부터 의식하였다. 미국참치어선단이 그토록 오랫동안 닥치는대로 조업행위를 하도록 용인된 것을 특별한 경우이다"라고 밝혔다. 美國의 재정이익이 아무리 엄청나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太平洋에서 强大國의 競爭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끝으로 蘇聯은 韓半島의 대립상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77年末頃,동독서기장 호네커가 平壤을 訪問하여 蘇聯의 利害關係에 관해 언급하였다.그는 헬싱키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데탕트의 진전에 관해 說明하였다. 그는 또한 비엔나協定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런 그의 발언은 혹시 蘇蘇이 韓半島에서도 유럽과 비슷한 戰略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야기한다. 호네커의 北韓訪問은 또한 南韓에 대한 金日成의 政策을 자극하기 위해 蘇聯이 지원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만약 蘇聯이 韓半島의 對立狀況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독일모델에 따라 그 發展的 모색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취임한 후 蘇聯은 눈에띄게 北韓과의 關係를 긴밀히 하고 있다. 고위수준의 外交的 접촉은 더욱 빈번하였다. 金日成은 1984年 5月에서 1986年 10月까지 3年도 안되어서 3번씩이나 모스크바를 訪問하였다. 더우기 蘇聯은 미그23기를 北韓에 지원할 것을 밝혔다. 그 댓가로 北韓은 蘇聯에게 蘇聯航空機의 북한영공통과권리를 승인하였다. 한편 航空機의 도

입은 美國이 F16기를 南韓에 배치하겠다는 결정에 따른 反應措置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軍事專門家는 北韓이 空軍力의 균형을 깰 정도로 充分히 空軍機를 보유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1985年 중반에 일차로 미그23기 6대가 배치되었다. 全斗煥 韓國大統領에 따르면 蘇聯은 1986年初까지 26대의 미그23기를 배치했으며 앞으로 50대가 더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蘇聯이 南·北韓의 對立을 심화시키려하지는 않을 듯 싶다. 초정밀무기의 공급을 통해 蘇聯에게 北韓을 더욱 의존케 하며, 北韓에 대한 그간의 蘇聯의 제한된 影響力을 增加시키려는 手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쨌든 狀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 論理的으로 볼 때 韓半島에서 美國, 中共, 蘇聯은 軍事的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또 다른 軍事的 紛爭을 야기시키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政治는 항상 論理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南·北韓關係의 發展은 美國, 蘇聯, 中共의 태도여하에 좌우될 것이다. 韓半島은 앞으로 美·蘇 양국의 가장 예민한 競爭地域이 될 것이다.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蘇聯의 관심을 정리하자면, 蘇聯은 다음과 같은 점을 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① 美國, 中共, 日本 그리고 이들의 聯合에 의한 어떠한 威脅도 防禦한다.

② 中共과 美國의 關係를 약화시키고 아울러 中·蘇關係 및 中共과 其他 社會主義國家間의 關係를 강화시킨다.

③ 이지역내의 國家들의 財政, 技術, 엄청난 經濟的 潛在力을 利用하고 아울러 이지역내의 政治, 經濟構造에 參與한다.

④ 韓半島 緊張激化나 韓半島가 美國의 영향권안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變化도 방지한다.

⑤ 美國과 정면대결의 威脅을 피하면서 가능한한 美國의 影響을 감소시

키고 또한 이지역내에 戰略的 위치를 강화한다.

美·蘇兩國의 이지역에 대한 利害關係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中共은 美·蘇競爭에 있어 가장 예민한 對象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蘇聯의 두 가지 軍事問題 즉 베트남에 대한 계속적인 軍事支援, 北韓에 대한 蘇聯影響力의 擴大등은 蘇聯이 中共과 政治的 關係를 改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Ⅲ. 機構와 機會

美·蘇兩國은 그들의 이해를 표출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치선상에 政治的 도구로 軍事力을 배치시킬 수 있다. 蘇聯의 가장 특징적인 군사기지는 太平洋艦隊이다. 1930年代 편성된 太平洋艦隊는 1970年代初에 우선적으로 강화되었고 현대화되었다. 일본소식통에 따르면,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120만톤에 750척의 군함을 보유하였다. 이런 수치는 전소련해군력의 1/4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985年에는 178만톤의 835척의 군함을 보유하였다. 이는 4개의 蘇聯艦隊중 그 規模에 있어 가장 큰 것이었다. 1974年에서 1985年까지 이함대의 강화는 (톤으로 계산하여) 全日本海軍自衛隊의 두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제7함대 보다 더 規模가 큰 것이었다. 1979年 4,000톤급 항공모함 "민스크"가 太平洋艦隊에 배치된 후 1984年에는 같은 톤급 항공모함 "노보로시스크"가 강화, 배치되었다. 결국 蘇聯의 4개항공모함중 2대가 블라디보스톡에 주둔한 太平洋艦隊에 배속되었다. 2대의 항공모함은 수직이착륙형으로써 規模가 더 큰 미항공모함과는 競爭되지는 않는다. 더우기 蘇聯太平洋艦隊는 核推進潛水艦 70대를 包含해 140대의 潛水艦을 보유하고 있다. 최신에 공격용잠수용 Akula가 太平洋에 배속되어 있다. 1984年以後 Rogov와 Ropcher의 두함선에 의해 공격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日本防衛廳資料에 따르면 蘇聯의 초정밀초계정이 極東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日本의 분석가는 소련상선이 유사시 군함으로 전용될 수 있을 可能性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보상 日本의 큰 실수는 Ishikawaji-ma-Harima會社가 블라디보스톡에 80,000톤급 양륙도크를 建設해 준것이다. 이 사건은 Kiev급 항공모함중 1척이 極東에 배치되기 바로 전인

1978年에 있었다. 이 도크의 전략상 중요성은 명백하다. 즉 이를 통해 蘇聯의 太平洋艦隊중 최대규모의 함선이 정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소련본토의 기지에서 함선의 수선이 可能하게 된 것이다.

蘇聯이 太平洋艦隊를 배치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蘇聯은 極東地域의 空軍力을 現代化시켰다. 現在 蘇聯戰鬪機의 80%가 (미그23기, 미그27기, Su-24기) 極東地域에 배치되어있다. 또한 蘇聯의 아시아지역에는 85대의 백파이어폭격기(Tu-22M)가 배치되어 있으며, 약 160개의 SS-20 미사일이 또한 이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막강한 軍事力 배치에도 不拘하고 이에는 장애요인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極東地域의 6個의 蘇聯海軍基地는 3～8個月期間 얼어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볼 때 1975年에 美國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캄란만의 전략상 중요성이 4배이상 增加되었다는 美國側 보고이다. 즉 당시에는 캄란만에 2個의 부두가 있었으나 지금은 7個가 있다는 것이다. 西方軍事專門家들은 美國의 2個太平洋艦隊(第7艦隊와 第3艦隊)가 질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第3艦隊 責任區域은 캄차카반도에서 美國의 서해안에 이르는 中·東太平洋地域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베링해, 북극해일부, 그리고 남극대륙동쪽경계지역인 남태평양까지 包含되는 區域이다. 결국 아시아전해상과 알라스카 원유수송로가 모두 第3艦隊責任하에 있게 된다.

미제7함대는 西太平洋과 南西太平洋, 인도양 責任區域으로 하고 있다. 6대의 항공모함이 이 두함대에 배속되었다. 또한 267대의 군함, 2,000대의 戰鬪機, 800대의 潛水艦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막강한 軍事力은 필리핀에 駐屯하고 있는 수빅만와 클다크空軍基地에 所屬된 많은 전진기지를 위해 매우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만약 필리핀국내의 政治的

소요사태로 인해 이기지를 상실케 된다면 이는 美國이 전략상 매우 심각한 후퇴를 하게되는 것이다.

Kemp博士가 이를 지적하기를 "戰略上으로 볼 때 이 기지들은 남중공연해에서 일어나는 제반움직임에 대한 감시기능을 遂行하고 아울러 蘇聯의 베트남駐屯軍의 增加狀態 및 西方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緊張狀態에 대해 현지에서 감시기능을 遂行할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1980年代 이전까지만해도 美國은 海軍力에 대한 경시해 왔다. 太平洋艦隊 사령관 Foley는 海軍力에 대한 경시는 결과적으로 美海軍이 海上에서 철수하여 육지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레이건行政府가 들어서면서 이와같은 경향은 일소되었다. 太平洋艦隊의 軍事力을 감안하여 사령관 Foley는 2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太平洋艦隊의 任務中 가장 중요한 것은 戰爭防禦能力에 있다. 만약 전쟁억제력이 붕괴된다면 두번째로 蘇聯海軍을 擊破시킬 수 있는 艦隊體制를 완비하는 것이다. 이런것은 시급한 目標인바, 1次的으로 방어책을 펴고 이것이 失敗하면 2次的으로는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政治的 접촉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막강한 蘇聯軍事力을 배치시킴으로 야기되는 INF問題의 쟁점은 유럽의 그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여론은 蘇聯의 威脅을 공통적으로 모두 느끼고 있다. 예를들면 日本은 西方同盟國과 보다 긴밀한 접촉의 움직임을 보이기로 결정하였다. 아마 이와같은 조치들로 인해 蘇聯은 이지역에서의 美國의 위치를 붕괴시키기 위한 政治的 이니시어티브를 잡으려 하였다. 이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어떤 蘇聯指導者를 보다도 고르바쵸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보다 綜合的인 제안을 하였다. 그는 이지역내에서 軍事行動의 최대한 감소를 위해 5가지사

항에 관해 언급하였다.

①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韓半島에서의 地域的 軍事對立

② 核武機의 통제와 감축

③ 재래식무기와 軍隊의 감축

④ 艦隊行動의 감소

⑤ 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s)

核武機에 관해 그는 아시아에서 더이상의 核武機를 增加하거나 예치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으며 南太平洋地域을 非核地帶로 선포하였고 또한 韓半島 역시 非核地帶로 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그는 在來式武器와 軍隊를 적정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임을 밝혔다. 그는 이 問題를 가지고 中共과 협상하려 하였다. 艦隊活動의 축소는 다음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즉 핵무장군함과 對 潛水艦武器, 對 潛水艦活動禁止區域의 설정에 關聯된 것이라는 점이다.

CBM에 따라 蘇聯指導者는 太平洋航路 防衛問題와 같은 보다 간단한 問題부터 시작하기를 제의했다. CBM에 관한 論議와 실천을 위해, 고르바쵸프는 소련해안도시중 한곳에서 회담할 것을 제의했다. 이런 고르바쵸프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非核武裝, 艦隊活動의 제한, 항로통제와 같은 것이 蘇聯軍보다는 美軍의 活動을 보다 제한할 수 있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는 美海軍의 配置領域 및 活動領域이 蘇聯海軍보다 더 廣範圍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고르바쵸프의 非核武裝戰略은 특히 南太平洋에서의 美國의 지위를 붕괴시키려는 조치로 나타났다.

Rarotonga 南太平洋非核地帶條約에 관한 사항에 조인하지 않기로 한 美國의 결정은 호주측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나타났다. 共産國家중 유일하게 핵보유국인 蘇聯과 中共이 이 條約의 제 2 항과 3 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호주외무상 Bill Hayden의 말을 인용하자면 "美國이 이 조항을 거부한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다.

이 條約과 각 조항은 사전에 美國과 充分히 상의되었고 美國의 利害關係를 신중히 감안하여 작성되었으나 美國이 이를 거부한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太平洋艦隊 해군대장 Ronald J. Hags는 그 條約에 조인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이유는 이지역에서 美軍事的 利害에는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 條約은 이지역을 핵무장함선이 단지 통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南太平洋에서의 美軍事作戰에는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美國의 그 같은 거부결정의 주요이유는 처음부터 南太平洋地域의 非核地帶化를 반대했던 프랑스와의 關係를 고수하기 위해서 였다. 프랑스는 그들의 核實驗을 Mururoa地域에서 실시하기를 원했다. 美國의 이와같은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蘇聯은 南太平洋地域에서 막대한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아시아대표자료회의 의장인 Stephen Solari는 지적하였다. 이와같은 선전효과로 곧 바로 그 結果가 나왔는데, Moresby에서 Papua New Guinea는 公式的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美國의 거부는 南太平洋國家들로 하여금 漁業活動에 있어 蘇聯을 보다 더 우호적인 태도로 접하게 만듬으로써 1987年 1月 蘇聯과 Vaunatu간에 漁業協定을 체결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다.

Kiribati 고위책임자가 호주의 Baiteke에게 "우리는 美國과 友好關係를 맺고 있는 國家들이 現在 무엇이 야기되고 있는가를 매우 주의깊게 주목할 것이라는 점을 믿는다"라고 발표하면서 비슷한 反應이 보였다.

Kiribati가 1986年 蘇聯과의 1年間의 漁業協定을 갱신하는데 반대했음에도 不拘하고 호주의 Baiteke는 蘇聯과 협상을 재개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불행히도 美國은 太平洋에서 美國의 政治的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器具인 Rarotonge條約을 利用하지 못했다. 美國은 고르바쵸프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제의한 제안에 대해 公式的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백악과 아시아-太平洋擔當 Gaston Sigur와 미국무상 George Shult는 이지역에서의 美國의 政策에 관한 고르바쵸프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그들의 발언은 美行政府의 實際政策과 矛盾되었다. 만약 美國이 아시아-太平洋地域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政策을 세우고 있다면 그것을 把握하기는 힘들다. 관측통들은 美國이 軍事問題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확실히 이 問題들은 이지역의 防衛에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軍事上, 政治上, 經濟上의 利害關係가 각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政治的 결정은 이러한 相互聯關性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美·蘇間의 경쟁양상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최근 蘇聯이 아시아지역내에서 MRBM의 감축을 제의했음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軍事力 강화의 可能性은 매우 높다.

蘇聯이 經濟協力에 관해 더이상의 제의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헬싱키 방식의 會談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展望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根本的 차이가 그런 會談을 開催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會談이 열 可能性도 있다. 1985年 10月 美國, 蘇聯, 日本은 1983年 9月 蘇聯이 한국여객기를 격추시킨것과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北太平洋全域에 걸쳐 비상연락망체제를 구축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第1段階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조짐은 韓半島에서 찾을 수 있다. 韓半島에서 美·蘇의 競爭은

감소될 것 같지않고 앞으로 오랫동안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요인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中共海軍과 空軍力의 강화현상으로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즉 다시말해 CBM 協定과 防衛體制에 關聯된 問題에서 中共이 제외되고서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意味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蘇聯과 바르샤바 條約機構와의 關係

Jens Hacker
(레겐스 부르그大 敎授)

Ⅰ. 序　　文

1945年 3月 11日, 蘇聯共産黨書記長에 就任한 고르바초프는 역대 蘇聯指導者들에 의해 수행되어져온 한가지 難題를 떠맡게 되었다. 여러 蘇聯의 同盟國들은 레오니드 브레즈네브로부터 뉴리 안드로포프 더 나아가 콘스탄틴 체르넨코에 이르기까지 많은 蘇聯指導者의 변화를 겪는 가운데, 外交政策과 관련하여 同盟國의 관할권확대를 보게 되었다. 이와같은 外交政策上의 변화 움직임은 모두 그들 國家들이 西方世界에 대해 갖고있는 諸般國家利害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특히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東獨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브레즈네프時代이래로 經濟沈滯로 인해 구성된 COMECON (the Council For Mutural Economic Assistance : 相互經濟協力會談) 의 發展問題와 현재 蘇聯經濟의 狀況은 蘇聯指導者를 매우 염려케하고 있다. 1953年 3月 5日 스탈린의 死亡 이후 蘇聯共産黨과 國家指導者의 변화와 이에 수반된 蘇聯의 外交政策과 블럭政策을 考慮해 볼 때 共産陣營보다는 西方陣營이 더 樂觀的인 조짐을 보일 것 같다. 고르바초프는 1978年에 농무상에 임명되었고, 1979年에는 政治局員이 되었으며, 1980年 10月에는 最高幹部會議에서 브레즈네프時代의 終熄을 경험하였고 아울러 聯邦最高소비에트 幹部會議에 들어가면서 蘇聯政策의 諸般問題들에 대한 풍부한 안목을 갖게 되었다. 前任蘇聯指導者들과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는 유럽의 同盟國家에 대한 블럭政策을 신중히 遂行함으로써 바르샤바條約 7個國으로 구성된 社會主義同盟의 瓦解를 막으려 하였다.

바르샤바條約國間의 새로운 發展側面을 分析하기에 앞서, 우리는 고르바초프이전 2名의 전임자가 구상하였던 블럭의 槪念부터 다시 집고 넘어가야

겠다.

유리 안드로포브는 그가 행한 몇몇 演說에서 블록의 중요성을 言及하면서, 블럭의 강화를 통해 완전한 國家經濟構造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例를들면 실제로 안드로포브는 1982年 4月 22日 레닌 탄생 112週年 記念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어떤 社會主義國家든지 그나름대로의 독특한 國家, 歷史, 文化上의 特性을 가지고 있다. 蘇聯共産黨은 이점에 대해 다시한번 우리당의 立場을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당은 人民들에 의해 성립된 國家形態가 가장 이상적인 國家形態라는 점과, 아울러 그것은 國家利益 및 그 傳統과 一致되어야 한다는 점을 믿고 있으나, 社會主義 社會體系의 原則과 階級構造 및 國家本質과 같은 社會體系의 基本은 모든 國家나 民族이 同一하다고 본다."

1983年 6月 15日 蘇聯共産黨中央委員會에서의 연설에서 안드로포브는 社會主義世界의 槪念上의 多樣性과 複雜性을 강조하였는 바,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 社會主義國家들은 그 나름대로의 國家發展의 過程 및 方法 더 나아가 經濟, 文化面에서 뚜렷이 독특한 特殊性을 갖고 있는 바 언젠가 우리가 모든 國家들이 同質化되어 가고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각국의 現狀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그의 이런 發言에 의해 혹 그를 同盟國들의 同盟離脫現狀과 같은 결과를 계속 방지하기위해 社會主義의 世界主義原則을 주장하였다. 이 原則은 友邦으로서 國家相互間의 協力과 支援을 하며 이와 동시에 國家는 그 고유의 主權國家로써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드로포프는 政治的으로 相互協力結束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 바르샤바條約機構는 중요한 機構가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와 덧붙여 앞으로 이런 相互協力은 각국의 特殊利益뿐만 아니라 각 國家가 當面한 問題解決에도 도움이 될것이며, 이와

동시에 條約國간에 공통적으로 확립된 일반노선에 따라 條約國간의 立場과 現在의 위치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데 蘇聯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밝혔다. 고르바초프는 안드로포프가 이미 강조한 바 있는 새로운 水準의 經濟結束强化를 강조하면서, 相互經濟協力會談을 통해 經濟協力의 강화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이런 結束이 강화되면 될수록 全世界的인 擴大와 그 效果性이 增大될 것이라 展望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附加的 效果는 同盟國 人民間의 非物質分野에서의 접근, 歷史的 共同運命體 및 하나라는 동질감의 증대, 文化交流의 擴大등과 같은 精神的 영역에서의 交流擴大등으로 보고있다.

안드로포프후임자인 체르넨코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社會主義同盟에 대한 言及에서 明確하고도 細分化된 블록의 槪念이나 그 槪念의 명제화에 대해 言及하지 않았다. 체르넨코는 "社會主義 및 共産主義構造는 매우 복잡한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발전과정이다. 특히 이것이 全世界的으로 격렬한 階級鬪爭의 분위기속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폴란드事態를 통해 우리는 階級鬪爭이 黨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人民들의 소리를 매우 주의깊게 傾聽하는 당기능의 擴大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심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Ⅱ. 고르바초프의 블럭政策

고르바초프는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書記長으로 취임한 직후 蘇聯의 國內政策 및 外交政策에 관한 그의 政治構想을 밝혔다. 1985年 3月 11日 蘇聯共産黨中央委員會演說에서 그는 "國家發展過程上 國家經濟의 劃期的 轉換點을 이룩해야한다. 이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經濟體制의 確立과 一貫性있는 國家指導體系의 樹立이다. 이는 根本的인 改革이 아닌 現存하는 體系能力의 向上을 통해 가능하며, 蘇聯指導部의 能率性을 提高시키고 아울러 그 現代化에 의해 可能하다"고 밝혔다.

社會主義同盟(Socialist Community)과 관련하여 고르바초프는 "黨과 國家 양쪽 모두에게 요구되는 最優先課題는 友邦國과 同盟國 즉 모든 社會主義同盟國들과의 긴밀한 友好關係를 維持·擴大하는 것이다. 우리는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相互協力增進과 그에 있어서는 우리 蘇聯의 役割增大, 그리고 社會主義 汎世界化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措置를 講究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1985年 3月 13日 그는 "우리黨은 同盟國들과의 相互協力增大, 그리고 社會主義의 世界主義原則에 따라 國際問題에 대한 同盟國의 地位向上을 위해 할수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1985年 4月 23日 蘇聯共産黨中央委員會에서의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다음과 같이 보다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同盟國과 相互協力保障, 모든 同盟國과 國內問題 및 國際問題解決에 있어 相互有機的 連繫體制樹立등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同盟國과의 다각적인 關係結束强化 및 相互協力增大 그리고 國家防衛, 이데올로기, 政策, 經濟面에서의 協力등이 그 중요한 課題가 될 것이다."

Ⅲ. 바르샤바條約의 연장

黨書記長으로서 고르바초프는 社會主義同盟에 대한 최초의 공식발표에서 블럭에 대한 새로운 명확한 槪念規定과 같은 새로운 立場을 밝히지 않고 다만 일상적인 관심사만을 言及하였다. 同盟國家의 指導者들은 곧 고르바초프가 그들 國家의 요구의 特殊性과 個別性을 특별한 유보조항없이 받아들이려하지 않으려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國家利益과 安全을 위해 蘇聯活動領域의 境界를 명확히 規定하지는 않았다.

8個國條約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던 동유럽블럭의 다면적 軍事組織을 계기로 1955年 5月 14日에 체결된 條約國相互間의 協力, 友好, 支援에 관한 바르샤바條約이 1985年 6月 23日에 만기하는 것에 대한 言及을 고르바초프는 회피하였다. 이는 모든 條約國이 그 조약의 연장에 대해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條約國간에 조약연장기간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인데, 즉 소련이 向後 20～30年間으로 잡고 있는데 비해 루마니아는 그 기간이 가능한 短期間이기를 원하는 가운데, 폴란드,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條約延長期間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1985年 4月 26日 폴란드수도에서 열린 바르샤바 7個國代表者會議에서 향후 20년간 연장하며 필요한 경우 10年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고르바초프의 立場이 貫徹되었다. 여기서 고르바초프는 동유럽 軍事同盟의 政治的 機能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였다.

1985年 5月 루마니아가 과거 2年間 軍事費를 增加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쵸우세크의 發表內容에서 1985年 4月 26日 이후 루마니아가 유보조항없이 蘇聯의 軍事政策에 동조치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쵸우세크는 덧붙여 바르샤바條約國家들의 防衛費를 年 10～15%선으로 減縮시킴으로써 NATO會員國 및 다른국가로 하여금 이 水準까지 防衛費를 減縮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Ⅳ. 1985年 宣言

1985年 4月 26日 바르샤바條約의 연장에 대한 합의 이후 고르바초프는 블록에 대해 별다른 意思表明을 회피하였다. 東獨問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떠나, 蘇聯은 社會主義同盟體制內의 同盟國들과 노선에서의 이탈정조가 일치해야 한다는 중요한 問題에 대해 분명한 立場을 보이지는 않았다.

O.Wladimirov가 1985年 6月 21日 蘇聯共産黨 機關誌 "프라우다"에서 한 論評에는 어떤 언급도 없었으며, 다만 체코와 불가리아만 언급하였다. 다만 그는 1985年 4月 23日 蘇聯共産黨人民大會에서 고르바초프가 한 演說內容을 언급하면서 모든 同盟國은 그들 國家問題 및 國際分野와 관련하여 有機的 紐帶關係를 형성해야함을 주장했다. 그는 同盟國간에 있어 政治的 相互協力體制의 완전한 확립, 高度의 새로운 經濟的 結束, 현 블록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同盟國人民간에 精神的 접근 강화 등을 지지하면서 더불어 同盟國간의 結束을 瓦解하려고 계속적으로 술책을 부리는 帝國主義者들을 비난했다. 지금까지 階級의 적은 軍國主義로 간주되었으며, 적어도 프롤레타리世界主義는 어떤 형태든 "절대주의"를 배격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同盟國에 대한 어떤 확약이나 蘇聯의 블록에 대한 立場이 反映되어 있지 않은 이와같은 分析과 見解는 곧 명확히 규정되어야 했다.

"New Time"은 1985年 9月號에 용어상의 융통성을 주장한 저명한政治評論家 Nikolaj Schischlin의 記事를 실었다. 그는 거기서 社會主義國家間에 有機的 相互利害關係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각 社會主義國家는 自國의 發展을 위해 여러면에서 독자적인 社會主義路線을 걷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또 여러국가의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의 社會主義建設을 遂

行하는데 있어 어떤 유일하고 특정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社會主義發展이라는 一般原則下에 각국의 國家的·歷史的 특수성을 부분적으로 가미시키는 것이 요청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結論짓기를 "결국 오늘날 社會主義世界에는 각국의 고유특성, 國家的 特殊性, 그리고 社會主義建設方法과 그 형태에 있어서 가지각색의 영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로 인해 社會主義國家間의 긴밀한 相互協力이 妨害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만약 共産主義者와 勞動者側에 의해 추구치는 목표가 동일한 것이라면, 모든 政治問題에서 社會主義國家들간의 관계가 항상 일치하지 않고, 더우기 때때로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어 왔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問題를 提起하면서 共産主義者들은 社會主義國家들이 당면한 國內問題 및 國際問題에 있어서 諸般利害를 同一化하는 方法을 습득해야 하며 이점에 있어서 고르바초프는 그 역대 전임자들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까지 社會主義同盟의 發展過程에서 이에대한 명확한 解決策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Ⅴ. 第27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의 發表文

1985年末 蘇聯共産黨의 새로운 政策案이 발표되었다. 社會主義同盟에 대해 어떤 새로운 立場이나 약속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西方分析家들의 예상이 맞았다. 이 政策案은 1986年 2月 25日에서 3月 5日까지 진행된 第27次 黨大會에서 발표된 政策修正案, 고르바초프의 政治報告書, 그리고 會議決定案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 政策案에서 1977年 蘇聯憲法이 담고 있는 社會主義同盟에 관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보레즈네프 憲法" 第39條에 의하면 "蘇聯은 世界社會主義體制 및 社會主義同盟의 宗主國으로서 社會主義의 世界主義原則에 입각하여 社會主義國家와 友好的으로 相互協調할 뿐이니라, 友誼와 協力을 增大·發展하고 아울러 經濟的 結束과 世界社會主義의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새로운 憲法 第30條에 따르면 蘇聯은 社會主義同盟과 社會主義體制에서 宗主國임을 표방하고 있다.

世界社會主義體制에 속한 모든 바르샤바條約國과 相互經濟協力 會談을 포함한 社會主義同盟이 소련입장에서 볼 때 모두가 동일한 것만은 아니라는 조심스런 立場을 示唆했다. 이점과 함께 고르바초프는 브레즈네프가 1976年 2月 24日 第25次 黨大會와 1981年 2月 23日 第26次 黨大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세계사회주의체제형성에 참여하는 社會主義同盟國을 실제적이든 명목적이든 제한했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속한 국가로서는 알바니아와 中共을 포함해 비동맹노선을 보인 유고슬라바키아, 라오스, 북한이 이에 속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蘇聯共産黨의 새로운 政策案의 原則과 目標가 바르샤바條約 7個國으로서의 社會主義同盟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相互經

濟協力會談國 10個國의 社會主義同盟에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世界社會主義體制 전체국가에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르바초프는 이데올로기적 결속보다는 外交外이고 보다 탄력성있는 路線을 걸음으로써 그 역대 전임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1987年 1月 27日 蘇聯共産黨의 軍事政策 및 당개편에 관한 연설, 1987年 4月 10日 체코방문시 행한 연설, 第27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 행한 연설등 그의 주요연설에서 역대 指導者들이 전통적으로 레닌思想을 인용한 것과 달리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問題解決方式을 지양하였다.

社會主義同盟에 관한 蘇聯共産黨의 새로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가운데 광범위한 용어상의 融通性을 담고 있다. 즉 "社會主義의 世界主義는 社會主義同盟을 통해 그 완전한 구현을 보고 있다. 相互經濟協力會談國과 바르샤바條約國들로 구성된 이 동맹에 속한 모든 國家는 각국의 기본적인 國家利益과 汎國家的 相互協力에 있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아울러 國際問題에 대한 그들 국가의 행동노선에 있어 相互協力을 추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정한 일국에 의해 특권을 누렸던 국가동맹체는 없었는 바, 국가간의 동맹이란 다만 일국과 일국간의 相互關係인 것이다"라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蘇聯共産黨의 새로운 政策에서가 아니라 第27次 黨大會에서 고르바초프가 발표한 中央委員會報告書에서 고르바초프가 각국 共産黨의 相互協力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구성하려는 의도가 言及되었다는 점이다.

1986年 2月 25日 社會主義同盟國의 精神的 交流 및 結束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국 共産黨間의 행동노선의 일치가 각국간의 정치적 협력에 가장 중요한 核心이다. 이에 각 국가간의 協力形態는 修正·補完되어야 한다. 同盟國家의 最高政治責任者間에 다각적으로 會談을 갖는것

이 국가간 협력에 있어 中樞的 裝置이며, 이런 會談을 통해 각국은 社會主義構造 및 國家的·外交的問題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友好的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蘇聯이 黨內에 정책에 대한 지지자뿐만 아니라, 이에 적절한 자각적인 장치를 갖고있지 못하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겠다.

1947年 蘇聯,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유고, 이탈리아, 프랑스 共産黨으로 구성되었으며 1956年 4月 17日 스탈린繼承者에 의해 해체된 바 있는 코민포름은 共産陣營內의 근본적 변화에 관련하여 고르바초프에게 더 이상의 그 유용성이 상실되었다. 코민포름은 주로 스탈린과 티토가 1948年 부카레스트에서 결별한 후, 모스크바에서 사전검열받고 베오그라드에서 최초로 출간된 "For Permament Peace, For Peoples Democracy"에서 표명된 스탈린과 政治路線을 수행하는데 기여했었다.

고르바초프는 명백히 그의 政治構想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바르샤바條約과 相互經濟協力會談만을 지도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야에서의 協力과 合意를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이다.

Ⅳ. 外交 및 블록정책상의 協力機構로서 바르샤바條約

처음부터 고르바초프는 그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社會主義同盟國 間의 外交政策과 블럭政策에 있어서 相互協力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 바르샤바同盟國間에 政治的 機構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덧붙여 여러바르샤바條約내의 기구들은 軍縮問題와 安保問題에 있어서의 蘇聯의 路線을 추구하고 그 加入國의 승인을 위한 장치로 존재한다.

고르바초프가 취임하기전인 1983年 1月初에 프라그에서 고르바초프의 주재하에 열린 바 있는 政治顧問團委員會는 東유럽軍事同盟의 주요 정치기구이다. 그당시 발표된 政治聲明書에서 회의참가자들은 현유럽내에서 政治的·軍事的 판도를 결정짓는 諸般協約과 協定을 확실히 고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그들 國家들에 의해 공동으로 체결되었던 헬싱키宣言의 원칙과 규정을 강조하였고, 실제로 그 原則과 規定을 고수하려 하였다. 바르샤바條約 政治顧問團委員會가 고르바초프 취임후 처음으로 1985年 10月 22日～23日 소피아에서 열렸을 때 모든 참가자들은 蘇聯의 새로운 지도자가 과연 어떤 자일까하는 의혹을 갖고 기대했다. 소피아에서 체결된 고르바초프의 政治路線을 대표한 이 회의의 성명서에는 蘇聯의 外交 및 安保政策의 강화에 會員國들과의 공동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 고르바초프의 의도가 나타나있지는 않았으나, 이 성명서는 軍費制限과 여타 國際問題에 관한 蘇聯의 입장을 支持하였다. 이 성명서의 많은 부분에서 고르바초프이전의 역대 蘇聯書記長들이 사용했던 用語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성명서는 각국가가 그들의 國家問題와 國際問題에서 행동노선을 일치하고 이를 기초로 모든 분야에서 相互協力의 能率性을 增大해야함을 줄곧 언급하고 있다. 이에 참가자들은 社會主義와 共産主義의 발전

도상에서 相互協力交流를 증대하고 同盟國間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유지하며, 아울러 政府와 議會, 宗教, 社會, 事業者團體間의 활발한 접촉을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같은 聲明書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밝혀진 것은 고르바초프 자신이 바르샤바條約國들의 政治體系 및 社會體系의 發展과 또 바르샤바條約의 발전을 위한 諸般合意와 決議와 같은 바르샤바條約의 政治機構機能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5年 11月 21日 프라그에서 바르샤바條約國 最高代表者會議가 제반문제에 대한 相互協議를 위해 열렸다. 이 會談에서 고르바초프는 美國大統領 레이건과 갖은 제네바頂上會談의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밝혔다. 이 會談에서 참가자들은 복잡한 國際關係, 社會主義同盟國의 聯合 및 結束, 階級間의 단결,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相互協力增大에 관해 협의하였다.

1986年 3月 19日～20日 바르샤바外相會議에서 第2次大戰의 결과로 성립되었고 지금은 전후 유럽의 平和와 安全에 전제조건인 현상태의 政治·軍事的 판도 및 국경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또한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國際關係下에서 바르샤바條約國間의 聯合과 結束이 특히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1986年 6月 10日～11日 부다페스트에서 東유럽軍事同盟 政治顧問團委員會가 열렸다. 이 회의의 코뮤니케는 1985年 10月 23日의 소피아성명을 논의하면서 바르샤바條約國間의 聯合과 結束强化와 함께 蘇聯의 블럭政策에 관한 중요한 언급을 하는 가운데 諸般 政治的·軍事的 問題들을 논의하였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이 코뮤니케에서 강조된 점은 人民들의 安全保障, 核戰爭危險의 제거, 軍費縮小의 성취, 世界平和의 증대를 위하여 이미 합의된 바 있는 外交政策路線에 있어서의 協力과 그 實現, 그리고 國際問題에 있어서 실질적인 相互協力을 增大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1987年 3月 24日～25日 개최된 바르샤바條約國家 外相들의 모스크바會議

에서 바르샤바條約國 間의 聯合과 結束의 確立을 보장하는데, 신임 蘇聯指導者 고르바초프가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찾을 수 있다. TASS통신에 따르면 회의참가 外相들은 점점 그 성과가 높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社會主義同盟國家의 共同路線이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이니시어티브를 향상하게 될 外相會議의 성과에 만족함을 밝혔다.

고르바초프는 外相會議의 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社會主義平和政策을 통한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아울러 점점 복잡해져가고 있고 世界體制에 대한 對應策을 실천하기 위하여, 外相會議가 社會主義同盟國家의 外交活動에서의 相互協力增大를 위한 중요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會議의 활동성과 실행성을 한층 강화시켜야함을 주장하였다.

Ⅶ. 蘇聯介入主義의 存續

西方側에 의해 일명 "브레즈네프 독트린"이라고 불리우는 蘇聯의 간섭주의에 대해 고르바초프가 1986年 2月 25日 第27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 발표한 그의 보고서에서나 그가 書記長으로 취임한 후 처음 발표한 그의 발표내용에서 별다른 명백한 言及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방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가 암암리에 이런 간섭주의를 撤回했을지도 모른다고 보고있다.

확실히 蘇聯의 간섭주의에 영향을 받고 있는 國家들은 점점 이점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見解는 1986年 6月 30日까지는 지배적이었다. 1985年 12月 14日字 프라우다는 政治的 側面에서 뿐만아니라 국제업적차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1958年 8月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적용에 대한 반대와 아울러 反革命 및 國家간의 關係正常化에 관한 論評을 揭載하였다. 이와함께 蘇聯科學院과 國際運動勞動機構는 공동으로 "勞動階級과 現代社會"라는 글을 1985年 9月, 10月에 발표하면서, 社會主義의 世界主義(Socialist Internationalism)의 본질에 대한 解析이 점차 歪曲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社會主義國家들의 結束이 위로부터 명령되거나 강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즉 社會主義의 世界主義에 대한 歪曲된 해석에 의해 世界主義의 本質을 下位水準의 槪念으로 特性化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例는 社會主義國家의 獨立性에 대한 승인원칙이 그 上位槪念으로서의 국가간 결속의 從屬槪念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은 글이 부적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고르바초프에게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대한 새로운 槪念設定을 할 것이 요청되었다. 1986年 3月 中旬 蘇聯外相 세

바르드나제가 공식적으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폴란드지도자에게 "同盟國의 社會主義將來에 대해 蘇聯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은 폴란드의 安全을 위해 폴란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굳은 意志의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확언하였다.

1986年 6月 30日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연합노동당 第10次黨大會演說에서 고르바초프는 社會主義同盟의 존속과 바르샤바條約國의 社會主義體制와 관련된 입장에서, 蘇聯의 블록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의혹을 명백히 해결하였다. 그가 점차 변형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社會主義同盟國家의 제한된 獨立性에 대해 蘇聯의 간섭주의를 발표했을 때 상황은 명백히 되었다. 그의 發言內容을 보면 "社會主義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人民들은 이제 社會主義없이는 삶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점은 社會主義建設이 실현될 수 있음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다. 社會主義體制를 威脅하고, 외부로부터 이를 崩壞하려는 시도 그리고 社會主義同盟에서 이탈한 국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人民의 意志와 전후 世界秩序와 平和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蘇聯이 1986年 9月 19日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럽에서의 安保와 軍縮協定의 합의사항에 調印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회의에서 合意된 事項을 보면, 유럽각국은 武力的 威脅이나 무력행사를 排除하고 이를 실현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다. 따라서 武力的 威脅이나 무력행사의 복귀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시조도 이 原則을 위반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것이다. 이 協議案 第15項은 1975年 8月 1日 유럽安全 및 相互協力會談 최종협정안 즉 "協定調印國들은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政治·社會·經濟·文化體系를 떠나, 그리고 어떤 나라와 同盟을 맺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武力的 威脅이나 行使를 하지 않는다"의 原則을 능가하는 내용이다. 이 條項은 브

레즈네프 독트린과는 반대로 광범위하게 불가침원칙에 관한 이전의 協定들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와같은 第15條項은 명백히 相互友好的으로 관계를 樹立하고 있는 國家間에 있어서 武力의 行使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1986年 9月 19日 이전에 행하여진, 蘇聯의 간섭주의가 國際法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社會主義同盟國家中 어느 일국이 社會主義路線에서 이탈하는 경우 蘇聯이 독단적으로 軍事的 措置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國家를 社會主義路線에 복귀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는 蘇聯의 블럭政策과 蘇聯이 社會主義體系의 守護者라는 점에서 그 역대 전임자들과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바, 社會主義國家가 社會主義建設을 보호하는 것은 그 一般的 任務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지도자는 사회주의 건설의 不改變性 原則을 천명하였지만, 社會主義國家의 同盟離脫問題에 대한 回避로 인해 소련이 질서의 수호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성문화를 꺼리게 되었다.

Ⅷ. 結　　論

고르바초프는 用語의 融通性을 고도로 이용하고 한편으로는 극적인 發言을 회피하는 가운데 蘇聯의 블럭을 유지하려고 희망하고 있는 듯하다. 1987年 4月 10日 프라그연설은 友好的이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행하여 졌으며 거기에서 蘇聯의 블럭政策에 관한 종래의 立場을 고수하였다. 다른 어떤 演說에서도 고르바초프가 相互經濟協力會議 會員國이 蘇聯經濟의 현대화계획에 참여할 것을 그들의 義務로 강력히 규정한 적은 없었다. 고르바초프는 프라그연설에서 현재 유럽社會主義同盟國이 西方과의 무역을 존속하고 확대하려 하고 있음과 아울러 그들 國家들이 이를 계기로 경제적 현실에 더욱 관심이 높아가고 있어 그들이 蘇聯의 요구에 종속치 않으려 한다는 점을 밝혔다. 新任 蘇聯共産黨指導者는 社會主義同盟國들이 蘇聯의 영향권에서 어느정도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과 또 1987年 3月 10日에 고르바초프가 "社會主義 國家內의 누구도 特定國家에 대해 명령을 내릴 權限을 갖고 있지 않다. 각국 共産黨은 獨立性을 갖고서 그 人民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울러 自主的 主權體로서 자국의 발전을 圖謀할 權利를 갖고 있다. 이는 本質的인 原理인 것이다"라고 밝힌 바, 그를 國家나 다소간의 자유재량권을 획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單一政黨이 獨裁的 權限을 가질 수 없음은 진리이다. 물론 蘇聯은 그들 國家가 그들의 友邦과 特定한 관계를 樹立하는 가운데, 社會主義世界의 건설에 유용한 모든 措置를 강구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들 國家들의 人民들은 또한 고르바초프가 프라그연설중 言及한 "蘇聯內에서 일고있고 諸般變化들은 社會主義의 根本的 基礎와 社會發展에 절대

적으로 필요한 諸般措置와 一脈相通하는 것이다"라는 그의 단언을 감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고르바초프의 제반발언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다. 그는 항상 블럭의 構造, 發展, 觀點과 특히 同盟國의 블럭 原則에 관해 언급하였고, 각 同盟國家가 터무니없는 挑戰을 하는 위험스런 狀況을 제외하고선 그 전임자들과는 달리 보다 더 融通性있고, 부드러운 방법을 통해 蘇聯이 同盟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폴란드,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政治指導者들은 확실히 경솔하게 판단을 내리는 몇몇 서방관측통에 비해 고르바초프發言의 진의를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한다. 相互經濟協力會議의 활동이 고르바초프의 構想에 따라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조짐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고르바초프의 構想이 蘇聯黨內에서 제도화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끝으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르바초프가 同盟國家들에 의해 이미 合意된 共同路線을 현실화하기 위해 바르샤바條約 外相會談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注視해야할 점은 1987年 3月 24日~25日 會談에서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바 있는 社會主義同盟國家들의 活動性과 實行性을 提高시켜야 한다는 發言이 앞으로 어떻게 展開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울러 바르샤바同盟國들은 고르바초프가 軍縮問題, 安全保障 및 美國과의 관계와 같은 最高水準의 政策에 관해 蘇聯의 역대 지도자들 보다 그들에게 더 많이 통보하고 있다는 점을 意識하고 있다.

蘇聯의 對인도네시아와 아세안 政策

Karl Kinderman
(뮨헨大 敎授)

Ⅰ. 蘇聯의 對 동남아시아 政策의 대두

蘇聯의 外交政策의 범주속에 동부아시아를 包含한 것은 이미 레닌시대 말기부터였다. 원래, 레닌과 그 當時 볼셰비키 指導者들은 社會主義 革命이 比較的 落後된 러시아 地域에 한정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러시아 革命은 하나의 歷史的 불꽃(Hiforical Spark)으로 우선적으로 作用할 뿐이라고 믿었다. 러시아革命은 革命의 불꽃을 點火시켜 곧 高度로 工業化될 國家 예를들면, 독일, 프랑스, 영국 또는 미국처럼 산업프롤레타리아트가 現地人口中의 實質的 勢力을 형성한 國家로 革命의 熱氣를 擴散시키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독일의 몇몇 地域과 헝가리에서 短期間 發生한 革命的 시도를 제외하면, 볼셰비키운동은 오직 러시아 한나라에만 국한되었다. 더군다나 볼셰비키와 그 追從勢力은 그들의 國際的 組織機構인 코민테른(Comintern)으로써 世界革命을 主導할 것임을 全 世界에 천명하였다. 그리고 세계혁명은 우선 旣存의 모든 社會-經濟體制 및 國家機構를 전복하고 最終的으로는 세계사회주의소비에트 聯邦共和國을 建設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볼셰비키들은 共産黨은 세계 어느 地域에 있든지 간에 제3코민테른의 一員으로 義務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 의무란 各 地域 共産黨은 共産主義 全體利益을 위해 各地域 고유의 이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即, 地域利害와 신생소비에트국가의 利害가 상충될 경우 언제던지, 世界革命의 中心인 신생소비에트국가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支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볼셰비키는 이렇게 全世界에 革命과 러시아 中心的 사고방식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신생소비에트국가가 自身이 敵對的 國際環境에 놓여져 있음을 알게된것을 전혀 예상외의 일이 아니다. 레닌은 이런 威脅的인

狀況에 直面해서 새로운 生存戰略을 發展시켰고 그것을 蘇聯外交 政策으로 삼고자 했다. 레닌은 "우리가 世界征服을 達成하지 못하고 있고, 또, 資本主義 國家보다 軍事的으로나 經濟的으로도 약한것이 사실인 한, 우리는 帝國主義國家間의 敵對感과 모순을 이용하는 方法을 拾得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탈린이 規定한 바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3대모순은 아래와 같다. 1) 1次大戰 勝戰國과 敗戰國間의 矛盾, 이를 이용한, 蘇聯과 바이마르독일 사이에 協助와 關係改善을 가져온 政策이 있다. 2) 勝戰國사이의 모순, 주로 極東에서 美·日의 對立, 유럽에서 미와 서방지도국간의 대립이 있다. 3) 植民地 또는 예속국 흔히 第3世界에서의 産業國家帝國主義와 반제 民族獨立運動사이의 對立이 있다. 이런 모순을 바탕으로 새로운 슬로간이 제기되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와「第3世界」의 피억압자들이여 團結하라!" 共産黨宣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슬로간은 올바르지 않다고 레닌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共産黨宣言이 쓰여진 當時의 狀況과 現在狀況은 전적으로 다르다. 現時代 政治의 觀點에서 보면, 이 새로운 슬로간은 올바른 것이다."라고 力說한다. 바로 이런 脈絡에서 高度로 發達한 工業國家에서 기대되던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說明된다. 그 이유는 이런 國家들이 여전히 植民地를 갖고 있고 그런 까닭에 天然資源을 非正常的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거대한 輸出市場을 維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국가에서 大衆이라고 해도 生活水準은 매우 높다. 그러나 植民地, 反植民地에서 革命이 일어나 植民帝國을 파괴된다면, 이런 사정은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이제부터 世界革命의 勝利는 先進國家에서 共産黨主導의 프롤레타리아革命과 이에 先行하는 第3世界에서 民族革命 비프롤레타리아勢力 主導의 반제혁명간의 相互上昇作

用으로써 나타나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소비에트 및 다른 코민테른 指導者들은 매우 現實的이어서 동아시아의 國家 및 다른 개도국에서의 共産主義運動은 여전히 매우 規模가 적고, 政治的으로 약세란 것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들 地域에서 반제혁명의 서막은 브르조아 民主主義나 民族的 革命 勢力이 주도하리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들地域에 있어서 共産黨은 自體의 理念的 組織的 獨立性은 유지하라 民族革命勢力을 支援하도록 교시받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비프롤레타리아 同盟勢力이 "내일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銘心해야 한다는 교시를 받고 있었다. 부연 설명하자면, 民族解放勢力을 共産黨이 支援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該當地域에서 革命運動의 指導權을 놓고, 民族革命勢力과 競爭할 수 있을 만큼 共産黨이 强力해지면 支援은 끝난다. 그러므로 , 共産黨은 한편으로는 民族革命運動과 勢力 協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革命運動勢力을 속이고 그 指導權을 분열시켜야 한다. 주장래 해당지역의 革命運動內에서 權力獲得作業을 원활히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에 있어서 첫번째 共産黨인 Pers Erikaten Kommnis di India는 일찌기 1920年 5月 23日 인도네시아에서 創黨되었다. 그러므로 이 黨은 다음해 創黨된 中國共産黨보다 앞서 창당된 것이다. 新生 인도네시아 共産黨은 전에 社會民主協議會에 속했던 會員과 급진 이슬람聯盟 會員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급진이슬람聯盟은 분열되었던 또한 분리된 분파인 人民聯盟은 共産黨과 密接한 협조관계를 갖었다. 인도네시아 共産黨은 1921년 코민테른에 가입했으며 1926年末 자바에서 그리고 1927年1月 수마트라에서 大規模 暴動을 主導했다. Tan Malaka 와 다른 主要 黨 指導者는 네덜란드 植民當國이 이들 反亂을 鎭壓하는 데 성

공하자 곧 체포되었다. 共産黨은 1945년에야 재건되었고, 그후 1965년이 되서야 비로소 인도네시아 政治에서 重要한 役割을 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共産黨은 共産黨이 집권하지 않은나라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共産黨으로 發展하였다. 1965年에 共産黨의 쿠테타가 실패하고 流血 抑壓을 받기 전까지, 中·蘇紛爭의 초기 段階에 있어서 Nusantara Aidit지도하에 인도네시아 共産黨은 우선적으로 친-중공적 노선을 추구했다.

모스크바의 立場에서는 비공산주의적 民族 革命 勢力과 위에서 言及한바의 일시적 협조를 이룬 가장 重要한 국가는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었다. 중국에서는 손문이 國民黨을 創黨했다. 손문은 中華民國 및 革命的 근대화 運動의 創始者였다. 그는 建設的인 中·蘇 협조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카리스마적 影響力을 오늘날까지의 中國政治의 많은 部分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손문은 러시아 및 중국 共産黨에 오직 明白히 規定되고 한정된 役割만을 要求하였다. 형식상 이것은 모스크바에 굴욕적인 것이었다. 손문은 最初의 中·蘇和解(Entente)의 기초문서 이른바 1923년 1월26일의 손문-요페 공동성명을 要求했다. 蘇聯代表團은 손문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중국에서 공산주의나 심지어는 쏘비에트체제도 構築될 수 없었다. 이 歷史的인 資料의 4항에서 요페는 다음 사항을 明白히 宣言하게 된다. 현 러시아政府는 외몽고에서 帝國主義政策을 持續할 의도 및 중국으로부터 외몽고의 獨立을 애써 주장할 의도가 현재 없으며 이전에도 없었다. 4항에서 蘇聯은 짜르정부가 중국을 강박하여 締結한 모든 條約 및 러시아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할 의사를 새로이 밝혔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문과 그의 國民黨은 엄격하게 實用的인 同盟을 추구했다고 볼 수있다. 그들은 동맹을 中·蘇가 공동 적에 대항한 鬪爭에 있어서 公共利益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시켜 나갔다. 그들은 蘇聯으로 부터 무기자금, 그리고 諮問을 받길

원했으나 共産黨 이데올로기는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中國共産黨은 國民黨에게 훌륭한 同盟相對로서가 아니라 支援組織으로서 간주되었다. 즉, 共産黨指導者는 國民黨의 組織的, 이념적 규율에 따르기 위해 國民黨과 합세할 뿐이었다. 모스크바의 極東代表는 共産黨指導者의 꺼려함을 克服해가면서 國民黨에 충성을 언약하도록 했다. 비록 中國共産黨은 상기한 코민테른 戰略에 따라 第4次 코민테른 회의에서 그들이 國民黨과 合作하는 이유는 상대를 속이고 이들을 분열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손문이 死亡한 後 國民黨은 1926년 7월 중국남부에 광뚱으로부터 유명한 북벌을 개시했다. 북벌은 地域에 할거하는 分裂指向的 軍閥에 對抗하여 中國統一을 이루고자했다. 1926년 말에 그들은 양쯔강 남안의 중국 동남부의 대부분을 占領했다. 이러한 進行中에 中國共産黨은 革命運動內部에서 優位權을 掌握하는 데 成功했다. 共産主義者들은 國民黨의 指導權을 變形시켜 國民黨左派와 中國共産黨이 擔當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의 최대 港灣都市인 상해에서 50만 무장 勞動爭議構成員의 支援을 받는 이른바 상해콤뮨을 樹立시켰다. 1927년 3월 22일 프라우다지는 意氣揚揚하게 다음의 기사를 싣고있다. "革命的 상해는 현재 중국판 '페트로그라드'로 되어가고 있다." 即, 共産主義者가 全體革命運動을 그들의 헤게모니하에 掌握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온 트로츠키의 妥當한 反對와 警告에도 不拘하고, 스탈린은 1927년 4월 5일 "장개석과 우파들은 마지막까지 이용되어야 한다. 그들은 레몬즙처럼 쥐어짜고 난후 버려져야한다."고 當時 狀況에서는 지당한 설명을 했다. 그런데 7일 후에 장개석은 상해콤뮨을 파괴하고, 난찡에 中國共産黨과 쏘비에트諮問團이 參與하지 않은 전적으로 國民黨勢力만의 政府를 樹立하여서 모든 狀況을 역전시켜 버렸다. 4달후에 中國共産黨과 蘇聯諮問團은 왕정위지도하의 國民黨左派와의 同盟에서도 또한 축출되었다. 共産主義

者들이 사태의 조류를 돌려보려는 필사적인 노력은 다만 엄청난 패배로 귀착되었을 뿐이다. 1927년 말에 中·蘇間 外交關係가 斷絶되었다. 따라서 蘇聯이 中國에서 試圖했던 막대한 投資와 努力은 영원히 상실되었고 새로운 적으로 부상한 장개석지도하의 國民黨政權이 수립되어버렸을 뿐이다. 회고해 보자면, 1927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쏘비에트 外交政策에서 스탈린이 經驗한 최대의 재앙적인 패배인것으로 보인다. Dieter Heinzig같은 몇몇 學者들은 스탈린이 이 사건으로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고 주장한다. 이 충격의 여파로 그는 2次大戰末의 황금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동부아시아 地域에서 어떤 主導權도 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짧고도 극적인 첫번째 中·蘇和親(Entente)의 歷史는 베트남共産黨의 등장으로 가장 큰 影響을 받게된다. 베트남共産黨의 뛰어난 창시자이자 組織者인 호지명은 1890년에 태어났다. 그는 "처음에 나를 레닌과 제3인터네셔날 이끈것은 共産主義가 아니라 나의 愛國心이었다."고밝힌바 있다. 호지명은 1920년에 그가 처음부터 植民地問題 專門家로 活動한 프랑스공산당 黨員으로 가입했다. 이 당에서 그는 이른바 植民地 地域間 聯盟을 組織했다. 이미 1923년 胡는 프랑스를 떠나 러시아로 갔다. 그는 거기서 새로이 結成된 적색농민인터네셔날의 常任幹部會의 一員으로 活動했다. 그는 1924년 6월과 7월에 코민테른 第4次會議에 參席하였고, 코민테른의 국제적 기관지에 기고를 했다. 中國南部에서 蘇聯大表團의 公式'通譯官'으로 그는 1924년 12월에 광동을 다녀갔다. 여기서 그의 目的은 동남아시아에서 共産主義運動을 組織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그는 러시아의 支援을 받은, 國民黨이 指導한 국공합작과 손문시대가 결실없이 지나쳐가는 것을 보았다. 또 中·蘇和親과 中國統一戰線의 재앙적인 분열상도 목격하였다. 이런 經驗으로부터 그가 얻어낸 主要한 結論은 革命的運動은 비록 잡

다한 集團間의 同盟的 共産主義的 民族革命勢力이 아니라 共産黨에 의해 行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25년 胡志明은 베트남青年革命家 協會를 組織했다. 協會內에 共産主義 핵심분자는 Tan Viet로 불리는 特別한 集團에 組織되었다. Tan Viet는 "청년"이라 불리는 주간지를 펴낸 최초의 베트남共産主義組織이었다. 1927년 10월 27일 모스크바의 특별한 지령에 基礎하여 호는 1930년 2월 3일에 홍콩에서 會議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는 새로이 創黨된 베트남共産黨에 통합된 여러 급진적 베트남組織體들이 모였다. 코민테른의 指令으로 당의 이름은 곧 '인도챠이나共産黨'으로 바뀌었다. 이 새로이 創黨된 黨은 인도네시아共産黨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결성된 두번째 당이었다. 이 당의 프로그램은 소위 民族改革黨과는 어떤 협력에도 反對하고, 그들과의 斷乎한 鬪爭, 農村소비에트의 建設과, 土地改革의 단행 그리고 승리한 社會主義國家인 蘇聯의 수호와 支援을 要求했다. 그러나 쏘비에트통일전선전술노선에 따라 베트남共産主義者들은 1941년 5월에 몇몇 비공산주의 集團을 包含하여 廣範한 統一戰線組織을 결성했다. 非共産主義 集團은 베트남獨立聯盟이라 자처했고 후에 그 베트남약어인 베트민(Viet-Minh)이라고 國際的으로 알려졌었다. 중국에서 호지명이 體驗한 바를 되살려서, 베트남 共産主義者들은 이 集團化過程에서 사실상의 指導的 位置를 보유했다 히틀러가 돌발적으로 蘇聯을 급습하여 獨·蘇가 對立을 노골화하자, 몇몇 제한이 제거되었다. 일찌기 모스크바와 베를린의 協力과, 베를린과 프랑스 비시정권과의 협력은, 베트남共産主義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即, 프랑스 및 帝國主義와의 鬪爭이 蘇聯의 全面支援을 받을수 없었다. 그러나 獨·蘇戰爭으로 인해 베트남은 太平洋戰爭의 잔여기간동안 베트남住民을 反帝國主義勢力으로 보다 광범하게 규합했고, 美·中國과 接觸을 모색하면서 프랑스 뿐만 아니라 日本과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인도챠이나에서 日本統制

가 崩壞되면서 마련 될 광범한 政治的 기회의 底邊을 準備할 수 있었다.

Ⅱ. 日本의 降服으로부터 베트남 武力統一까지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나고 蘇聯은 東아시아에서 새로운 勢力形成役割을 맡게되었다. 새로운 狀況中에서 重要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3대국 祕密決定의 結果로 中國利益을 존중하여 쏘비에트는 첫째 중국의 외몽고에 대한 사실상의 宗主權을 종식시키고 둘째, 1945年 蘇聯軍이 占領한 中國東北部(만주)의 주요항구와 철도에 대해 확고히 統制하고 세째, 北韓 사할린의 南部와 쿠릴성을 統制하고 占領할 권리를 얻게되었다. 더군다나 蘇聯이 中國東北部를 掌握할 수 있었기 때문에 蘇聯은 中國內戰에 中國共産黨이 유리하도록 무기, 資金支援, 軍事訓練, 技術的 원조 그리고 임시적 지역방어 등으로 介入할 機會를 얻었다.

1945년 하노이에서 베트민이 베트남의 獨立을 宣布했다. 이는 蘇聯의 어떠한 直接的 支援없이도 모스크바 指令下의 共産黨이 直接的 影響力을 行事하면서, 中共의 建國보다도 앞서서, 最初의 동아시아共産國家를 建設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베트남을 民族主義界 中國人이 占領하고, 남베트남을 英國이 占領한 短期的인 幕間후에 1946년 프랑스는 인도챠이나반도에 植民强國으로 재등장했다. 1946년 말에 프랑스에 대항한 베트민의 8年間의 獨立戰爭이 改展되었다. 蘇聯은 隣近中國에서 모택동 主義的 勝利에 확실히 고무되어있었다. 따라서 호지명의 베트남民主共和國政府를 1950년 1월 31일 즉, 中共政府가 베트남政府를 公式 승인한지 4일후에, 外交的 承認을 許容하였다. 베트남政府는 모스크바에 忠誠을 보여주었으며 티토의 유고를 제외한 중국에서 모택동이 승리하자 1950년 2월 14일 中·蘇同盟條約이 締結되었다. 共産黨이 支配하는 國家의 靈域이 서쪽으로는 獨逸中心部와 오스트리아로 부터 동쪽으로는 통킹만과 西太平洋에 이르기 까지 擴大되었다.

그러나 동부아시아에서 美國의 본래적인 不介入 戰略은, 예를들어 남한과 대만에서의 철수는, 韓國戰爭을 계기로 劇的轉換을 이루게 된다. 西太平洋에서 美國의 不介入戰略은 封鎖戰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한에 대한 軍事的支援, 北韓에 대한 일시적 占領, 中國人民共和國과 대만의 中國民族主義者間에 進行되는 중국내전에 대한 새로운 介入, 그리고 트루만 大統領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베트민에 맞서 프랑스 植民主義 戰爭을 物質的으로 支援하도록한 決定등이 잇달아 이뤄졌다. 1951년 美國은 샌프란시스코에서 平和條約을 맺었던 日本과 防衛條約을 매듭지음으로써 中蘇同盟 및 韓國戰爭에 대해 反作用했다.

當時 蘇聯에서는 스탈린이 死亡하고 후르시초프가 權力을 獲得하였다. 이런 權力核心의 變化는 蘇聯의 外交政策戰略에 대단한 變化를 가져온 主要要因이었다. 새로운 蘇聯指導部는 蘇聯과 西防과의 接近을 현저하게 긴밀히 했다. 그리고 스탈린과는 대조적으로 蘇聯外交政策利益의 增進을 위해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결과물은 1953년 韓國休戰에서 보여준 蘇聯의 役割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955년 유럽에서 蘇聯이 오스트리아 중립을 收容하고 고무시켰으며, 1955년 1956년 중근동지역에서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를 支援하자는 提案을 했다. 1955년봉 반둥에서 開催된 第1次 아프리카 아시아회의를 非同盟勢力이 主導한 것에 蘇聯은 감동을 받았다. 蘇聯은 미국의 유라시아의 共産黨支配國家陣營을 封鎖同盟의 연결망을 통해 포위하려는 戰略을 갖추고 이에 對應할 도구로서 非同盟 또는 중립주의의 이데올로기적 行動을 活用하고자 努力했다. 1955년 겨울 후르시초프는 외상불가닌을 동반하고 호의적으로 인도와 버마를 방문했다. 이때 그는 中華人民共和國, 인도, 그리고 蘇聯이 全世界的 勢力 形態에 있어서 "위대한 아시아의 三位一體"를 形成하고자 要求했다.

제1次 인도차이나 戰爭을 解決하기 위한 제네바 협정은 이런 새로운 政策이 活用될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蘇聯이 우선적으로 關心을 갖은 것은 프랑스의 공감을 얻는 일, 蘇聯의 平和愛好를 과시하는 일 서독의 NATO가입을 방지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제네바會談에서 蘇聯外交는 베트민의 利益을 희생시키는, 基本的으로 타협적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런 論理上의 脈絡에서 중공도 蘇聯의 妥協的 제스쳐를 支援하였다. 그러자 베트남지도부는 심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들은 디엔 비엔 푸에서 베트민의 승리 이후에 만약 社會主義 陣營이 支援했다면, 특히 중공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베트민은 전 베트남을 해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불만은 明視的으로는 중공만을 겨냥한 것이지만 묵시적으로는 蘇聯에 대한 불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도차이나 問題에 대한 제네바 會談이 거둔結果에 蘇聯은 公式的 讚辭를 나타냈다. 蘇聯은 제네바 會談은 양편에서 호의만 있다면 國際協商의 成果가 있을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이며 이런방식으로 아직껏 解決하지 못했던 重要한 國際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力說하고 있다.

中蘇紛爭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북베트남은 양대공산국의 중재를 시도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북베트남은 초기에는 자국에서 兩國으로부터 物資 및 其他 支援을 維持하고자 했다.

그러나 1963년 북베트남은 中共에 경사되기 시작했다. 1954년 인도차이나問題에 대한 제네바회담에 불만을 가졌고, 남베트남에서 政治的 現狀維持가 變化할 기회를 認識했다. 북베트남은 후르시쵸프의 일반노선인 소위 平和共存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베트남의 1964년 1월 사태에 대해 북베트남당의 Hoc Tap저널은 모스크바의 平和共存論에 明白히 反對하였다. 저널은 남베트남인민은 美國側이 平和를 위해 정직히 노력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論爭을 벌였다. 또한 북베트남인들은 平和的方式으로 베트남統一을 達成하기 위해 帝國主義 陣營에 대한 社會主義陣營의 社會·經濟的 經濟에서 승리할때까지 15년이나 20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蘇聯의 平和共存論과는 대조적으로 남베트남 해방과 韓國統一을 위해 유일하게 올바른 方法은 공격적인 武力鬪爭이라고 주장했다. 북베트남 黨과 政府가 취한 基本的인 決定事項은 1964년 1월과 7월사이에 북베트남에서 發行된 일련의 論文들에 잘 나타나 있다. 거기에 다음의 事實들이 주장되어있다. 남베트남 해방은 오직 폭력으로만 達成될 수 있다. …이 變革은 大衆이 革命的行動과 暴力을 使用해서만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 條約이나 協定 따위로 可能한 것이 아니다. 분단된 베트남의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치더라도 오직 攻擊的 戰略만이 帝國主義를 굴복시키고 全世界 革命運動의 强化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북베트남 지도부는 주장했다. 美帝國主義와 소위 대협력을 부르짖고, 그들과 協定이나 하면서 戰爭을 피하려는 政策은 公公然한 이상주의일 뿐, 마르크스-레닌주의세계관과는 양립할 수 없는 非 革命的 政策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論文은 모두 분단베트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확한 方法으로 最終的 手段인 人民戰爭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論文은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위기발발에 앞서 發行되었다. 북베트남에서 中·蘇間의 基本立場에 이런 變化가 생기자 蘇聯은 북베트남에 대한 支援을 축소시켰고 반면, 中共은 支援을 增加시켰다. 중공은 통킹만위기 때 강경한 어조의 성명을 發表했다. 중공은 "베트남 民主共和國에 대한 어떠한 침략도 곧 중공에 대한 침략이다."라고 發表했다. 그러나 蘇聯은 비록 美國의 해적식 方法을 비난했지만 베트남을 위해 소련이 어떤 직접적 介入의 準備를 하고있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은 이 위기문제를, 그때까지 여전히 대만이 중국을 代表하던 유엔安全保障委員會에서 討論

할 것에 동의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蘇聯은 베트남분쟁이 美國과 북베트남간의 전쟁발발로 點火되기 시작할 當時, 아시아 東南部 및 東部地域의 共産黨中 대다수로 부터 고립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인도네시아, 버마,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日本共産黨 모두 이 시기에 中共共産黨이 주장한 기본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두가지 事態發展 때문에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그들이 초기에 취했던 양대공산국간의 상대적 중립을 역전시키게 되었다. 첫번째 사태는 중국에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文化大革命이 勃發하고 그 때문에 中國政治內部에 無秩序·混亂이 나타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베트남 자체의 問題다. 북베트남은 美國이 空中暴擊 및 空中戰을 고조시키자, 이에 대항할 수 있는 蘇聯武機體系를 점차 必要하게 되었다.

인도챠이나 반도에서 美國의 패배는 1973년 1월 27일 파리休戰協定에서 비롯하였고 東南亞 國際政治史에 전환점으로 기록될 1975년 4월말 베트남의 전면적 패배로서 단락지워졌다. 이 地域에서 세력재배치 및 國家間關係의 새로운 構成은 5가지 主要事態發展에 의해 性格지워진다. 첫째는, 통일베트남의 東南亞 國家中에 軍事最强國으로 등장했고 隣近國家인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도 共産黨이 權力을 掌握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태국의 外交的 壓力에 따라 美國은 美國基地를 제거했고 태국에서 軍事力을 철수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美國은 東南亞半島에서 마지막 지역발판을 잃게 되었다. 세째는 태국과 필리핀의 提案에 따라 1975년 9월에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가 해체되었다. 네째, 蘇聯은 상기 3가지 進前이 東南亞에에 蘇聯의 位置를 强化시킨 要素로 간주했다. 그러나 사실 蘇聯은 1971년과 72년에 닉슨과 모택동이 주도한 美·中關係改善 및 그 직접적 부산물인 中·日關係改善을 주의깊게 목도해야 했을 뿐이다. 다섯째, 그러나

蘇聯의 指導者들은 1975년 5월 쿠알라룸프르 그리고 1976년 2월에 파리에서 開催된 ASEAN회의의 결과에서 유리한 인상을 받았다. 이들 국제회의에서는 ASEAN과 共産 베트남이 급속하고 영구적인 妥協과 관계정상화를 맺는것이 ASEAN의 利益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우기 필리핀은 非同盟運動에 보다 密接히 接近하려는 조치와 자국의 領土에서 美國의 해군및 공군기지를 철수하게 하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Ⅲ. 새로운 勢力配置에서의 變化와 갈등

1975년 말부터 東南亞地域에 위기가 고조되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종종 격렬한 軍事衝突을 했다. 이 衝突은 캄보디아가 베트남의 인도챠이나에 대한 패권적 야심을 알게된 점과 兩國間 國境紛爭에서 비롯되었다. 중공도 수천명의 중국인교포가 베트남으로부터 추방된데 대하여 중공의 副首相 등소평은 1978년 6월 5일 베트남에 經濟援助를 단절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베트남은 중공으로부터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까지 전부 200억 Yuan가치의 경제원조를 받았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COMECOM의 會員이 됨으로써 中共의 壓力에 반발을 보였다. 마침내 베트남은 1978 6월 30일 COMECON에 가입했다. 그 當時 이 蘇聯主導의 COMECON은 부카레스트에서 會議가 있었다. 다음 달에 중공은 日本과 6年동안 끌어온 中·日 友好平和條約協商에 서명날인함으로써 外交的 成果를 거두었다. 이 協商은 蘇聯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소위 반패권주의조항은 실제로 蘇聯 膨脹主義의 위험에 대항할 의미를 갖고 있었다. 한편, 蘇聯은 1978년 11월 3일 종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던 베트남을 설득하여 소련-베트남 友好協力條約을 締結하는 데 成功했다. 이 條約에서 同盟의 性格은 다음과 같은 4項의 용어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 "條約締結國中 일국이 攻擊 또는 공격위협의 對象이 될 경우 또다른 條約締結國은 相對國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기 위해, 적절하고 效果的인 相互協議를 강구하고 위협을 제거할 相互協議를 즉각 개시 할 것이다."

이 條約과 함께 6個의 經濟協力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條約은 러시아나

蘇聯이 東南亞 國家와 締結한 최초의 同盟條約이었다. 이 條約은 중국의 傳統的 競爭國인 러시아와 베트남이 중국의 남과 북에서 同盟을 맺음으로써 中國을 협공하게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자 중공은 1978년12월 15일에 미국과 共同聲明을 發表하면서 極東外交 파워게임에서 응수를 했다. 또, 1979년 1월 1일 美國과 中共間 外交關係가 完全 정상화 되었다. 美國은 中共이 종래문제시하던 미국과 대만과의 外交關係를 중단 했다. 美國은 民族主義的 中國體制와 同盟條約을 파괴했고, 대만섬에서 미군 잔여 병력을 철수시켰다. 美·中 共同聲明은 1972년 2월 28일 주은래와 닉슨간의 상해共同聲明에 이미 包含되어 있었던 반패권주의 條項을 재언급 했다. 베트남은 美·中正常化에 대해 10日 後에 응수했다. 베트남은 새로운 蘇·越同盟條約카드를 使用하여 1978년 12월 25일 캄보디아를 攻擊함으로써 東西亞 세력구도를 變化시켰다. 2주일 후인 1979년 1월 7일 베트남군은 프놈펜을 정복하였고, Heng Samrin 친베트남政府를 세웠다. 중공은 1979년 1월 7일자 신화일보를 통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것은 베트남의 地域的 覇權主義와 蘇聯의 全世界的 覇權主義의 合作이라고 비난하였다. 반면, 크레르 共産政權에 대해 자생적 캄보디아 勢力이 革命을 일으켜 全國을 해방시킬 狀況이었고 반박했다. 蘇聯은 이어서 브레즈네프와 코시킨의 명의로 친베트남 프놈펜 政府에 祝賀電報를 보냈다. 여기서 蘇聯은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占領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고, 캄보디아 政府가 社會主義를 향한 평화롭고 獨立的이며 民主的이고 非同盟적 發展을 하도록 蘇聯이 支援하겠다고 제의하고 있다. UN安全保障委員會는 1979년 1월 15일, 캄보디아에서 "外國軍隊"가 철수할 것을 要求했다. 소련도 이 제안에 기꺼이 찬성표를 냈다. 그러나 중공은 事態를 베트남과 蘇聯 膨脹主義의 合作으로 認識했고 이에 대한 반응을 베트남이 프놈펜을 占領한

지 37일 만에 보였다. 이는 鄧小平이 그의 美國訪問을 成功的으로 마친 바로 직후였다. 中國共産黨 軍事委員會는 4일간의 協議 後에 베트남 북부 地域에 大規模 징벌군을 파견하기로 決定했다. 1979년 2월 17일 중공은 大規模 攻勢를 시작하여 이미 베트남 國境을 넘어선 25사단을 支援했다. 中共의 政策決定者들은 中共이 베트남 北部地域에 大規模 軍事 공세를 취한다면, 베트남이 캄보디아 占領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계산착오로 판정되었다. 中共의 공세는 베트남정부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오히려 2월 27일 兩軍이 勝利를 자처하는 가운데 中共軍은 철수해야 했다. 中共이 베트남에 공세를 가한 다음날 베트남 政府와 친베트남 캄보디아 政府는 相互平和, 友好, 協力의 條約을 締結했다. 이 條約 第2項을 보면, 兩國은 條約 당사국의 主權, 統一 그리고 領土保全에 어떤 위협이 있을 경우 상호방위원조한다는 內容이 적혀있다.

그런데, 베트남과 서방, 특히 베트남과 美國의 關係는 蘇聯의 대 인도차이나政策에 特別한 問題였다. 美國과 베트남은 1973년 1월 27일에 休戰協定을 締結했다. 동 협정 第21條를 보면 美國은 베트남 및 모든 인도차이나 國家들 經濟 재건에 기여할 의무를 갖는다라는 內容이 지적되어 있다. 또 동 협정 第8條에는 兩 協定 당사국은 戰爭中 실종된 兩國 市民과 軍人의 生存을 確因하고 이를 위해 相互協力하는것이 의무라는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1976년말 개시된 美國-베트남 直接接觸의 과정에서 베트남측은 1973년 2월 1일 미국 닉슨大統領이 베트남 首相 Phaw Van Dong에게 보낸 비밀서한을 言及하였다. 그 서한에는 닉슨大統領이 5년내에 총 35억 달라상당의 원조를 베트남 경제재건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內容이 있었다. 이 원조는 美國과 베트남의 共同決濟 委員會의 管理를 받아야 하는 規定이 있

었다. 그러나 닉슨과 키신저는 任期가 지났고 베트남은 休戰協定의 모든 條項을 파기했다. 이렇게 事態가 進行되자 美國은 1973년 大統領이 했던 약속을 現政府가 尊重해야 할 법적강제나 도덕적 義務도 없어졌다. 1976년 11월 15일 安全保障委員會 他會員國의 반대와는 달리 美國은 U.N의 베트남 承認에 찬성표를 냈다. 外交關係委員會에 앞서 行한 當時 동아시아太平洋擔管次管補 홀브르크는 重要한 聲明을 發表했다. 그는 이 聲明에서 인도차이나문제에 관한 美國의 目的을 밝혔다. 그것은 첫째 캄보디아의 비참한 상태의 '종식', 둘째, 베트남에서 蘇聯의 軍事的 支配를 감소시키고 장차 제거하겠다는 것, 그리고 세째, 캄보디아로 부터 베트남군을 철수시킨다는 것이었다. 더우기 그는 태국 國境線에 있어서 베트남의 軍事的壓力을 제거시키겠다고 밝혔고, 美國은 1977년이후 ASEAN을 동남아시아에서 美國外交政策을 재건할 中心地로 삼는다고 하여 말했다.

美國은 이 東南亞機構 國家들과 密接하고 直接的 協助關係를 지속시킬 것이다. 캄보디아에 있어서의 平和는 다음 두가지 條件이 갖춰져야 可能할 것같다. 하나는, 캄보디아 政府構成이 중공뿐만아니라 베트남도 納得할 수 있게 構成되어야 하며 둘째 중공과 베트남이 相互間의 위협을 깨달아 勢力均衡을 이루는 데 있다.

한편, 日本은 1969년 부터 1979년 사이의 期間에 ASEAN諸國에 先進國이 投資한 總 投資額의 44%를 充當하고 있었다. 이는 美國의 24%와 比較하여 볼 때 상당한 액수이다. 1977년 8월 日本은 소위 "후꾸다선언"의 形態로 다음의 事項을 공표하고 있다. 첫째, 日本은 지속적으로 ASEAN諸國과 政治, 經濟, 文化關係를 强力히 擴大시켜나갈 것이다. 둘째, 日本은 인도차이나 國家와 關係改善에 努力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計劃과는 달리 日本은 베트남재건을 위한 綜合的 經濟支援을 구도로 한 초안과

는 반대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1977년 10월 日本은 이 원조를 중단시켰고, 1981년 1월, 스즈끼 외상은 日本政府가 베트남에 약속했던 經濟支援을 계속 동결시키기로 決定했다고 공표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ASEAN國家의 要求가 반영된 것이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이후 서구제국과 호주도 베트남에 대해 經濟關係制約 조치를 취했다. 그러므로 캄보디아 戰爭의 主要結果中의 하나는 베트남이 日本, 美國, 西歐, 그리고 중공으로부터 經濟支援과 大規模 經濟協力計劃에 있어서 명시적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통상금지조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狀況은 蘇聯과 그 東歐同盟國에서도 나타나 일이었다. 1979년 이후 베트남에대한 이런 西方陣營의 態度硬化는 이유가 있었다. 1979년 봄과 여름부터 베트남이 美國이 建設한 自國과 캄보디아에 있는 軍事基地를 使用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점은 西方의 情報關係者와 新聞記者에 의해 밝혀졌다.

Ⅳ. 고르바쵸프의 政策과 동남아시아 問題의 構造

고르바쵸프時代에도 前後 蘇聯의 아시아 政策과 마찬가지로 中·蘇關係가 蘇聯의 主要 關心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고르바쵸프는 中國에대한 蘇聯의 철저한 封鎖政策으로 規定되는 戰後의 狀況을 물려받은 것이다. 蘇聯의 封鎖戰略의 核心要素는 모스크바가 중공의 적대적 國家와 비교적 建設的關係를 構成하고 있는 데 있다. 인도의 경우, 고르바쵸프는 취임후 자신의 첫 公式訪問國으로 인도를 택했다. 인도는 또한 開發途上國中 최대의 貿易 상대국이다. 蘇聯은 중공의 또다른 인접국인 아프카니스탄에 대해서는 軍事的으로 支配함으로써 封鎖戰略을 强化하고 있다. 또 외몽고에 대한 蘇聯의 保護 및 北韓에 대한 中·蘇 外交競爭도 封鎖戰略의 重要한 要素가 되고있다. 戰術的인 의미에서 蘇聯은 대만이 西太平洋 中心에 위치하면서 중공에 대항하고, 經濟的으로 繁榮하며, 軍事的으로도 중무장된, 民族主義的 國民黨體制를 維持하는 사실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보고 있다. 소련의 封鎖戰略中에 가장 重要한 要素는 분명히 월남과의 同盟일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規模가 적은 국가중에서는 世界最强國中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封鎖戰略貸借對照表의 다른 면에 소련은 여전히 美·日同盟體制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兩國이 ASEAN 및 중공의 經濟的 성장을 支援하는 것도 負의 요소이다. 위에서 지적한 데로 美國, 日本, 中共, ASEAN國家는 캄보디아 問題에 있어서 反베트남 공동합의를 갖고있다. 이런점 외에도, 太平洋의 반대편에는 이들 국가로 構成되고 베트남과 蘇聯의 膨脹主義와 覇權主義에 반대하는 또다른 封鎖戰線이 있다. 이 그룹들은 베트남이 覇權主義的 인도차이나 침투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소련의 지원에서 可能하다고 본다. 그리고, 蘇聯이 東南亞에서 大規模이며 매우 發達된 軍事基地施設을 획기적

으로 確保할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의 동의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類型의 對立되는 封鎖戰略의 상충이야말로 고르바쵸프 行政府가 물려받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國際的 勢力配置의 核心的 要素이다.

蘇聯이 基本的으로 ASEAN을 어떻게 보는가하는 問題는 모스크바에 주재한 雜誌 Far Eastern Affairs에 실린 한 論文에 다음과 같이잘 나타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階級利益의 집합체인 ASEAN國家의 支配階級과 상당수의 西歐國家 들은 反共産主義教理에 집착한다. 이것은 ASEAN과 그 個別國家 外交政策의 出發點에 깊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 이것은 ASEAN이 西方과, 특히 미국에 경사되었다는 점, 베트남과 거세게 맞서는 극우분자가 득세한다는 점, 그리고 ASEAN이 蘇聯과의 協力을 封鎖한다는 점을 說明해준다. 그러나 ASEAN의 活動에 있어서 또다른 傾向이 있다. 그것은 힘들지만 자기노선을 開拓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은 상이한 社會經濟體制를 가진 東南亞國家間의 關係正常化 및 공고화와 自主外交路線을 向한 努力에 있다. ASEAN國家들은 대부분이 자국에서 共産主義運動을 겪어 보았다. 따라서 ASEAN국가들은 東南亞地域에 共産國家가 등장한 데 대해 염려하고 있다. 필리핀,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정부는 수 년동안 다양한 自生的 공산반군과 대치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965년 유혈사태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인도네시아 共産黨은 최대의 政治勢力으로 성장해 있었다. 통일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신흥강국으로 등장한 초기에 ASEAN各國政府는 各國駐在蘇聯大使에서 2월 6일 11시에 ASEAN국가 大使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각국 外相들과 대화에 임해 줄것을 要請했다. 이와 유사한 방침으로 ASEAN 各 政府는 東南亞 安全狀況에 대한 심각한 關心을 表明했다. ASEAN各國은 蘇聯이 東南亞에서 强大國이며 또 앞으로

도 그 役割이 기대된다고 蘇聯大使에게 말했다. 그러나, 東南亞의 平和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占領하자 파괴되었다. ASEAN國家는 모두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占領政策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것은 蘇聯의 支援을 基盤으로 하고 있다는 데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ASEAN국가들은 각기 蘇聯의 이런 態度에 불만을 표명했고, 蘇聯에게 베트남의 캄보디아 統治와 蘇聯의 베트남 支援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것을 要求했다. 또, ASEAN 國家들은 蘇聯이 캄보디아 問題의 平和的 解決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SEAN국가들이 이렇게 이례적인 일치된 행동을 한 까닭은 두 側面에서 說明 可能하다. 한 側面은 各國이 蘇聯으로하여금 이地域問題의 심각성에 關心을 고취시키려는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側面으로는 ASEAN국가가 東南亞에서 蘇聯의 役割에 政治的, 道德的, 正當性을 公式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고르바쵸프가 캄보디아 事態의 점증하는 문제와 ASEAN각국의 回答要求에 처음반응을 나타낸 것은, 그의 유명한 1986년 2월 28일 블라디보스톡 政策演說에서 였다. 東南亞에 관해서 고르바쵸프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소련·베트남 關係 正常化에 더욱 의존한다. 그것은 兩國 政府와 지도부의 主權問題인 것이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關心이 社會主義國家間의 經濟가 다시금 平和와 先進關係의 國境으로 發展되는 데 있다는것을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또 그는 外部로부터의 호의와 不介入의 條件을 감안하면 중공, ASEAN 그리고 인도챠이나 국가들은 아시아의 전반적 利益을 지키면서, 자신의 問題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르바쵸프는 ASEAN이 要求했던 蘇聯의 캄보디아 問題 解決努力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自國 國境線에서 캄보디아 問題로

苦痛을 겪고있는 태국의 外務長官 Siddhi Savetsila는 블라디보스톡 演說後에 그의 실망을 표명했다. 그는 소련이 베트남을 설득하여 캄보디아에서 撤收하도록 할 의향도 나타내지 않았다는데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고르바쵸프의 견해란 단지 호의만 있으면 事態解決은 充分하고, 위기해결은 캄보디아를 占領한 軍隊가 바로 베트남군이었다는 基本的事實을 직시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關係가 正常化되는데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鄧小平은 고르바쵸프의 演說中에 몇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도 中·蘇間 關係 早期改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는 日本 공명당의장 Yoshikatsu Takeiri에게 中·蘇關係改善의 3가지 전제조건중에 중공은 캄보디아問題를 아프카니스탄 問題나 中國北部戰線에서 蘇聯의 軍事力減縮問題보다 더 중요시 한다고 말했다. 鄧小平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開進하면서 캄보디아위기의 解決은 中·蘇間 頂上會談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중공의 미묘한 反應에 소련은 現在까지 直接的 回答을 유보하고 있다.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은 필리핀주재 蘇聯大使 Vadim Shabalin의 인터뷰에서 흥미있는 귀결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演說에서 고르바쵸프는 太平洋 海軍의 減縮을 提案했다. 게다가 그는 美國이 필리핀의 基地를 撤收한다면 蘇聯은 호의에 보답할 것이라는 提案을 特別히 제의했다. 즉, 비록 소련은 ASEAN국가의 關心을 이해하지만, 그 問題는 캄프차에서 삼백만인민을 학살한 Pol Pot나 그의 체제의 參與를 제외한다면, 전적으로 인도챠이나국가가 解決할 問題라고 한다. 고르바쵸프가 蘇聯과 美國이 相互間에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각기 軍事基地를 撤收시킬 可能性을 提案한 것은 두가지 主要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베트남의 蘇聯基地가 軍事力 均衡을 맞추기 위해 樹立되었다는 理由를 强調하면서 東南亞에서

蘇聯의 軍事 駐屯을 正常化시키는 데 있다. 또 하나는 蘇聯이 일정한 條件하에서는 軍事基地를 제거할 신축성과 準備가 되어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理論的으로 말하면, 고르바쵸프提案이 現實化되는 것은 몇몇 障碍가 지속되더라도 소련이 베트남에 압력을 가해 베트남문제의 정상화가 이룩될 때 可能할 것이다.

蘇聯의 外交, 安保政策에서 軍事力의 役割을 考慮해보면, 소련이 남베트남과 남캄보디아의 美軍의 海軍 및 空軍基地를 획득했다는 것의 重要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우기 이기지들은 西太平洋의 남단에 位置하였다. 따라서 인도양의 出入口이며, 戰略的 그리고 通商的으로 매우 중요한 말라카海協의 近接地域이며 또한 필리핀의 美海軍 및 空軍基地 맞은 편 地域이기도 하다. ASEAN國家의 수도는 모두 다낭에 배치된 소련 미사일의 사정거리내에 들어와 있다. 現在 인도차이나 南部의 소련 海軍 空軍力이 블라디보스톡에 地域的으로나 또 작전상으로도 근접해 있다. 蘇聯 軍事指導者들은 이런 이유로 하여 새로 얻은 戰略的 資産을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이유없이 포기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蘇聯의 全地球的인 外交上의 그리고 安保上의 政策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中共, 東南亞 그리고 인도본토사이에 地政學的으로 매우 重要한 地域에 있어서 베트남이란 軍事的으로 유력한 同盟을 얻었다는데 있다. 베트남은 마치 쿠바가 서반구에 있어서 蘇聯에 忠誠하듯 아시아에 있어서 中共이나 東南亞에 관한한 소련에 충성할 것이다. 소련과 베트남의 關係는 理念의 친화성, 이득의 相互補完性, 그리고 이득교환의 균형성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中·蘇 데땅뜨가 고르바쵸프 行政府의 진정한 目標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중공의 中·蘇改善 최우선조건이 소련이 베트남에 支援을 중단하고,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撤收하는 것이고 보면, 蘇聯政府가 外

交政策樹立에 主要한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蘇聯이 中國側 要求에 과연 어떠한 양보를 하여 베트남에서 손을 뗄 것인가 달리 표현하면, 소련은 베트남이 베트남남부와 캄보디아에 있는 軍事基地施設을 철수하면서 베트남에 적대감을 주지 않는다. 즉, 베트남이 티토주의적 外交路線과 共産主義體制를 維持하지만 서방과 광범한 經濟協力을 追求하는 路線을 추구하지 않게하면서 중국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달성하려면 中國의 經濟改革과 비견되는 광범한 經濟改革이 蘇聯에 要求될 것이다.

베트남이 蘇聯에 基地使用을 허가하고 自國의 經濟問題에 介入하는데 寬容的 態度를 보이는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베트남은 그 댓가로 전 인도차이나를 戰略的, 經濟的 그리고 心理的으로 支配하려는 베트남의 傳統的 目標를 達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이미 희생된 物質的資産 및 努力, 그리고 희생된 生命이 있다. 이것이 현재문제의 상태이다. 모스크바, 중공, ASEAN, 베트남의 政策立案者들은 어떤 條件이라면, 베트남이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대한 統制를 놓게될 것인가 라는 問題를 深思熟考해야할 것이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진정한 中立國으로 한다면 베트남의 安全과 利益에 부합할 것인가? 적어도 베트남의 立場에서는 中共으로부터 베트남안보에 主要한 威脅을 느끼지 않을것인가? 그리고 중공은 어떻게 베트남을 안정시켜서 데땅뜨와 正常化에 이를 것인가? 베트남이 캄보디아 指導部에서 공산크메르를 제거한 것은 캄보디아 政治構造에 있어서 自由主義的 政治變動의 條件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베트남 蘇聯, 中共의 3國共産黨 政府는 베트남이 撤收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既存共産體制의 와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캄보디아 政治變動에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은 확실히 있을 수 없는일이

다. 그러므로 1986년 5월에, 國際的으로 알려진 민주캄푸차 캄보디아 聯立政府가 시아누크왕자추종세력 및 Son Samm의 추종자, 그리고 공산크메르에 의해 形成되었다. 그리고 1986년 3월 17일에는 北京에서 그들의 內閣會議를 開催하면서 캄보디아 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위한 8個事項의 재안을 제시하였다. 聯立政府는 이 計劃의 信號에 따라 베트남과 協商하여 캄보디아에서 베트남軍을 두단계로 撤收시키려는 提案을 했다. 그러므로 즉각적이고 直接的인 撤收가 더이상 要求되지 않았다. 철군은 休戰協定과 결부지어 생각되었다. UN 조사팀은 철수를 조정하고자 했다. 일단계의 撤收가 이뤄지면, 친 베트남 그리고 Heng Samrim의 베트남 任命政府는 現在 3角聯立政府에서 4角 聯立政府가 될 것이다. 이 聯立政府內에서 각각의 參與黨은 동등한 權利와 동등한 參與의 토대위에서 相互 協力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아누크를 大統領으로, Son Sann을 首相으로 새 政府를 構成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베트남의 의견에 따라, 공산 크메르는 어떤 指導的위치에도 關聯되어 있지않고 "행 삼린"體制에도 關聯이 없다. 未來 캄보디아 政府의 中立性은 U·N에 의해 보장될 것이다. U·N은 3년동안 調査팀을 파견하도록 要請되고 있다. 이 計劃案은 베트남에 의해 즉각 부인되었다. 베트남政府는 "행 삼린" 政府의 正統性을 강조했다. 그러나 몇주전 베트남을 訪問한 인도네시아 외상 Moch far Kusumaafmadja의 계획안에 대해서는 明白한 반응을 보이면서 캄보디아 "행 삼린" 政府의 외상 Hun Sen는 1987년 9월 9일 메세지를 UN事務總長에게 보냈다. ASEAN國家를 代表하는 Moctar와 인도챠이나 國家를 代表하는 베트남간의 協定을 言及하면서 "행 삼린"은 인도네시아 政府가 캄보디아 對立集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볼 용의가 있음을 宣言했다. 단, 여기서 공산 크메르는 제외되었다. 시아누크왕자는 9월 18일 聲明을 통해 그가 캄보디아

問題의 政治的 平和的 解決策을 찾기 위해 프놈펜體制의 指導者 및 캄보디아 저항운동 파의 指導者와 대화에 임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17일 전에 鄧小平은 시아누크에 重要한 言及을 했다. "승리를 획득한 후에 社會主義를 지향하지 않는 캄푸치아政府에 대한 우리의 승인은 변한 바 없으며, 우리는 시마누크 왕자가 캄푸치아의 指導者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종래의 소망에 아무런 변경도 없다." 비록 현재 캄보디아위기에 몇몇 뚜렷한 解決案이 提示되고 있지만, 태국 外務長官 Siddhi Savetsla의 見解가 정확한 것 같다. 그는 캄보디아 문제는 ASEAN국가 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中共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르바쵸프 新行政府의 政策 決定者가 거의 해결할 수 없는 "골치아픈문제"라고 주장한다.

고르바쵸프의 東·西유럽 貿易關係

Peter Knirsch
(自由베르린大 敎授)

1. 序　　論

過去 십여년 동안, 政策立案者, 企業家, 經濟專門家들은 유럽CMEA 國家들과 OECD에서 함께 일하는 重要한 西歐 産業國家들[1] 사이의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매우 깊은 關心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廣範圍한 論難때문에 過去 몇년동안 이 問題에 관해 놀랄만한 새로운 理論을 定立하기가 어려웠다. 어쨌든 이러한 關係에 관한 나의 글과 講義는 상당히 오랜 期間의 硏究結果에 바탕을 두고 있다. 最近의 狀況은 다소 달라지고 있다. 이제 論議되겠지만, 東歐와 西歐의 經濟關係에 劇的인 進展이 發生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兩體制가 基盤을 두고 있는 制度內에서나마 약간의 현저한 變化가 일어났음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變化가 東歐와 西歐의 經濟關係[2]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必要한 것 같다. 덧붙여서 주목할 만한 變化가 過去 몇년동안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世界經濟속에서 어떻게 發生되어 왔는가를 檢討하고자 한다.

註① 實際로 要求되는 差別化의 程度는 이 論文의 制限된 範圍內에서 論議할 수 없다. 우리가 일단의 國家들이나 "西歐"에 관해 이야기할때 우리는 유럽共同體, 美國, 日本등의 重要한 國家들에 대해 言及해야 한다.

註② 이 論文에서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와 "東西 經濟關係"는 서로 같은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Ⅱ.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現況

西歐의 經濟硏究機關에서는 上半期마다 前年度에 發生한 東西間 經濟關係의 變化에 관해 定期的으로 報告書가 나온다. 나는 獨逸語를 使用하는 國家들을 위해 씌어진, 題目이 아주 비관적인 두가지의 글을 읽어 보았다. 하나는 Vienna의 "東西交易의 激減"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베를린에 있는 獨逸 經濟硏究機關에서 나온 "油價下落과 市場開拓이 어려운 東歐와의 場外交易"[3] 이라는 글이다. 비록 우리가 報告書의 題目이 지닌 口號的인 性格을 考慮하더라도 狀況은 여전히 비관적인 것 같다. 體制相互間의 經濟關係에서 가장 重要한 形態인 東西間의 貿易은 수년동안 沈滯되어 왔고 1986年 한해동안 거의 모든 分野에서 減少되었다. 現在 利用할 수 있는 數値는 1986年의 극단적인 換率變動 즉, 달러의 평가절하 때문에 正確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한 資料[4]에서는 CMEA國家에 대한 OECD의 輸出이 370億달러를 밑돈다고 報告하였는데 이는 美貨로 9%의 輸出增加에 該當된다. (蘇聯에 1%增加, 여타CMEA 國家들에게는 22%의 輸出增加) 그러나 만일 달러의 평가절하와 多樣한 "통화 바스켓(Baskets)"을 考慮한다면 國

註③ Jan Stankovsky, "Starker Rucaker Ruckschlag im Ost-West-Handel" (Large Decline in East-West trade), Monatsberichte des Osterreichi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otsrschung, Vienna 1987, no.1.p.162. "Ölpreisverfall und Absatzschwierigkeiten der RGW-Länder bremsen den Osthandel" (Oil Price Decline and Marketing Difficulities Curb Trade with East), written by Jochen Bethkenhagen, in the Wochen bericht published by the Deutsches Institut fur Wirtshaftsforschung, Berlin (West) 1987, No.14, p.185.

註④ Stankovsky, 1987, p.162f. 이 資料는 東歐에 대한 OECD 國家들의 貿易에 관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모든 資料의 根據로 使用된다.

際通貨基金의 特別引出權에 기초를 두어 6%의 下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大部分의 EC國家들이 參與하는 유럽通貨體制에 따른 ECU에 기초한 計算은 16%의 下落을 나타내고 있다. 이 報告書는 1986年에 東歐유럽에 대한 OECD의 輸出이 8% 下落했다고 보고 있으며 1986年에 獨逸聯邦政府에서 東歐 유럽에 대한 輸出은 10%下落했다고 評價하고 있다.[5] 7個의 유럽CMEA 國家들로부터의 OECD의 수입은 불가변가격으로 約5% 또는 350億달러가 下落된 反面, 獨逸聯邦政府는 東歐로부터 20% 적게 수입하였다.

이미 앞에서 言及하였던 것처럼 統計的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推定은 正確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基本的인 경향을 提示해 준다. 따라서 1986年에 東西貿易은 世界貿易보다 매우 완만하게 增加하였거나 世界貿易에 비해 減少되었다. 結果的으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여러 基本指標들은 變化하였다. 예를들어, 1986年 獨逸聯邦政府의 CMEA 國家들과의 貿易은 全體 海外貿易의 4%에 不過한 反面, 1970年代 초기 이후 6%의 水準을 維持하여 왔다. 貿易黑字를 肯定的인 要素로 여기는 사람들(이는 過去 日本과 獨逸聯邦政府와의 例에서 보는 것처럼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은 體制相互間의 經濟關係의 한 側面을 보고 의기양양할 수도 있다. 1979年 交易이 시작된 이래 1986年에 OECD國家들은 最初로 유럽의 CMEA國家들에 대해 1億弗의 貿易黑字를 이룩한 反面, (1984年에는 80億, 1985年에는 49億의 赤字를 보았다) 蘇聯은 貿易收支의 赤字를 이룩하였다. 이만한 量의 貿易收支의 赤字는 CMEA國家들의 西歐에 대한 負債를 考慮해 보면 그리 重要하지 않다. CMEA國家들에 미치는 換率의變動과 負債償還의 負擔(1986

註⑤ Bethkenhagen 1987, p. 185, 이는 東歐에 대한 西歐의 貿易에 관한 數値의 資料이다.

年 利字支給은 5億－6億달러로 追定된다)[6] 이 보다 심각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註⑥ Stankovsky 1987. p. 167.

Ⅲ. 東西유럽 經濟關係의 不安定性과 構造的인 弱點

過去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不定的인 變化만으로는 確實히 그들의 未來展望에 관한 豫測을 하는데 적절한 실증적인 根據가 될 수 없다. 이러한 變化는 겨우 現 狀態와 改善을 위한 가능한 接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提示하는데 불과하다. 確實히 이러한 關係에 관해 심각하게 생각할 必要性이 있고 이들의 關係를 增進시키는 것이 可能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만일 우리가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長期的인 發展을 考慮한다면 다음과 같은 약간의 特殊한 현상들에 주목할 수 있다.

1. 東西 經濟關係의 不安定은 현저하다. 이러한 地域에서 海外貿易은 全體的인 海外貿易보다 또는 資本主義 國家들간의 貿易보다 훨씬 不規則的으로 이루어졌다. 1950年代 初期 東西間의 貿易은 매우 낮은 水準에 머물렀으며 1955年부터 1965年까지는 서서히 增加하였다. 1970年부터 1975年까지는 매우 빠른 成長을 보였으며, 특히 최소한 몇몇 CMEA國家들과의 西歐 貿易關係는 急速한 成長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75年 以後 CMEA國家들에서 發展的인 경향은 좀 더 多樣해졌다. 西歐의 가장 重要한 貿易 상대국으로서 蘇聯은 1984年까지 西歐 産業國家들과의 貿易이 增加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水準에 있는 反面, 비록 國家들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CMEA國家들과 西歐와의 貿易은 아주 急速하게 減少되었다. 최소한 1981年까지 수입의 減少로 인해 貿易이 沈滯되거나 또는 減少되었다. 이러한 全般的인 發展의 틀속에서 東歐와 西歐의 貿易은 一般的으로 世界貿易의 變化보다 每年 심하게 變動하였고 또한 개별적인 貿易相對者들간

에 더 심하게 變化하였다.[7]

나는 이러한 不安定性은 東西貿易을 包含한 모든 國家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計劃經濟體制의 CMEA國家들의 경우에 이러한 計劃이 經濟的이며 效果的인 方法으로 그들의 計劃에 부합하는 많은 機會를 갖기 위해 安定的이고 믿을 만한 交易關係를 期待한다. 어쨌든 現在 獨逸國內에서 使用하고 있는 教科書에도 이러한 內容이 실려 있다. 이 教科書의 첫 페이지에서 "海外貿易은 經濟發展과 完全雇傭의 達成에 寄與하며, 輸出을 위해 生産된 財貨의 安定的인 市場을 提供함으로서 滿足을 주며, 國家經濟와 國民을 위한 財貨의 수입을 可能하게 한다.[8]"고 서술하고 있다. 나는 安定的인 海外貿易關係에 대한 西歐의 利益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輸出企業은 자연히 去來處에 商品販賣를 계속하기를 원하며 또한 事業을 擴張하는 것에 關心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輸出企業의 生産能力을 使用하는데 도움이 되고 生産된 商品에 대한 새로운 市場을 찾는데 따르는 費用을 절약하기 때문이다. 같은 方法으로, 비록 世界市場의 어느 곳에서든지 東西로부터 수입하는 大部分의 商品에 대한 대체제를 發見할 수 있을지라도, 東歐에서 수입하는 西歐의 企業들은 貿易相對者들에게 競爭的인 價格下에서 商品의 質을 계속 維持하며 계속적인 貿易이 이루어지기를 期待한다.

東西 經濟關係의 增進에 관한 可能性을 이 論文의 끝에서 論議하면서 우

註⑦ 例를들어 Stankovsky 1987, p. 169 에서는 이를 오스트리아와 關聯시켜 説明하고 있다.

註⑧ Eugen Faude, Gerhard Grote, Christa Luft, Sozialistische Auβenwirtschaft. Lehrbuch (The External Economy under Socialism. A textbook), Berlin 1984, p. 15.

리는 이러한 關係가 더욱 安定的이어야 한다는 必要性을 考慮하게 된다.

2. 相互體制間의 構造的인 不均衡은 위에서 言及한 不安定性과 密接한 關係가 있으며 不安定에 따른 否定的인 效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一次的으로 國內市場의 否定的인 特性때문이다. 先進資本主義 國家들에서 國內市場은 재화의 초과공급으로 特徵지울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在庫能力은 滿足되지 않고 재화의 초과공급이 存在한다. 이는 海外交易에 있어서 商品이 빨리 인도되고 選擇의 範圍가 多樣함을 意味한다. 供給이 너무 많기 때문에 生産된 財貨는 技術的으로 發展되고 높은 質을 維持하고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한 집약적인 效果가 要求된다. 바꿔 말하면, CMEA[9] 國家들의 國內市場에서 팔리는 財貨는 供給보다 需要가 더 많다.[10] 따라서 大部分의 生産者들은 商品의 質을 改善하거나 또는 技術的인 發展을 통해 販賣量을 增進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종종 國內需要를 充分히 滿足시킬 수 없기 때문에 生産된 것을 輸出하고자 하는 경향이 없다. 西歐 産業國家들에서 처럼 强한 市場에서의 壓力은 存在하지 않는다.

위에서 說明한 不均衡은 兩體制間의 問題點을 惹起시킨다. 西歐 産業國家들은 過剩生産과 특히 勞動市場에서 過剩生産에 따른 否定的인 效果에 직면한 反面, 社會主義 國家들은 供給의 問題를 안고 있다.

이러한 理由로 西歐 産業國家들은 再生産 可能한 財貨(農業生産物이 아

註⑨ 東西 經濟關係의 基本的인 經濟問題는 다음 筆者의 論文에서 상세히 說明되고 있다: Perter Knirsch,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East-West Economic Relations," Acta Oeconomica, Vol.31, Nos. 1-2, Budapest 1983, pp. 117-119.

註⑩ 여기서 "市場"이란 用語는 協力的인 機構로서가 아니라 오직 商品生産과 利用間의 均衡을 說明한다.

니라 大部分의 最終工業製品)의 輸出에 關心을 기울이고, 財貨를 수입하기 원하며 따라서 勞動의 國際的 분업에 따른 利益을 얻는다. 海外貿易에 대한 오래된 비교우위 理論이 있을지라도 위에서 說明한 國內市場條件은 輸出을 하고자 하는 열망-强한 必要性이라고 말하기도 한다.-을 意味하며 이는 西歐産業國家의 政府에게 一般的인 經濟制度에 반하여 輸出을 增進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는 貿易政策을 追求하도록 하였다. 또한 社會主義 國家들은 勞動의 國際的 분업이 自國의 經濟와 發展에 有益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國內市場의 不均衡은 그들이 世界市場에 效率的으로 參與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社會主義 國家들과 대조를 이루어 우위를 차지하는 商品을 수입하려는 열망과 必要性, 그리고 이러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必要로 하는 輸出은 大部分의 경우 國內市場에서 困難한 負擔으로 여겨졌다. 어쨌든 이것이 모든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供給問題는 財貨를 輸出하려는 의무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불평하는 理由에 대한 說明이다. 事實 나는 좋은 商品은 수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效率性의 推定이 可能하다면 輸出은 國內市場의 不足을 메꾸는 財貨의 수입이 可能하게 하거나 높은 品質의 商品을 生産하는 財貨의 수입을 可能하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體制相互間의 經濟關係에 대한 當面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때 基本的인 要素로서 항상 國內需要와 供給關係를 考慮하게 된다.

3. 상이한 市場條件과 市場不足은 海外貿易 뿐만아니라 東西國家經濟의 輸出과 수입구조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價格變化와 換率變動 때문에 利用

可能한 輸出-輸入統計는 全體 交易量보다 信賴性이 떨어진다.[11] 그러나 지난 몇년간 가장 集中的으로 論議된 問題中의 하나를 考慮해 볼때, CMEA國家들은 OECD國家들로부터 결코 기술집약적인 生産物이나 높은 技術水準을 가진 生産物들을 輸入하지 않았다. 이러한 輸入에 의해 나타난 몫은 西歐로부터의 資本材(SITC7) 輸入이 OECD國家로부터 하는 輸入全體의 25%-35%에 달한다는 事實에 주목할 때 確實해지며 이 몫은 지난 몇년 동안 減少되는 趨勢를 보여왔다. 東西間의 技術移轉은 이러한 輸入과 關聯되어 發生하며 내가 전적으로 틀리지 않았지만, 兩側은 항상 實際로 얼마나 많은 技術移轉이 發生했는가에 대해 過大評價하고 있는 것이다.[12] 西歐로부터 CMEA國家의 輸入은 아래의 範圍속에서 나누어지며 國家와 時間에 따라 크게 變하게 된다. 일차산품, 특히 鐵鋼, 일차 化學生産物, 食料品(過去 20餘年 동안 蘇聯이 西歐에서 輸入하는 것중 30%가 넘는다) 그리고 工業用消費財등은 重要하지 않았으나 해가 바뀜에 따라 重要한 것으로 成長해 오고 있다. 우리가 西歐産業國家에 대한 CMEA의 輸出을 論議할때, 한편으로는 유럽의 6個의 작은 CMEA國家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蘇聯을 區別해야 할 必要性이 있다. 原材料와 燃料, 그중에서도 石油와 天然가스는 蘇聯이 西歐에 輸出하는 것의 75-9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半製品이나 完製品이며 이는 全體 輸出의 5-10%를 차지한다. CMEA國家들에서 完製品은 매우 重要하며 西歐에 輸出하는 것의 40-60%를 차지한다. 그러나 資本財와 높은 品質의 工業用 消費財는 적은 部分만을 차지한다. 1970年代

註⑪ Bethkenhagen 1987, pp. 185-191 와 Stankovsky 1987, pp. 163-165, pp. 169-173. 參照.

註⑫ Halgard Wienert and John Slater, East-West Technology Transfer, The Trade and Economic Aspects, OECD, Paris 1986, pp. 193-230, p. 225. 參照.

初期부터 아직까지 CMEA國家들(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에게 重要한 食料品의 輸出은 상대적인 重要性에 比해 減少되었으나, 몇몇 경우에는 아직도 半製品과 더불어 重要한 輸出品으로서의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위에서 言及한 特性에도 불구하고 東西貿易에서의 商品構造는 아직도 인사치레의 性格을 띠며 특히 가장 重要한 貿易相對國으로서 蘇聯의 重要性이 考慮되고 있다 : 西歐는 一次的으로 높은 技術水準에 있는 機械와 裝備를 包含한 工産品을 供給하는 反面 東歐의 輸出은 아직도 原材料와 半製品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一般的인 서술은 制限된 範圍에서만 適用된다. 위에서 說明한 市場不足을 充分히 考慮하더라도 각각의 CMEA國家들은 資源과 發展段階에 따라 依存하는 程度가 다르다. 게다가 여기서 약술된 構造的인 問題點은 이같은 짧은 論文에서 앞으로의 東西貿易關係의 發展에 대한 可能性을 考慮하였다는 出發點으로서 적절할 것이다.

4.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制約要因

지금까지 우리는 現在 東西關係에서 滿足스럽지 못한 部分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으며 지난 몇년 동안의 重要한 問題로서 不安定性, 構造的인 약점등에 관해 言及하였다. 이러한 問題中 몇몇 問題는 오랜기간 동안 나타난 만성적인 現狀이었다. 經濟關係의 發展的 方向을 摸索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問題의 원인을 把握해야만 한다.

1. 政治的 次元

體制相互間 經濟關係는 用語가 指摘하는 것처럼 社會制度와 經濟制度가 다른 國家들 사이에 存在한다. 東西經濟關係의 경우는 이 制度가 다를 뿐아니라 그들의 基本的인 價値와 目的도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13] 이러한 理由로 體制相互間 經濟關係는 東西間의 政治關係에 크게 依存한다고 가정되어 왔다. 나는 이러한 問題를 앞의 出版物[14]에서 자세히 論議했으며 따

註⑬ 1984年 著者의 論文集 pp.119-121에서 Faude는 이러한 經濟關係는 "階級鬪爭의 範圍"를 나타낸다고 說明하고 있다. 平和共存의 原則과 이러한 原則 속에서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役割은 불행하게도 西歐에 대해 취하고 있는 東-西間의 危險한 經濟關係에 西歐의 모든 보수적인 선입견을 確信하는 方法으로 說明되고 있다. 1986年3月1日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27回 CPSU Party Congress에서 改正된 CPSU 黨綱領은 상당히 긍정적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 海外貿易에서의 協力은 (資本主義 國家를 包含한) 政治的으로 매우 큰 重要性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平和와 社會目的이 상이한 國家들간의 平和共存의 關係를 擴大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註⑭ Peter Knirsch,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s on East-West Economic relation," East-West Economic Relations in the Changing Global Environment, ed. Bela Csikos-Nagy and David G. Young, Houndmills, Basingstoke, Hampshaire, London 1986, pp. 59-83, pp. 60-68.

라서 여기서는 出版物에서 도달된 結論에 나의 論評을 限定지을 수 있다. 東西 經濟關係는 一次的으로 經濟的 要素에 의해 決定되며 이러한 脈絡에서 政治關係는 단지 부차적인 役割만을 한다. 經濟關係는 兩者間에 充分한 利益이 있고 이러한 關係가 經濟的 利益을 發生시킬 것으로 期待될 때 存在한다. 따라서 經濟關係의 發展은 經濟條件에 크게 依存한다.

增加된 東西間 政治環境의 적대감은 經濟關係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政治的 不確實性은 經濟關係가 만들 수 있는 決定的인 經濟的 要素를 무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정지 수단은 정치행위가 經濟關係를 維持할 수 없게 한다고 잘 알려진 事實이다. 貿易에 대한 關稅와 非關稅障壁, 差別化등도 비록 黑字의 效果가 멀리 미치지 못할지라도 經濟關係에 否定的인 影響을 주며, 輸入承認과 海外貿易承認에 關한 東歐當局의 거절도 同一한 效果를 갖는다.

政治關係가 改善될때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대한 影響은 우회적으로 發生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政治關係는 一次的으로 經濟關係에 依存하므로 위에서 言及한 貿易制限의 廢止는 東西貿易을 增進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政治的 障害가 제거될 때, 특히 오랜 關係에 기초하여 신용을 要求하는 去來의 경우 즉, 信用關係와 오래된 協議를 考慮해 볼때 항상 經濟關係를 擴大하는 것이 可能하다.

따라서 두 體制間의 비우호적인 政治環境은 東西 經濟關係의 直接的인 危險으로 나타나는 反面, 改善된 環境은 直接的인 效果를 가져오나 항상 經濟關係를 擴大시키지는 않는다.

2.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대한 經濟政策의 影響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관한 問題를 論議하면서 가장 重要한 經濟政策을 지나치거나 소홀히 다루었다. 大部分의 경우서 西歐에서의 海外貿易政策은 體制相互間에 重要한 것으로 認識되었다.(위에서 言及한 關稅障壁은 否定的인 效果의 代表的인 例이다) 그러나 지난 30年동안 東歐와의 貿易에 대한 가장 큰 關心은 OECD國家들의 經濟政策에 明白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貿易과 合作投資 共同政府委員會, 貿易使節團에 의한 行動, 輸入쿼터의 增加나 폐지의 形態로 東西 經濟關係를 增進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왔다. 實質的인 用語로 차관보증 또는 CMEA國家들에 대한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한 西歐信用供與에 대한 補助金(이와같은 대부를 提供하기 위해 西유럽政府에 의한 競爭이 거의 조정되지 못할때 시간이 걸린다)등은 매우 重要하다. 海外貿易政策은 貿易利益, 雇傭政策의 目標뿐만아니라 部分的으로는 政治的 考慮에 의해서 決定되는 反面 海外貿易去來는 항상 의사결정 基準이 利潤追求에 있는 사기업에 의해 遂行되며 사기업들은 때때로 利潤追求속에서 經濟政策의 細部的인 事項에 影響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COCOM [15] 의 關係속에서 이러한 재제는 다소 非效率的이었다. 이는 禁止된 商品의 선적이나 우선적인 承認을 要求하는 商品의 선적이 제3국이나 이원적인 機構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體制相互間 經濟政策의 影響은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이러한 政策이 海外貿易의 틀을 만들 뿐만아니라 海外貿易計劃, 海外貿易과 外換에 대한 國家獨占의 手段으로서 海外貿易去來의 모든 部分에 影

註⑮ 아이슬란드를 除外한 모든 NATO 會員國과 日本은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East-West Trade Policy)의 會員이다.

響을 미치기 때문이다.[16] 이에 덧붙여서 中央에서 이루어지는 經濟計劃 때문에 社會主義國家의 海外貿易政策은 資本主義 産業國家들보다 國內發展에 더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다. 앞에서 說明한 CMEA國家들의 國內經濟에 대한 需要와 供給의 差異는 歷史的 事實과 그들이 使用할 수 있는 天然資源에 의해 部分的으로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發展過程이나 産業化過程에서 惹起되는 構造的인 政策決定과 經濟政策決定의 非效率的인 結果, 그리고 그들 國家에 存在하는 經濟制度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CMEA國家들의 海外貿易政策은 東西 經濟關係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다. 最近까지 社會主義國家에서 國內供給者와 販賣者들이 海外貿易去來와 直接的인 關聯이 없다는 事實은 體制相互間의 交易關係에 대한 적지 않은 마찰을 惹起시켜 왔다. 그러나 世界市場으로부터 國內市場의 離脫은 社會主義國家에서 組織的인 形態에 의해 만들어질 뿐만아니라 世界市場의 趨勢를 무시할 수 있는 國內市場에서 政府의 價格設定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또한 經濟狀態를 考慮치 않은 轉換率인 換率의 下落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接近때문에 直接的으로 海外貿易의 效率性을 評價하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으며 複雜한 計算은 全體經濟의 海外貿易에 대한 相對的인 價値를 信賴性이 없는 情報로 提供하게 되었고 이는 海外貿易의 全體的인 效率性의 低下를 가져왔다.

CMEA國家들에 의한 海外貿易政策의 評價는 國內市場과 經濟的 獨立의 保護속에서 世界資本主義市場의 影響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評價가

註⑯ Faude et al. 1984, p.47, p.52.

東西 經濟關係의 發展[17] 에 가져오는 否定的인 效果는 經濟政策의 目標들을 認識하는 基準으로서 다소 明確하게 받아들여진다.

3. 變化된 世界經濟與件의 影響

그러나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現在 體制相互間의 不滿足狀態는 무엇보다도 지난 15年동안 世界經濟에서 發生되었던 廣範圍한 變化에 기인한다. 비록 相對的인 重要度에 따라 區分짓기는 힘드나 그래도 重要한 事件들중에는 1972年과 1979年에 發生한 두번의 오일쇼크를 들 수 있다. 이는 소비습관과 技術的인 發展뿐만아니라 에너지費用에 影響을 미쳤다. 지난 2年동안 급격한 油價下落과 이에 따른 效果는 마찬가지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 1944年의 브레튼우드(Bretton Woods)協約은 거의 30年동안 固定된 換率로서 效果的으로 世界通貨體制를 維持해 왔다. 1973年의 이 制度의 와해는 世界經濟에 있어서 매우 큰 충격이었으며, 지금까지의 급격한 換率變動, 특히 US달러의 劇的인 上昇과 下落, 거대한 國際資本의 유입, 國際收支 不均衡, 國際債務危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期間동안 주로 위에서 言及한 理由때문에 開發途上國의 狀況도 바뀌었는데 이 또한 重要하다. 몇몇 開發途上國은 成長이 정체되거나 혹은 狀態가 현저하게 惡化되었기 때문에 西歐産業國家에 대한 부채가 미리 推定하기 힘든 상상외로 크게 增

註⑰ 이는 實際로 모든 外部 經濟關係들에 適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制度的인 規制는 CMEA 國家內의 交易과 開發途上國에 대한 貿易에 똑같이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Komplexprogram des RGW"(Comprehensive Program of the CMEA) from 1971 concerning currency relations among the CMEA countries, Grunddokuments des RGW, Berlin 1978, pp.84-92. 參照.

大되었다.

一部 開發途上國은 油價上昇으로부터 莫大한 利潤을 얻었으며 世界에서 가장 높은 1인당 國民所得을 얻었다. 이들 중 몇 나라의 적절한 經濟政策을 利用해 상당히 持續的인 成長을 達成하기 위한 基盤으로 使用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덧붙여, 몇몇 나라들-수적으로 얼마되지 않지만 그 나라 經濟成長에 무엇보다도 重要한-은 매우 빠르고 效果的인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위해 자기나라의 그들의 資源과 海外資本을 결탁하였다. 이러한 經濟發展의 跳躍段階에 있는 國家들-NIC 혹은 新興工業國家로 자주 불리우기도 한다-은 先進國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으며 世界經濟構造를 變化시켰다. 이러한 發展의 가장 인상적인 예가 동아시아(南韓, 臺灣, 싱가포르등)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혹자는 世界經濟活動의 中心이 이제 유럽이나 북미에서 太平洋地域으로 옮겨갔거나, 적어도 交易에 대한 새로운 중심이 이 地域에서 發展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日本이 經濟力에서 美國 다음의 位置(만일 유럽共同體를 單一化된 貿易地域으로 본다면 世界 第3位)로 급속히 부상한 것과 1977年以後 中共의 部分的인 開放이 이루어진 것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와 關聯된 世界經濟內의 마지막 變化로서 나는 西歐經濟의 주기적인 變動과 東歐의 持續的인 成長率 鈍化가 매우 重要하다고 確信한다. 1960年代 중반까지 全體的인 經濟成長은 OECD와 CMEA 國家 모두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몇몇 나라에서는 매우 빠르고 安定된 成長을 하였다. 그 以後 西歐의 經濟變化는, 現在의 절대적인 經濟不況과 더불어 매우 심한 주기적 變動으로 特徵지워진다. 1970年代 인플레이션이 擴散되는 동안 주요 産業國家에서는 이를 管理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지난 10年 동안 현저히 增加된 실업은 비록 실업문제를 社會保障制度와 全般的으

로 높은 生活水準으로 포용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西歐 先進産業國家에서 社會問題와 더불어 풀리지 않는 經濟問題가 되어 왔다.

상대적으로 安定的인 成長鈍化는 지난 20年동안 몇몇 예외를 除外하고 CMEA國家들의 特徵이 되어 왔다. 過去에는 CMEA國家間의 격차, 일년주기의 變動, CMEA國家에서 大部分 發生하는 鈍化등은 수용할 수 있었으나 成長率은 50,60年代에 一般的으로 達成된 것보다도 상당히 낮은 水準에 머무르게 되었다. 오직 폴란드의 경우에는 社會的, 政治的 問題와 關聯되어 1980-1982年 사이에 國民所得이 急速하게 下落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 대해 報告된 인플레이션을 보면 심지어 資本主義國家와 比較해 보더라도 매우 높다. 대체로 이러한 變化는 모든 CMEA國家들이 投資를 통해 긴급한 生産能力의 現代化를 達成하는데 必要한 機會를 제한하였다.

世界經濟에서 發生한 이러한 모든 變化-앞에서 指摘한 것은 그중 一部에 불과한 것이다-는 이글의 대상기간 동안 東·西 經濟關係에 肯定的이든 否定的이든 影響을 미쳤다.[18] 이러한 影響의 大部分은 明白하다. 즉, 1972-1985年 사이에 發生한 油價上昇과 달러價値의 上昇[19] 은 蘇聯의 교환가능한 화폐부문에서의 수입증대와 수지의 현저한 改善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는 蘇聯의 經濟沈滯라는 否定的인 結果를 部分的이나마 상쇄할 수 있게 해준다.(蘇聯 經濟規模를 考慮해 볼때 물론 이는 微微하다) 1986年 西유럽에 대한 蘇聯의 貿易減少는 急速한 油價下落과 換率變動과 같은 世

註⑱ CMEA 國家들에서 國家가 海外貿易을 獨占한다는 事實은 實際로 獨占의 基本目的인 海外市場에서 發生한 影響으로부터 國內市場을 保護하는데 效果的이지 못하다. 이러한 理由中의 하나는 契約價格이 定해졌을때 世界市場 條件은 어느정도 CMEA 國家內部의 貿易(이는 量的으로 매우 重要하다)에 의해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註⑲ 유가는 항상 달러로 表示되기 때문에 두 경우는 同一한 效果를 갖는다.

界市場에 역행하는 發展때문이며, 이는 蘇聯의 달러수입 減少와 西유럽 貿易相對國에 대한 交易條件의 惡化를 가져왔다.

石油價格과 換率의 급격한 下落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蘇聯의 달러수입을 減少시키고 西유럽의 貿易相對國에 대한 貿易收支를 惡化시킨다. 이것은 앞에서와 같이 명료하다. 이러한 관계는 西歐 신용공여 때문이며, 1970年代 초기에 빠르게 擴大되었다. 1975-1980年 사이에 蘇聯,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를 여타 除外한 CMEA國家들에서 發生한 이러한 접근은 다소 限界에 부딪히게 된다. 그 반대로 部分的으로 成功한 西歐에 대한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한 强力한 努力이 存在하였다. 게다가 OECD國家로부터의 輸入은 減少되었으며 가끔 루마니아와 폴란드처럼 극적으로, 國內經濟內에서 강제적인 삭감을 위해 상당한 犧牲이 必要하였다. 이러한 發展은 CMEA 國家들과 OECD國家들간 海外交易關係의 감소내지 不況에 대한 重要한 理由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앞에서 言及한 世界經濟에서 發生한 地域的인 構造變化는 CMEA國家들과 OECD國家間의 經濟關係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데, 開發途上國을 包含하여 新興工業國이 이전에는 CMEA輸出品－특히 精密機械 및 광학제품뿐아니라 纖維·유리·세라믹－에서 큰 比重을 차지한 最終 工産品을 팔기 위해 世界市場에서 競爭하게 되었다.

體制相互間의 經濟關係에 대해 西歐經濟에서의 주기적인 變動의 效果는 명백하지가 않다. 예를들어 나는 西歐의 經濟活動이 느릴 때에는 CMEA 國家들이 西歐에 輸出하기 어렵다고 자주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現在 내가 유용하게 使用할 수 있는 情報로는 적어도 1981-1983年의 마지막 不況을 考慮할 경우 이를 確信할 수 없다. 어쨌든 CMEA國家들은 1983年 以後 西歐經濟가 호황국면을 맞으면서 西歐에 대한 輸出을 현저하게 增加

시키는데는 成功하지 못했다. 大部分의 CMEA國家들의 낮은 經濟成長은 確實히 OECD에 대한 輸出能力을 減少시켜 왔다는 것이다. 確實히 CMEA國家들의 經濟狀態는 西歐市場에 대한 供給能力과 競爭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20]

註⑳ 자세한 것은 Bethkenhagen 187, p. 188 f., p. 193. ckawh.

Ⅴ. 東西유럽 貿易關係增進에 관한 未來의 展望

1. 兩側의 基本態度

나는 東西經濟關係增進을 위한 未來의 可能性에 대한 몇가지 생각과 역시 未來展望에 包含될 이 글의 題目의 一部인 "고르바초프下"의 問題를 다루면서 結論을 맺고자 한다. 나는 여기서 "豫想"이라는 용어를 使用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도적이다. 지금 시점에서 兩側의 經濟關係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아가 現在의 不況狀態가 어떻게 克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兩側의 經濟的 潛在力에 따라 世界市場에서 重要한 位値를 차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몇년 전에는 예측이 不可能했던, 상당히 분명한 事實에서부터 出發할 수 있다. 現在 兩側은 東西間의 經濟關係를 擴大시킨다는 것에 肯定的인 態度를 보이고, 이를 發展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西歐에서 兩政府와 一般大衆들의 이러한 肯定的인 態度는 군비축소협상의 재개와 增加하고 있는 蘇聯指導力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信念등과 關聯하여 發展되어 왔으며, 이것이 긴장완화와 새로운 雰圍氣를 이끌어 왔다. 社會主義國家의 軍備擴張경향에 대한 西歐政治家 및 一般大衆에 潛在된 우려는 이전보다는 덜 言及되고, 西歐의 우월한 經濟的 潛在能力에 기초하여 社會主義國家를 '經濟戰爭'에서 이기자는 생각이, 이제와서는, 자신의 繁榮에 寄與할 經濟關係로 發展시키자는 바램으로 大部分 持續되었다.

이러한 희망이야말로 아마 西歐에 대한 긴밀한 經濟關係를 維持하려는 CMEA國家들의 肯定的인 態度에서 나타나는 基本要素일 것이다. 한편 外部의 옵져버가 判斷할 수 있는 한, 좀 더 우호적인 東西政治環境 역시 政治的으로 危險한 종속의 두려움을 줄여 준다. 덧붙여서 이제 모든 CMEA

國家들內에서 國際的인 經濟關係는 基本的으로 유용하며, 좀 더 效果的인 國內의 經濟發展을 達成하려는 이러한 西歐産業國家들에 대한 關係가 필수불가결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關係의 潛在的인 意味는 높이 評價될 수 있으며 이는 西歐와의 關係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시도와 關聯하여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東西經濟關係의 擴大를 위한 兩側의 희망은 肯定的인 징후임에 틀림없으나, 이같은 發展이 政治的인 要素에 크게 제약받는다는 事實이 아직도 많은 部分에 있어 東西經濟關係의 未來를 不確實하게 만들고 있다.

2. 經濟政策의 評價

兩側이 基本的으로 긴밀한 東西經濟關係를 보다 强化하는데 基本的으로 積極的인 態度를 갖고 있다는 事實은 各 나라가 이러한 關係를 增進시키거나 또는 그들 사이의 障壁을 제거하기 위해 努力할 것이라는 期待를 갖게끔 해준다. 앞에서 이미 指摘한 것처럼 東西가 經濟體制때문에 더욱 더 제약이 많다. 긴장완화정책이 實際로 增進된다면 1979年에 政治的인 理由로 시작된 貿易과 신용공여억제를 減少시키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COCOM이 해체될 展望은 희박하지만 좁은 意味에서 戰略商品만을 커버하기 위하여 輸出禁止品目을 줄이는 것은 西유럽國家들과 日本으로부터 상당한 支援이 있으면 可能한 일이다. 1975年以後 유럽共同體 各國으로부터 聯合EC組織으로 貿易統治權이 옮겨졌다는 事實은 特別한 狀況을 惹起시켰다. 그때 EC加入國과 CMEA國家들간에 貿易協定없이 去來를 시작한 以後, 兩側의 交易關係에 손상을 준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1986年에 다시 시작된 EC-CMEA協商으로 두 經濟組織間에는 過去보다 더욱 더 基本的인 合

意點에 도달하게 하는 더 나은 展望을 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體制間의 競爭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合意點에 도달하기 어려웠다)만일 이 協定이 成功的이라면 좀 더 유리한 수입관세가 일부 저개발 CMEA國家들에게 부과되고 原則的으로도 수입량에 대한 全體 EC國家의 全般的인 수입규제를 論議하고, 그리고 적어도 部分的이나마 이 規制를 철폐하는 것도 可能할 수 있을 것이다.

最近 CMEA國家들內에서는 對OECD經濟關係를 촉진시키는데 目的을 둔 多樣한 段階들이 海外貿易政策을 통해 이미 취해진 바 있다. 여기서 CMEA國家들이 점차로 國際組織에 參與하려고 한다는 事實에 주목하는 것이 重要하다. 오늘날 蘇聯과 東獨을 제외한 모든 유럽의 CMEA國家들은 비록 불가리아의 경우는 옵져버에 불과하지만, 모두 CATT會員[21] 이다. 現在GATT 加入에 關心을 갖고 있는 蘇聯에 대해 갖가지 소문이 돌고 있다. 會員이 된다는 것은 소량의 최종재를 輸出할때는 그리 유용하지 않지만 輸出이 增加된다면 蘇聯經濟關係에 利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 몇년 동안 CMEA 3 個國(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들은 또한 國際通貨基金의 會員이 되었다. 나머지 CMEA國家들은 國際的 地位를 上昇시킬 수 있는 시도로서 IMF의 加入을 주저하고 있다. 이는 會員이 되면 國內經濟發展에 대해 報告해야할 의무가 있고, IMF는 會員國이 원조하기에 적당할때 經濟安定化手段을 要求하면서 어느정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IMF 加入을 주저하고 있다. 몇몇 CMEA國家들은 1人當 國民

註㉑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國際聯合(UN)의 特別機構이다.

所得이 너무 높아 世界銀行(Word Bank)의 長期借款[22]을 받기에 適合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體制相互間協商이 긴밀해진다면, GATT와 IMF에 의해 提供된 機會들은 留意할 만하다.

3. 制度上의 變化

CMEA國家에서 海外貿易을 國家가 占獨함에 따라 發生하는 관료주의적 병폐와 海外貿易去來에 대한 모든 責任은 特別한 政府組織에 의해 돌아간다는 事實들은 西歐文獻에서 東西經濟關係가 不滿足스러운 狀態에 놓여지게 된 重要한 理由로 자주 言及되어 왔다. 基本的으로 지금까지는 對外經濟活動(海外貿易과 外換獨占)에 대한 國家獨占은 모든 CMEA國家들에서 維持되어 왔으나, 實際로 지난 몇년 동안 CMEA國家들 內部에는 상당한 變化가 일어났다. 이 論文에서 나는 헝가리, 독일, 蘇聯의 變化에 대한 說明으로 한정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헝가리가 가장 심하게 일어났는데, 이 나라에서는 國家와 工企業의 상당한 큰 그룹-原則的으로 企業은 모두 貿易去來를 할 수 있다.-도 獨自的으로 對外貿易을 할 수 있는 權限이 부여되었다. 이 權限에 기초한 모든 去來는 海外貿易計劃과 海外通貨準備나 또는 外換許容에 關聯하여 조절하는 國家銀行에 의해 제약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去來는 매주 國家銀行에 의해 定해지는 換率로 國家의 海外貿易組織의 간섭없이 遂行된다. 外貨로 交換이 許容된 通貨와 더불어 輸出을 增進시키기 위해 確實한 경우에 選擇的인 換率이 許容되어야 하며 外換輸

註㉒ Lawrance J. Brainard가 가까운 將來에 出刊될 美議會 合同經濟委員會議 刊行物에 기고한 글에서 蘇聯이 GATT와 IMF에 加入與否에 관하여 상세한 說明을 提示할 것이다.

入은 投資, 生産支出, 雇傭者들을 위해 企業에 남아 있게 된다.

東獨에서 外部經濟關係는 海外貿易部로 代表되는 中央政府에 의해 크게 規制된다.[23] 輸出과 輸入은 特別許可制度에 의해 제약되며, 海外貿易去來는 항상 生産되는 商品의 形態에 따라 組織되는 國家의 海外貿易企業에 의해 이루어진다. 國內生産과 海外貿易은 1979年 大部分 統合된 海外貿易企業에 대한 할당을 통해 조정되었다. 이런 경우 海外貿易企業은 全體的인 統合을 위한 責任있는 産業關聯部處와 海外貿易部에 의해 조정된다.

蘇聯의 海外貿易制度에 대한 變化는 얼마전에 일어났으며, 各 法과 法令은 1987年1月이 되어서 施行되었다.[24] 비록 외관상으로 政府部處와 企業, 企業聯合에 대한 獨立性이 增加하는 反面 相對的으로 蘇聯 海外貿易部와 同時에 海外競爭關係에 대한 蘇聯國家委員會의 影響이 減少되는 시도가 있었을지라도 이러한 接近은 東獨에 대해서 說明한 것과 類似하다. 21個의 특화된 部處와 70個의 企業들은 이제 그들 마음대로 海外貿易을 할 수 있다. 關係部處들은 海外貿易企業을 設立할 수 있으며 生産組合과 企業들도 海外貿易企業을 設立할 수 있다. 反面에 各 海外貿易部에서 海外貿易聯合과 같은 海外貿易組織은 이제 해산되거나 새로운 經營水準으로 移轉되었다. 海外貿易企業들은 制限되지 않는 經濟的 會計事務의 기초로서 運營된다. 海外貿易企業은 그들의 運營領域에 대한 海外收支의 均衡을 達成하도록 제안받는다. 蘇聯의 海外貿易部는 燃料, 原材料, 食料品, 國家的으로 중요한 資

註㉓ Faude et al., pp.302-320.

註㉔ Ekotass, "Umestaltung der Auβenwirtschaftsbeziehungen der USSR" (Reorganization of USSR Foreign Trade Relation), No.4, Moscow, 19, special edition, January 1987, pp.2-13. 參照.
Donaueuropäischer Informationsdienst, No.11, Vienna 1986. 에서 이러한 變化에 대한 見解를 說明하고 있다.

源의 交易에 대한 責任이 남아 있다. 이러한 産業에 대한 獨立的인 貿易權의 許容은 機械와 技術輸出의 65%를 包含하여 蘇聯輸出의 14%, 輸入의 26%의 影響을 준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의 海外貿易制度의 變化가 西歐産業國家와의 關係에 대한 經濟的 效率性에 크게 寄與할 것이라는 判斷은 너무 이르다. 制度的인 變化가 보다 큰 效率性을 위한 先行條件을 發生시키나 原則的으로 이 條件들은 성급한 組織的인 해답과 이에 關聯된 많은 問題에 의해 생긴 非效率的인 경직성을 가져 온다. 그러나 나는 다른 西歐의 옵져버들에 반대하여 이러한 制度的인 變化가 바른 方向으로 進行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CMEA 國家들에 의한 海外貿易去來를 促進시켰다고 믿는다. 나의 희망은 이러한 機會가 새로운 制度에 의해 效果的으로 使用되고 그들의 世界市場條件에 유연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4. 東西經濟關係에서 金融關係와 信用供與의 役割

1970年代에 CMEA國家들에 의해 輸入을 충당하려는 西歐의 信用供與는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重要한 자극이 되었는데, 이는 信用供與를 통해 두 貿易地域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부족분을 메꿀 수 있기 때문이다. 西歐의 信用供與는 새롭게 貿易을 자극하기 위한 手段으로는 使用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1970年代의 대부는 커다란 債務負擔으로 귀결되었고, 이것은 또 몇몇 CMEA國家로 하여금 약간의 成功이 따르는 債務負擔을 줄이는 유일한 수단으로 自身의 輸入을 삭감하는 유쾌하지 못한 절차를 强要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폴란드의 경우에는 債務提供조차 중단되었다. 그러나 經濟的으로 健全한 東西去來의 경우에는 貿易을 增進시키고 적어도 이

를 可能하게 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서의 대부는 兩側 모두에 다시 重要한 問題로 대두되었다. 信用供與를 許容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 것이다. 대부는 단순히 서로 다른 시간선호가 兩側利益 모두에 조화되기 때문에 發生한다. 이러한 部分에 대해 극단적으로 複雜한 問題를 言及하지 않고 全體的인 느낌에 대해서만 서술하고자 한다. 폴란드負債의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것이 體制相互間 金融關係에 계속적인 負擔이 될지라도(이러한 問題들은 상투적인 方法으로는 풀릴 수 없다) 增加된 대부행위는 豫測可能한 將來에 東西經濟關係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期待할 수 있다. 西歐의 銀行은 다시 信用供與를 許容하거나 確實한 CMEA國家들의 경우에는 계속 許容하였다. 특히 蘇聯의 信用狀態는 매우 좋으며 信用供與條件은 西歐金融市場의 條件과 낮은 危險負擔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 몇몇 CMEA國家들은, 그 중에서 특히 蘇聯은 자신의 느린 經濟成長을 克服하려는 努力과 關聯되어 이러한 可能性을 活用할 狀況도 약간은 存在한다.

5.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새로운 形態

1970年代부터 東西間의 貿易과 金融關係는 오늘날과는 다른 새로운 形態를 취할 것이란 희망을 둘러싸고 거의 기이하다고 보여지는 바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大部分 이러한 "새로운 形態"의 關係는 工業協力, 第3國協力(Third-country cooperation), 合作投資등으로 理解된다. 이러한 모든 接近은 西歐側에서 자본재를 提供하거나 生産物의 納品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개별 生産이나 무역과정에 直接的인 經濟關心을 갖고 있다는 特徵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西歐側에서는 新規技術投資事業의 成功에도 觀

心이 있기 때문에 革新, 技術과 組織에 관한 노우하우, 市場에 關聯된 知識등에 관한 情報도 提供한다. 게다가 이러한 合作事業行爲는 直接的인 資金供給을 늘 要求하지는 않는다. 70年代 上半期에는 工業協力이 CMEA國家들에게 重要하였으나 그때 조차도 結果는 期待에 못미쳤다. 그때부터 東西開發企業間에 이루어진 工業協力中에도 成功事例는 있어 왔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이러한 協業은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에 있어 重要한 要素는 아니다.

現在 많은 희망은 合作投資, 좀 더 正確하게는 항상 西歐가 參與한 CMEA內의 企業들에 대한 投資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關心은 1987年 1月 1日 蘇聯에서 발효된 새로운 法에 의해 다시 이루어졌다.[25] 그러나 사실상 이런 合作投資에 대한 法令의 先行條件은 오래전에 이미 東獨을 除外한 모든 CMEA國家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루마니아, 헝가리의 경우는 1971年부터, 불가리아는 1980年부터,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1986年부터 施行되었다.[26] 대체로 이런 合作의 形態에 대한 經驗은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理由를 說明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重要한 意味를 갖는 合作投資는 단지 헝가리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7] 이러한 새로운 形態는 現實的으로 보아 앞으로의 보다 나은 東西經濟關係의 發展을 위한 추가적인 機會

註㉕ Ekotass, No. 4, 1987, pp.23-27.

註㉖ IWD, Informationsdienst des Institutes der deutschen Wirtrchaft(Information Service of the German Economic Institute), Cologne 1987, No. 13, 26 March 1987, p.8. 參照.
Bethkenhagen 1987, pp. 190-192. 參照.

註㉗ 헝가리에서 1986年 한해동안 23개의 새로운 合作投資와 100個의 計劃에 대한 協商이 進行中에 있다.
Donaueuropaischer Informadienst, Vinna 187, No.3, p.4. 參照.

程度로 評價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런 形態內에서는 겨우 몇몇 事業計劃만 實現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合作投資는 지금까지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廣範圍한 發展을 增進시키는 强力하고 동적인 要素로서 評價될 수는 없으나, 東西關係가 보다 安定的으로 되는데 寄與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體制相互間 經濟關係增進을 위한 基本條件

全體的으로 體制相互間 經濟關係의 增進에 관한 展望은 우리가 지금까지 論議된 要素들을 考慮할때 대체로 고무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는 이러한 要素가 진실로 決定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認定해야 한다. 나의 意見으로 東歐와 西歐에 고르게 分布된 巨視經濟的인 側面의 격차감소는 未來 東西經濟關係의 增進에 決定的인 要素가 될 것이다. 過去에 나는 만일 CMEA國家들이 매우 效率的이고 成功的으로 海外貿易을 擴大하기를 원한다면 海外市場이 要求하는 만큼의 量과 質의 面에서 구색을 갖춘 輸出品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한 바 있다. 나는 어떤 種類의 商品이 최상이고, 世界市場中 어느 地域이 최선의 機會를 提供하고 있는지에 관해 종종 질문을 받는다. 現在는 이러한 質問은 잘못된 것이며, 過去의 나의 답변도 너무 피상적이었다고 생각된다. 特殊한 輸出品目에 대한 새로운 機會를 찾고 輸出生産을 增大시키는 것만이 必要한 것은 아니다. 輸出과 海外貿易關係에서 廣範圍한 成功을 위한 先行條件들을 創出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經濟活動 그 自體가 새롭고 좀 더 높은 水準으로 向上되어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現在 모든 CMEA國家들에서 進行되고 있는 根本的인 生産構造의 現代化를 達成하기 위한 努力은 未來의 東西經濟關係에 決定的으로 重要하게 될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蘇聯에서 고

르바쵸프의 의지에 의해 追求되고 있는 複雜한 經濟計劃[28]과 여타 CMEA 國家에서 벌어지고 있는 類似한 變化와 成功與否는, 國營 對外貿易制度內에 개별적인 制度的 變化보다도 훨씬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

註㉘ Perter Knirsch, : Perspectives for Soviet Economic Policy Under Gorbahev,"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Seoul, Vol. XVI, No. 1, pp. 95-107. 參照.